

이 지나면서 점차 일본 생활에 익숙해졌다. 지금은 오히려 회사생활때문에 바쁜 L씨 보다 부인 쪽이 이웃이나 아이들 친구들의 부모님같은 일본인들과의 교류는 훨씬 많은 편이라고 한다. 「특히 요즘은 한류 덕분에, 아이들 학교 친구 엄마들하고 만나서 한국 음식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기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라며 흐뭇해하는 듯한 미소를 보여 주기도 했다.

L씨는 초등학교 1학년생(7살)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살의 두 아들의 아버지이다. 두 아이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서, 잠시 한국에 다녀온 경험 이외에는 일본을 떠나 본 경험이 없다. 아이들은 일본인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L씨 부부는 두 아들이 가질 정체성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 외국에 살고 있는 자식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보다는 일본어가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부모가 한국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면 본인들도 정체성 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오고, 계속 일본 사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면서 왜 한국을 응원해야 하는지, 학교 친구들과 자신이 왜 성이 다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다.

그런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간의 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하고 있다. 아이들도 한국어로 듣거나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은 한글을 읽거나 쓰지는 못한다. 한국어를 따로 교육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따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부인과 함께 계획 중이라고 한다. 동경한국학교 라는 선택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한국 학교에 보낼 생각은 없다. 동경한국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은 점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한국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비자 문제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외국인에 대해 많이 관대한 편이다. 2010

년 2월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 생활 중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이다.

#### ◇ 신주쿠·신오오쿠보 ◇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일하다 보니, 가장 거래가 많은 신주쿠와 신오오쿠보에는 일주일에 2, 3번으로, 자주 가는 편이다. 예전에 비해서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한국 음식점이나 식품점들의 경기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예전의 신오오쿠보는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고, 음식 가격 자체가 비싼 편이었다. 음식 가격이 비싸서, 한정되어 있는 손님 대상으로밖에 장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음식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해졌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점들과 한국 가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신오오쿠보 거리는 아직은 코리아 타운이라고 불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요코하마 중화거리처럼 그곳을 한국 거리라고 말 하기에는 분위기가 많이 틀린것 같다. 지금 신오오쿠보의 모습은, 단지 한류라는 유행을 따라 가기에 촉박해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유행은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 법이고, 지금은 가장 전성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그 전성기가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신오오쿠보가 다시 한번 변하게 될 지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

#### <インタビュー 51>

#### Hさん(20代・女性)「今はただ深く考えずに絵を描きたい」

2011年8月8日、釜山出身、アルバイト  
日本滞在歴6カ月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 一度目の長期滞在と二度目の来日まで ◇

Hさんが初めて日本に長期滞在したのは、2008年の4月である。高校3年の時、卒業したら日本に留学しようと、日本の大学を受験し、都内の大学に合格した。専攻は法律だったが、これはHさん自身の希望というより、父親や高校の先生に勸

められたことが理由だという。しかし、法学部に入学したものの、法律の勉強にあまり興味を持つことができず、さらに外国人であるため、法学部であっても日本での就職は簡単ではないことがわかり、将来の展望が持てずに1学期で退学した。それから、6カ月間、日本語学校に通い、合わせて1年間日本に滞在した後、帰国した。将来の進路のことで悩んでいたHさんは、釜山の高級ホテルで受付の仕事をしたり、日本食のレストランで働きながら、2年間を過ごした。日本からの観光客も多いため、日本語をよく使っていたという。日本食のレストランでは、個室に日本食のコース料理を運ぶ仕事だったが、客からHさんの働きが評価され、韓国ではチップを渡す習慣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1か月働くと給料よりもチップの額のほうが多いぐらいになったこともあるという。

進路に悩みながら、カナダに英語を学びに行こうと考えていたが、日本での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に応募した。このビザは年間に出す数が決まっており、3月の東日本大地震の前まではかなり競争倍率が高かったのだそうだ。「ちょっと日本に未練が残っていて。(中略)でき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けど、ちょっとやってみようかなと。落ちたら、まあしょうがないって、そんな感じで行こうと思ったんです」とHさんは言う。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の抽選に当たったことで、2011年1月に二度目の日本での長期滞在をすることになった。

#### ◇ 日本での生活と東日本大地震 ◇

日本での最初の住居は、韓国人のブログで、都内でのルームメイト募集の案内を見たことがきっかけで連絡をすることで見つけた。最初のバイトは、何か募集はないかと家の周りを歩きながら探していて見つけた小さな焼き肉バーである。バイト募集のビラにあった電話番号を書きとめ、そこに電話したところ、次の日からそこで夜8時から深夜2時ごろまでバイトをすることになった。客は年長の人が多く、職業もさまざま、接客をしながら「そのおかげでちょっといろいろ勉強になった」そうだ。

現在は、新宿区内の焼き肉店でランチと夜の営業時間の両方でバイトをしている。朝、8時ごろには起きて、10時から2時まで仕事をし、少し仮眠をとった後、4時から深夜までさらに仕事をす。家に帰ると深夜の1時ぐらいになってしまう

という。韓国人がバイトを探するとき、韓国人留学生向けのインターネットのサイトを利用するが、求人はやはり新宿、中でも新大久保が多いそうだ。飲食店のほうも求人を出すのに、日本の求人サイトなどを使って募集すると料金がかかるが、「ここ(韓国のサイト)はタダだから。ここに募集をあげるんですよ。それで外国人は早く仕事を探さないとだめ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利用して全部外国人になったんですよ」という。バイト先に近い新宿区内でアパートを探すと家賃が高くなることと、将来の進路が見えてきたこともあり、現在は都内の別の区に引っ越し、そこから通勤している。今の不満は、バイト先に通うための交通費が半額しか出ないことだ。

バイト先で、客が「日本が韓国に行って、鉄道とか道とかいろいろつくってあげたから、逆にありがたいことでは」と言われたことがある。Hさんは、「そういう時、私はできれば歴史の話はしたくないです」という。日本の若者には、日本が韓国を植民地化していたことも知らない人も多く、歴史について興味がある人も少ないという。独島／竹島の領土問題についても、政治家や年長者が騒いでいるだけだと思っている。「たぶん、年を取った人が全部死んじゃったら、その話は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と未来に希望を寄せている。現在の日本におけるK-POPや韓国ドラマの人気の、韓国人のイメージが良くなっていることを感じる。バイト先でも韓国のアイドルグループ「KARA」や「少女時代」の話で親しくなり、話をするきっかけにもなっているという。

3月の東日本大地震が起こったときは、渋谷にいたが、たまたま建物の地下にいたため、そこまで大きな揺れだと感じなかったそうだ。地震を体験したのは初めてだったこともあり、「普通かなと思った」そうだ。しかし周りの人たちがの反応がかなり激しかったため、これは深刻だと思い始めたという。両親からは帰ってきてほしいと言われたが、「大丈夫だって。未来も大事だから、私のことは尊重して」と言って両親を説得した。

#### ◇ 将来について ◇

日本に来る前までは、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で1年間、日本で過ごし、そのまま韓国に帰ろうと思っていた。しかし、日本に滞在する中で、美術大学への進学を考えるようになった。あまり勉強は好きではなかったが、小学生の時から絵を

描くのが好きだった。そして絵の大会などでいつも賞をもらい、周りの母親たちも、Hさんの母親に対して、Hさんを美術の道に行かせたらどうか、と勧めるほどの腕前だった。しかし、「お母さんがだめだって反対したんです。それで途中でやめたんですけど、結局は戻ってきたんですね」と語る。

1年後には、日本語だけでなく芸術関係の科目も学べる専門学校にまずは入学し、美大受験の準備をする予定だ。そのために、その専門学校に近いところに引っ越しをした。韓国ではなく、日本で美大に入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のは、同じようにワーキング・ホリデイビザで日本に滞在していた韓国女性から、韓国の美大の話聞いたことがきっかけだ。その女性は美大生だったが、「韓国より、日本とか外国で美術を勉強したほうがいい」と言われた。その女性の通う美大は、学生はあまり勉強しないし、美大なのにほかの普通の大学とあまりかわら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

美大で何を専攻するのかはまだわからない。それも含めて専門学校に入学して考えてみたいという。Hさんは模写が得意だが、そのような絵の才能は、「お父さんからもらったんです」という。Hさんの父親は建築の設計士だ。美大を卒業し、会社で3年働いた後、企業ロゴのデザインなどを手掛ける個人事務所を営んでいる親戚の男性の影響もある。デザインにも興味はあるが、「今はただ深く考えずに絵を描きたい」という。釜山の日本食レストランで働いていたときに、「サービスが私に合うのかな」と思ったというが、「人間と人間の仕事だから、ここでちょっと疲れたんです」とHさんは言う。接客業を経験したことで、「私の世界で、一人でできる仕事がほし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そして、「結婚してもやっぱり仕事をしたいんです」という。

#### ◇ 友人関係 ◇

日本に以前、留学していたこと、そして高校生の時にも長崎でホームステイを経験していることもあり、その時の友人に時々連絡したり、会ったり、友人を紹介してもらったりすることはあるが、なかなか親しい日本人の友人をつくるのは難しい。日本人と話すのは、今のところバイト先であることが多い。外国人だからと興味を持って話してくる客もいるが、「見えない壁がありますよね。(中略)もし私が大学生になったら違う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バイト先とかで出会ったか

ら・・・」と語る。Hさんは、まだ来日して半年であるため、「今からスタート」だそうだ。日本に住んでいると、「日本と韓国は近いけど遠い」ということを実感するという。特に食事や飲みに行ったときの「割り勘」にはなかなか慣れない。韓国では「今回は私が払うから次払って」ということが多いが、日本では「割り勘」が主流であるため、「ちょっと寂しいというか、冷たく感じる」のだそうだ。

#### <インタビュー 51>

H씨 (20대・여성) 「지금은 단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2011년8월8일, 부산출신, 아르바이트

일본체재6개월째

인터뷰담당 : 카와이 유우코

#### ◇ 첫번째의 장기 체재와 두번째로 일본에 오기까지 ◇

H씨가 처음 일본에 장기체재를 한 것은, 2008년의 4월이다. 고등학교 3학년때, 졸업하면 일본으로 유학하려고, 일본 대학을 수험했고, 도내의 대학에 합격했다. 전공은 법률이었지만, 이것은 H씨 자신의 희망이라기 보다, 아버지와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권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학부에 입학은 했지만, 법률공부에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게다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법학부라고 해도 일본에서의 취직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장래의 희망을 가지지 못한채 1학기로 퇴학했다. 그리고 나서, 6개월간 일본어 학교에 다니며, 모두 합해서1년간 일본에 체제한 후, 귀국했다. 장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H씨는, 부산의 고급호텔에서 접수처의 일을 하거나, 일본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2년간을 지냈다. 일본 관광객도 많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식 레스토랑에서는, 개인실에 일본식 코스요리를 나르는 일이었지만, 손님들로부터H씨의 일하는 것이 인정받아,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습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일하면, 급여보다도 팁 액수가 더 많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캐나다로 영어를 배우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응모했다. 이 비자는 연간 허

락 하는 수가 정해져 있어서, 3월의 동일본 대지진 전에는 상당히 경쟁율이 높았다고 한다. 「조금 일본에 미련이 남아있었고 (중략)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라고. 떨어지면 뭐 어쩔수 없지,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생각했죠」 라고 H씨는 말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추천에 뽐힘으로써, 2011년1월에 두번째로 일본에서 장기체재를 하게 된다.

#### ◇ 일본에서의 생활과 동일본 대지진 ◇

일본에서의 첫 주거는, 한국인 블로그에서 룸메이트 모집 안내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연락해서 구하게 된다. 처음 아르바이트는, 뭔가 모집 하는 곳이 없을까 하고 집 주위를 걸으면서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조그만한 야끼니꾸 바였다.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지에 적힌 전화 번호를 적어서 전화 했는데, 다음날 부터 그곳에서 밤 8시부터 심야 2시경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손님은 연장자가 많고, 직업도 각양 각색으로, 접객을 하면서 「그 덕분에 조금 여러가지로 공부가 되었다」 고 한다.

지금은, 신주쿠내의 야끼니꾸점에서 점심과 저녁 영업시간 양쪽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0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조금 선잠을 자고 난 후, 4시부터 심야까지 더 일한다. 집에 돌아가면 심야 1시정도가 된다고 한다. 한국인이 아르바이트를 찾을때, 한국인 유학생 대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만, 구인은 역시 신주쿠, 그 중에서도 신오오쿠보가 많다고 한다. 음식점 쪽도 구인을 내지만, 일본 구인 사이트등을 이용해서 모집하면 요금이 들지만, 「여기 (한국사이트) 는 공짜니까. 이곳에 모집을 올려요. 게다가 외국인은 빨리 일할 곳을 찾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전부 외국인이 되었죠」 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가까운 신주쿠구내의 아파트를 찾으면 야짱이 비싸지는것과 장래의 진로가 보이기 시작한 것도 있어서, 현재는 도내의 다른 구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통근하고 있다. 지금의 불만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다니기 위한 교통비가 반액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손님이 「일본이 한국에 가서, 전철이나 도로등 여러가지를 만들어줬으니깐, 반대로 고마운것이 아니냐」 고 하신 적이 있다. H씨는, 「그럴때, 저는 가능하면 역사이

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한다.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한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역사에 대해 흥미가 있는 사람도 적다고 한다. 독도/타케 시마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가나 연장자가 떠들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나이드신 분들이 전부 돌아가시면, 그 이야기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라고 미래에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 K-POP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인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걸 느낀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KARA」나 「소녀시대」의 이야기로 친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할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때는, 시부야에 있었는데, 우연히 건물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크게 흔들렸다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지진을 체험한 것이 처음이기도 했기에, 「보통 이런가 하고 생각 했죠」 라고 한다. 그러나 주위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격해있었기 때문에, 이걸 심각한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부모님께서는 돌아오길 바란다 고 하셨지만, 「괜찮아요. 미래도 중요하니까, 저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 ◇ 장래에 대하여 ◇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년간, 일본에서 지내고,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에 체재하는 중에, 미술대학으로의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다. 별로 공부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림대회등에서 언제나 상을 받고, 주위의 엄마들도, H씨의 엄마에게, H씨를 미술의 길로 보내면 어떨까, 라고 권유할 정도의 실력이였다. 그러나, 「엄마가 안된다고 반대 하셨어요. 그래서 도중에 그만두었는데, 결국은 돌아왔네요」 라고 말한다. 일년 뒤에는, 일본어 뿐 만아니라, 예술관계의 과목도 배울수 있는 전문학교로 우선 입학하고, 미대 수험 준비를 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문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한국에서가 아닌, 일본의 미대에 입학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똑같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한국인 여성으로 부터, 한국의 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이다. 그 여성은 미대생이었는데, 「한

국보다 일본이나 외국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편이 좋다」고 하셨다. 그 여성이 다니는 미대는, 학생은 별로 공부하지 않고, 미대인데 다른 보통 대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 는 것이었다. 미대에서 무엇을 전공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것도 포함해서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 싶다고 한다. H씨는 묘사가 가장 자신있지만, 그러한 그림의 재능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어요」라고 한다. H씨의 부친은 건축설계사 이시다. 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3년 근무한 후, 기업로고 디자인등을 다루는 개인 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친척분의 영향도 있다. 디자인에도 흥미가 있지만, 「지금은 단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 부산의 일본식 레스 토랑에서 일하고 있을때에, 「서비스가 나에게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일하기에, 이점에서 조금 지쳤어요」라고 H씨는 말한다.接客업을 경험했기에, 「저만의 세계에서, 혼자 할수있는 일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역시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

#### ◇ 친우관계 ◇

일본에 이전에 유학했었던 것,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도 나가사키에서 홈스테이를 경험했던 적도 있고 해서, 그때의 친구에게 가끔씩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소개받거나 하는것은 있지만, 좀처럼 친한 일본인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일본인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일때가 많다. 외국인이기엔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해오는 손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잖아요 (중략)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 되면 다들지도 모르지만, 역시 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만났기에…」라고 말한다. H씨는, 아직 일본온지 반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일본에 살고 있으면, 「일본과 한국은 가깝지만 멀다」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 특히 식사나 한잔 하러 갔을때의 「각자 부담」에는 좀처럼 익숙해 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이번에는 내가 낼 테니까 다음에 내」라는 식이 많지만, 일본에서는 「각자 부담」이 주류여서, 「조금 쓸쓸하다 라고 할까, 냉정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인터뷰어 52>

### シンさん (20代・男性) 「自分が今やりたいことをやりたい」

2011年8月8日、ソウル出身  
大学生、日本滞在歴5カ月  
インタビュー担当：河合優子

#### ◇ 来日のきっかけ ◇

シンさんは、ソウル近郊の大学で経営学を専攻する4年生である。あと1学期を残して、2011年2月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を利用して来日した。日本語を学び始めたのは、高校生のときだ。ゲームに凝っていたが、当時、流行していたゲームは、日本のものが多かったそうだ。ゲームに出てくる日本語の意味が知りたいと思い始め、家にたまたまあった日本語の辞書を使い、ひらがなを覚えた。「(ゲームの) キャラとかの名前が読めるようになって、それが楽しくて、それで続けたんですね」という。「ただ趣味で」日本語を勉強し、高校や大学でも日本語の授業は履修したことがない。6カ月間、語学学校で日本語の基本的な文法を学んだことはあるが、後にも先にも、日本語を正式に学んだのはこれが全てである。あとは、日本の映画やドラマを見たりすることで日本語力を伸ばした。

初めて日本に来たのは2008年である。大学に入学し、2年間大学で勉強した後、軍隊で2年間の兵役に従事した。そして、除隊後、復学する時期まで少し時間があつたため、バイトをしてお金を貯め、友人3人と大阪に旅行に来た。旅行ではなく、今回は、ワーキング・ホリデービザで日本に長期滞在しようと思った理由について、「たまたまじゃないですか。真剣に思って来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という。英語もやりたいと思ってたため、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に行くことも考えていたが、「ワーキング・ホリデーっていうビザは、日本から韓国行くにはそんな難しくないんですけど、韓国から日本に来るには競争が厳しいんですよ、みんな行こうとするから。それで、一応やっ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何げなく応募したんですよ。それで受かっちゃって、せっかくだからもったいないし、日本語の実力ももっと磨きたいから、ちょっと行ってみようかなと」いうことで来日することになった。

#### ◇ 日本での生活と東日本大地震 ◇

日本に来る前に、インターネットで契約ができ

る韓国人経営の不動産業者を通して、アパートを探した。アルバイトは新宿区内で探したが、住居は「やっぱり高いから、さすがにちょっと無理かな」と思ったという。バイト先は新宿で探した理由について、「繁華街だし、いろいろな人が来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がいいかなという感じで」という。しかし、最初から韓国人の人が経営する店ではバイトは探さなかった。「せっかく日本に来たのに、同じ韓国人の人と一緒に働いても意味がないと思って。どうせやるんだったら、日本のお店で日本人たちと働いたほうがいいかな」とシンさんは語る。バイトを探すのに約1カ月かかったが、現在は新宿区内の焼き肉店の厨房で肉を切る仕事を、ランチ時間は週4回、夜の営業時間は週3回やっている。旅行が好きだというシンさんは、暇があれば自転車を使い、浅草や台場、渋谷など、さまざまな場所に出かけている。「そろそろほかのバイトも探し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今は休みが多いので、結構楽しんでます」という。

日本に来て1カ月が過ぎたころ、東日本大地震とそれに伴う福島原発事故が起きた。その時は、自宅のアパートにいたが、お皿や食器が割れ、いろいろな物が落下し、余震の際に、机の上にあったパソコンも落下して壊れてしまった。両親もかなり心配をし、今でもシンさんの祖母は「危ないから早く帰りなさい」と言っているという。しかし、「これも自分の勝手な考えなんですけど、今それが本当に危ないかどうかわか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危ないという人もいれば、逆にそれは危なく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自分がやりたいことがあるから、確かじゃないことに惑わされるんじゃないで、自分が今やりたいことをやりたいと、意地張って今いるんですけど。(中略)例えば、自分が明日、交通事故で死ぬかもしれないんですよ。それは、人のことって誰もわか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自分が一番やりたいことをやろうと思って。それで今もいます」と言う。

#### ◇ 人間関係など ◇

ワーキング・ホリデイビザで来日しているため、日本の大学生と知り合う機会はあまりないそうだが、2010年の夏、関東地方の大学の日本人留学生が、シンさんの家に1カ月間、ホームステイしたこともあり、その友人が「大事なつながり」だと

いう。その他、ミクシィなどのインターネットのコミュニティサイトを利用して、韓国に興味をもつ日本人と韓国人の交流グループのオフ会に参加することで日本人の友人をつくっている。最近では、ほぼ週に1回は交流会があり、集まる場所はだいたい新大久保だ。交流会では飲みに行ったり、カラオケに行ったりする。

シンさんは、「新大久保にいと、(中略)日本にいるのかどうかわからなくなるんです。韓国の明洞ってところも結構、雰囲気が似ているんで」という。韓国人同士で集まるときにも、新大久保が多い。「韓国のお酒や韓国料理が食べたいと思うと、新大久保に行くしかない」そう。ただ、物価の違いもあるが、新大久保では、韓国と比べると韓国の食べ物がかなり高く売られているという。例えば、屋台で売られているホットク(揚げ焼きパン)は4倍、韓国料理屋のサムギョプサル(豚の三枚肉を使った焼肉料理)は倍ぐらいの値段で売られているが、量は韓国で出されるものに比べて少ないという。

歴史問題については、日本人の友人や知り合いと語ることはあまりない。「昔の話だから、僕はあんまり今は関係ないと思うんですよ。(中略)昔の話であんまりしても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今の日本が悪い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今は若い子は、できればその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のだそう。「僕も今は気にしない、過去の話ですからあまり気にしない」が、日本が韓国を植民地化していたことは知っていてほしい。日本が韓国を植民地化していたことには触れずに、「日本がどんなにアメリカにやられて、何か日本は被害者だって言う、被害者だからアメリカが悪いとか、そういう話をする。それはちょっと嫌ですね」という。

K-POPや韓国ドラマが日本で人気があることについては、「昔よりは韓国人のイメージがよくなった」という印象を持っている。日本のテレビで韓国のドラマが放送されていたりすると、やはりうれしくなるそう。韓国や韓国文化に興味を持つ日本人が増えたことで、友人をつくるきっかけにもなっている。6月に韓国に一時帰国した時、日本に戻る飛行機の中で、以下のような経験をした。「僕は寝てたんですけど、隣の席の人が韓国語で『チョギョ、チョギョ』って。(中略)自分と呼んでるの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が違ってたんですよ。韓国語の話をしてたんですよ」。その

隣の席の人たちは「チョギョ」の意味を話し合っていたそうだ。韓国ドラマなどに興味を持っている若い日本人女性で、その韓国語の意味を教えてあげたことがきっかけで話がはずみ、今でも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という。

### ◇ 将来について ◇

将来については、まだはっきりとは決めていない。「自分でもちょっと情けないことなんですけど、(中略)自分が将来何がしたいのか決めてないんですよ、正直。それで、一応今、外国語を勉強しているんですけど、日本語と英語と。結構、外国語を勉強するのが楽しくて」とシンさんは語る。日本でワーキング・ホリデイビザで1年過ごした後、カナダかオーストラリアに再度、ワーキング・ホリデイビザで行き、英語力を伸ばすことを考えている。現在、時間があるときには、インターネットで英語の講座も受講している。昔は英語は好きではなかったそうだが、「今は結構好きになって、ちょっと本気でやってみようと思って」という。もともと大学で経営学を専攻したのは、「たまたまですね」というが、それ以外にも、就職に有利であること、「やっぱり就職のできる幅が広いっていうか、いろんな分野の仕事ができる専攻だから」という理由もあった。韓国の大学に復学するのは、カナダかオーストラリアに行った後になるが、将来は、海外出張の機会が多く、日本語と英語が両方使えるような仕事をしてみたいという。

### <인터뷰 53>

#### II씨 (30대 후반・남성) 「세번째로 일본에 와서 일본전도의 사명을 안고」

2011년8월10일, 전라남도 출신 전도사, 일본체재6년째 인터뷰 담당 : 이호현

### ◇ 삼세번의 도전 ‘일본생활’ ◇

98년 신문장학생으로 처음 일본땅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아르바이트와 함께 시작하는 1월은 춥고, 아주 서툰 일본어로 인해 제대로 의사소통도 못한채, 들어가는것은 자전거로인한 타박상의 상처뿐이었다.

처음 온 일본은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구나라는 인상만 안은채,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던 일로,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빠른 10개월 만에 귀국한다. 두번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느낌만을 안은채로.

하지만, 10개월간 일본생활에서 익히게 된 일본어로 인하여, 일본어 학과로 편입하게 되고, 4학년때 교환학생으로 다시금 일본에 오게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처음과는 많이 다른 입장에서 이번에는 일본어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라는 다짐을 안고, 두번째의 일본생활이 시작된다. 그후, 교환학생이 끝나면서 귀국하지 않고, 일본의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된다.

그러나, 학교생활과는 달리,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였다. 즉, 자신의 모든것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직장안에서 나까마에 들어가는것이 좀처럼 힘들었다. 결국은 낯설고 곱돌게 되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어쩔수없는 자괴감을 맛보게 된다.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겪으면서 절대자에 대한 의지, 즉, 모태신앙의 힘이 자신을 버티게 해주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 일본땅에서 외국인인 자신이 일본인을 위해서 할수 있는게 있다면, 내가 아는 멋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만약 다시 일본으로 올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오겠다는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귀국하게 된다.

한국에 돌아가서 행복했던 것도 한순간, 결혼의 약속이 무산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본 선교를 새삼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더 깊이 일본사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서도 신학교를 들어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결심하게 된다. 삼 세번이라고 했던가. 이번엔 정말로 자신이 일본을 위해 할수 있는 일본선교를 위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하려고, 세번째로 일본의 신학교에 오게 된다.

### ◇외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어느나라 이진 외국인은 이방인 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에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라고 먼저 결론 지으신다. 복음이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민폐, 즉 항상 진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기에, 더욱이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 아닌 일본사회에서, 게다가 외국인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도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두가지 일을 해야 하기에 그만큼의 십자가를 지어야 갈수 있는 길이 외국에서의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며, 성도님들의 고충 또한 살짝 들려주신다.

반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한국사람이면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교감은 남다르기에,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나누는 것은, 외국생활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일본 신학교를 다니면서, 물론 신학생들도 인간이기에 일본사회의 그 어떠한 것들이 묻혀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만큼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지, 그곳에서 많은 동기들을 만나면서 느낀다.

그런 전도사님의 일본에서의 선교는, 무엇보다도 닫혀있는 일본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어루만져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일본에 800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고 한다.

### ◇ 3·11 재해이후의 변화와 사명감 ◇

3·11의 대지진은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마침 그날은 1시반부터 신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흔들리는 졸업식장, 졸업생들, 축하객들 모두 돌아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있을 졸업생의 결혼식도 할지 말지의 여부를 두고 많이 당황 했다고 한다. 「그땐 전쟁이였잖아요」라는 군대를 다녀온 한국 남자다운 표현에서 그날의 당혹함이 일면 엿보인다.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과연 일본에 살수 있을까, 특히 여자친구도 일본사람이고, 솔직히, 일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교를 위해 삼 세번의 역경을 딛고 온 일본인데, 다시는 돌아 가는 일은 없을 거라 다짐 했었는데, 이번의 지진은 그 마음을 조금 흔들며 고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첫 마음이다.

하지만, 처음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오히려 끝까지 일본사람편이 돼야 되겠다 라고 다시금 마음을 굳건히 다잡는 계기가 된다. 일본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내가 이곳에

살아야하는 이유, 곧 선교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일본사람들을 바라보니, 참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럽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무력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나 자신이라도 남아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전도사님이 어려서 부터 듣고 자란 이야기중 하나가, 결혼식에는 못가도 장례식장에는 꼭 가야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기쁜일보다 슬프고 힘든일 일수록 옆에 있어주는게 사람에게 대한 정이고 도리이다 라고 배웠다.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본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사랑이, 함께 있어주는 것, 힘들수록 옆에 있어주고, 꼭 무언가 말을 안해도 옆자리를 지키는 것 만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다. 박애정신, 신학적 표현을 빌리자면, 일반적인 은총,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시다 라고 하는 것. 성경말씀 중에, 동일한 해를 비취주시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공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시라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슬퍼할때에 옆에 있어 주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해야하는 일이라고 덧붙이신다.

### ◇ 신오오쿠보의 매력에 빠지다 ◇

요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오오쿠보의 매력에 빠져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간식으로 자주 먹었던 호떡을 먹을수 있고, 무엇보다 맛있는 한국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카레를 제일 좋아하던 일본인 여자친구도 지금은 김치찌개, 호르몬 나베를 제일 좋아한다고 한다. 여자친구에게 손수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는 자상한 일면을 보이시는 전도사님, 아마도 한국음식을 좋아할 수 밖에 없겠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요즈음 더욱 절실히 피부로 느끼는 신오오쿠보의 매력을 알려주셨다. 몇년전만해도 느끼지 못했던, 신문장학생으로 와서 고학했던 첫 일본 생활에서는 느낄수도 없었던,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한국의 음식을, 한국의 문화들을 이렇게나 좋아해 주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더욱 자주 신오오쿠보 거리를 들리신다고 한다.

한국음식점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한국이 자랑스럽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도 웬지 뿌듯하고, 스스로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곳이 더욱 좋다고 하신다.

미래의 선교를 생각할때, 부모님들이 더 일본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신쥬쿠의 일터에 나와서 맛있고 멋진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2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일본과 친숙해져서 진정한 화해를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리라 본다며, 신오오쿠보의 변화된 모습에서 일본 선교의 가능성을 엿보신다.

이곳 신쥬쿠가 그러한 장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길 바란다.

이번의 지진재해 또한 많은 일본 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을 테고,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 엔고 현상, 힘들어지는 경제, 등으로 인하여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내부에서 많이 일고 있을테고, 그것이 전향적인 사고로 연결되어, 일본인의 생각들이 많이 열리며,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신다.

#### ◇ 앞으로의 선교의 비전 ◇

일본인의 남에게 무신경함, 뭔가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가는 사람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외로움이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고 한다.

한일간의 독도 문제가 생기든, 역사적 문제가 다시 거론되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사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사랑할수 있을만큼 사랑하고 오히려 모자람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하신다.

전도사님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상은,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사람이 중심이 되어 리더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사람 또한 일본사람을 위한 마음을 품고, 돕는 역할을 하는, 일본의, 일본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일본땅이기에 일본인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신다.

전도사님이 꿈꾸는 선교는 다음 세대가 나설

수 있는 장(토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우리같은 뉴커머들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잘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장점들을 잘 흡수해서, 이 땅의 한국사람/ 일본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 시켰듯이, 일본사람과 한국사람들을 화해 시켜,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뉴커머 1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션을 말씀하신다.

창의적이지 못한, 자기만을 위한, 남을 많이 배려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세대의 아쉬운점을 극복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즉, 우리의 2세대들에게는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을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의연한 모습들을 보여줄때,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일본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일본사람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세대로 자랄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하신다.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것이 우리 1세대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유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이신다.

이땅의 일본인이 잘 돼야 함께사는 외국인들도 좋은 것이라며, 섬기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 <インタビュー 53>

#### JI さん (30代後半・男性) 「三度目の来日で、日本伝道という夢の道へ」

2011年8月10日、全羅南道出身  
伝道師、日本滞在6年目  
インタビュー担当：李 坪鉉

#### ◇ 三度目の挑戦 ‘日本生活’ ◇

1998年、新聞奨学生という立場で初めて日本に来る。しかし、慣れない国でアルバイトと共に始まる1月の生活はとても寒かった。しかも、とても下手な日本語のせいで、ろくに意思疎通もできないまま、増えるのは自転車による打撲の傷跡だけだった。

初めてきた日本は、日本語を分からない外国人に対して差別が酷いという印象だけを抱いたまま、車と衝突事故になりかけたことをきっかけに、計画より少し早めの10カ月ぶりに帰国する。「二度

と来たくない国」という印象を抱いていた。

しかし、10ヶ月間の日本生活で学んだ日本語のおかげで、日本語学科に編入でき、4年生になった時、交換留学生として再び日本に来る機会が与えられた。最初とはだいぶ違う立場で、「今度こそ、まともに日本語を学んでみよう」と心に決め、二度目の日本生活が始まる。その後、交換留学が終わり、そのまま日本のデパートに就職することになる。

しかし、学校生活とは異なり、職場生活というのはまた違う世界だった。自分の全てを出しきったと考えていたが、職場での仲間入りは相当難しかった。結局は、なかなか慣れず、周辺人的な自分が、外国人というどうしようもない自己恥辱感を味わうことになる。

職場での難しさと未来に対する不安感を経験しながら、絶対者に対する意志、すなわち、母胎信仰の力が自分を支えてくれたという。何よりも、ここ日本の地で外国人である自分が日本人のためにできることがあるとしたら、自分が知っている素晴らしい神様を紹介することだけだということを知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帰国することとなるが、もし、再び日本に来るチャンスがあったら、今度こそ絶対に宣教のために来るという心の種をまいて帰国する。

韓国に帰って幸せだったのも一瞬、結婚の約束が失敗に終わり、その時、神様と約束した日本宣教を再び思い浮かべる。そして、もっと深く日本社会に入りたいという気持ちから、韓国でも神学校に入ることが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神学校に入ることを決心する。三度目の正直というのであろうか、今度こそ本当に日本のためにできる日本宣教という夢を叶えるための挑戦をしようと、三回目の来日で神学校に入ることになる。

#### ◇ 外国で信仰人として生きる ◇

どの国であろうと外国人は異邦人である。だから外国で宗教をもつということは、やさしいことではないと先に結論から話す。福音というもの、真理はいつも迫害を受けてきた。さらに、「キリスト教に対して友好的ではない日本社会で、しかも外国人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ということは、ノン・クリスチャンで生きるより遥かに大変だ」という。

なぜならば、異邦人として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クリスチャンらしく生きていく

ことという二つのこ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それだけの十字架を背負ってこそ実現できるものが外国で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ことであると言いながら、聖徒の苦痛をさりげなく聞かせてくれた。

反面、外国で生活しながら、同じ韓国人で同じ信仰をもつ人々との交流や理解は格別である。同じ信仰を有した人同士で頼り、互いに助け合ったりするのは、外国生活で心の平安と慰めになり、大いに役立つという。

日本の神学校に通った経験については、もちろん神学校の生徒たちも人間である以上、日本社会のあらゆる姿をみせているが、「神様に向かった信仰がどれほど人に挑戦を与え、力をくれるのか」そこでたくさん同期と付き合いながら感じたという。

そんな伝道師の日本での宣教は、「何よりも堅く閉ざされた日本の人々の心を神様がたくさん慰めてくれ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祈りの題名について話してくれた。日本には800を超える神様が存在すると聞いているが、自分が知っている神様が彼らを慰めてくれて、神様を信じる人が増えることを願い、祈っているという。

#### ◇ 3・11 震災後の変化と使命感 ◇

3・11の大震災はいろいろな面において再び心を決めるきっかけとなった。

ちょうどその日は、一時半から神学校の卒業式があった。揺れる卒業式場、卒業生たち、祝い客、皆帰れず、その次の日に予定していた卒業生の結婚式もやるか止めるかの可否でだいぶ慌てたという。「その時は、戦争だった」という軍隊を経験した韓国男子らしい表現からも当日の当惑する一面がうかがわれた。

そのようなことを経験しながら、「果たして日本で暮らせるのか」、正直に、「日本で私に何ができるのか？」。

宣教のために逆境を乗り越え、三度目の来日をしたのに、二度と帰ることはないだろうと誓ったのに、今回の地震はその心をわずかにだが揺さぶって、悩んだという。

しかし、最初、少しの間だけでもそんなことを思ったのが恥ずかしくなるほど、むしろ、最後まで日本人側に立つ人になろうと再び心を強く決心する。「日本に私を送った神様の目的は明確である」と信じ、「私がここで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

宣教である」と確信したという。

それから、日本の人々を見ると、良いインフラ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羨ましい国であるにも関わらず、どうしようもない自然の災害の前では無力であ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が痛ましいという。だから、自分一人でも残って、より頑張っ  
て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気持ちになったという。

伝道師さんが小さい頃から聞いた話の中には、結婚式には行けなくても、葬儀場には必ず行くべきだということがある。すなわち、喜ばしい時より悲しくて大変な時に、そばにいることが人に対する情であり、道理であると教わった。まして、信仰のない人もそのように互いに励まし合いながら生きるという知恵があるのに、信仰がある人はより模範を見せるのが当然だという。

聖書でいう愛は、ともにいること、苦しいときほどそばで支えることである。何か話さなくても傍で見守るだけでも友だちになれる。そんな姿をクリスチャンたちが、宗教人たちが多く見せるのは当然のことだという。博愛の精神、神学的な表現を借りると、一般的な恵み、すなわち、神様は全ての人に平等であるということ。聖書の中には、全ての人に同一の太陽を昇らせ、同一の雨を降らせ、同一の空気を送るそんな神様であること。ゆえに神様の御言葉どおり、悲しい時に傍にいな  
がら助け合うのは当然のことで、よりすべきことであると付け加えた。

#### ◇ 新大久保の魅力にはまる ◇

最近、以前よりまして新大久保の魅力にはまっているという。なぜならば、「小さい頃間食でよく食べた懐かしい「ホトック」が食べられる、何よりおいしい韓国料理がたくさんあるから」だと話す。インドカレーが好きだった日本人の彼女も、今はキムチチゲ、ホルモンなべが好きだという。時々彼女にキムチチゲの手料理を作ってあげるとい  
う優しい一面を見せる伝道師さん。韓国料理が好きになる彼女の気持ちが分かるような気がする。

しかし、何よりも最近もっとも切実に肌で感じる新大久保の魅力について話した。何年前までには感じられなかった、新聞奨学生として来日し苦学した最初の日本生活では感じられなかったことがあるという。それは、日本の人々が韓国を、韓国の食べ物を、韓国の文化を、こんなにも好きになってくれたことである。それがあまりにも嬉し

くて、もっと頻繁に新大久保の町に寄るとい  
う。これがなによりの新大久保の魅力であるという。

韓国料理の店に長い列で待っている日本の方の姿をみると、韓国が誇らしく思えて、自分がお金を稼いでいるわけでもないが、何となく満たされる。自分が優遇されるような気持ちになる、そんなところ  
に変わったので、ここがもっと好きになったという。

「未来の宣教を考えると、親たちがもっと日本を愛し、仕える姿を子どもたちに見せながら、新宿の仕事場に出て、おいしくて素晴らしい韓国料理、文化を紹介していくならば、これからの我  
ら二世たちは、自然と日本に慣れしんで、本当の和解のための重要な懸け橋としての役割を担うことができる」といいながら、新大久保の変化する姿から日本宣教の可能性を予測していた。

ここ、新宿がそんな場として位置づいていくことを願う。

今回の震災は多くの日本の方たちの価値観に影響しており、政治的なリーダーシップの不在、円高現象、苦しくなる経済等によって、何か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熱望が内部から噴き出  
ているだろう。それが前向きな思考につながって、日本人の考えがより開いて、もっと積極的に変わっていくことを期待するという。

#### ◇ これからの宣教のビジョン ◇

日本人が他人に無関心であること、何かを超越したかのような様子、去る人は去る、残る人は残るだろうというそんな姿から、誰も信じられなくなった彼らの悲しみがもっと痛ましく感じられるという。

「日韓の竹島問題が起きようが、歴史的な問題が再び論議されようが、感情に惑わされず、愛することにおいては不足す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愛せる限り愛して、それでも足りない心配することが宗教人としての姿である」という。

伝道師さんが描く教会像は、聖徒とともに創っていく教会である。日本の方が中心となってリードしていく教会を創ることである。韓国の方も日本の方のためという心を抱き、助ける役割をする教会である。なぜならば、ここは日本の地で、だからこそ、日本人が中心となった教会になるのが理想的だと話した。

伝道師が夢見る宣教は次の世代が頑張れる土台

を作ってあげることである。すなわち、「我らニューカマーの次世代がこの地で定着していくために、長所を吸収し、この地の韓国人・日本人をつなぐ懸け橋になるだけではなく、イエスさまが神様と私たちを和解させたように、日本人と韓国人を和解させ、真の同伴者とさせていく役割を担えること」が願いだという。それは、ニューカマー第一世代がやるべきことだとミッションを話してくれた。

「創意的でなかった、自分だけを思った、他人を配慮できなかった、そんな我ら世代の惜しいところを克服できる教育が必要だ」という。つまり、次世代が我らの考えの限界を乗り越えられるように、我らがもっと日本のために祈り、愛し、毅然とした姿を見せることが大事だという。我々の子どもたちは、そのような親の姿をみて、自然と日本を愛し、祈り、日本人に対して良い感情を抱く肯定的な思考をもつ世代として育っていくと話してくれた。

したがって、そんな姿を見せるためにたくさん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我ら第一世代が最終的に残すべき遺産であると付け加えた。

このように、この国の日本人がよくなれば、ともに生きる外国人にとっても良いことであると、仕える心を見せてくれた。

#### <インタビュー 54>

#### Dさん(50代・男性)「ここに根を下ろす」

2011年 8月10日、釜山出身

無職、日本暦16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 銀行の駐在員から独立 ◇

Dさんは釜山出身の3男1女の末っ子に生まれ、大学卒業後1994年に韓国の銀行に就職した。両親は朝鮮戦争の時、北から避難してきた。兄弟のなかでは兄1人が在米コリアンと結婚し現在アメリカに住んでいる。

日本には1996年、入社して13年勤めていた銀行の駐在員として来日した。日本勤務3年を終え、帰還社令がでたときに帰国しないで辞表を出して日本にとどまった。それから「苦難の道」が始まった。

韓国にいる家族は日本に残る決定について反対しなかった。内心帰ってほしかったかもしれない

が、人はそれぞれの人生を生きるものと応援してくれた。

#### ◇ 子育てのために日本に定住 ◇

日本勤務中の1997年、韓国が通貨金融危機に見舞われ、本社も人員を削減するなど韓国の状況が一変した。その年「ソウル大学英文学科卒業者の就職率ゼロ」という雑誌記事を偶然見つけ、子供の将来に不安を感じた。来日当時、小学校3年と6年だった子供が、大学に行き就職する10年後に韓国の状況が改善されるか心配だった。おそらくその頃は留学経験が必要になるなど、今よりもっと厳しい競争環境になると思った。子供二人を大学に行かせ留学もさせたりするにはサラリーマンの給料だけでは大変かもしれない。それなら今日本にいるのだから、家族と一緒に日本に残れば、子どもは留学していると同じではないかと思いたった。だが、そのためには現在の仕事をあきらめざるを得ない。悩んだ末に仕事を辞め家族と一緒に日本に留まる決心をした。仕事をやめないで一人だけ帰国する方法もあったが、自分がいないと当時小中学生だった子どもたちにビザの問題があり仕方なかった。

子供たちは来日当初から日本の学校に行かせた。韓国学校も選択できたが、当初は3年計画だったので、短い期間でも日本のことをしっかり経験させたかった。はじめは日本語もできず大変だったと思う。でも日本語も身につけ、友だちもできて楽しく生活した。とくに6年生の長男は韓国の競争的な学校生活を知っていたので、日本は韓国に比べて勉強の負担も軽く、中学生になってからは部活に没頭し、学校生活を楽しんだ。

#### ◇ 独立起業に失敗し社員に ◇

勤めていた銀行を退職した後、金融関係の経験を生かして独立した。日本は1990年代後半に為替関連の業務が自由化され、一般企業や個人が為替関係の仕事ができるようになりその関連の仕事で独立起業した。だが、思うように行かず結局失敗に終わった。その後、在日が経営するキムチ作りの会社に就職し、食材輸入関係の仕事を担当して6年半くらい務めた。今年2月にその会社を退職し、現在は食品輸入のノウハウを生かして韓国食品の輸入関係の新しいビジネスを始める準備をしている。

二人の息子は日本での学校生活を楽しんだ。韓

国に行けば塾通いに追われ、厳しい競争にさらされるのに、日本に残って部活にのめり込んでのびのび育った。長男は吹奏楽部でトランペットを始め、中高大学、大学院でも続け、今もやっている。次男は野球をやって、地方の野球名門校に留学もした。長男は法科大学院を出て去年司法試験に合格し現在司法研修生である。次男は二浪して大学に入って来年卒業予定で就職先は決まっている。

#### ◇ ニューカマーから「日本人」に ◇

昨年、日本に国籍を変えた。特別なきっかけがあった訳ではなく、韓国人として生活するのにビザが不便だったのもあったが、国籍変更にとくに拒否感がなかったことが一番だ。そして国籍変更にあわせて名前も変えた。「名前を変えた時は数日間眠れないほど悩んだ」。韓国人の名字をそのまま持っていて日本式に読むと元の発音ではなく、厳密に言うと自分の名前ではなくなる。それを考えると名字を持っていてもすでに「変質」されたものになる。「父の血が代々に残ることに何か良い事でもあるような漠然とした思いもあったが」、結局変えることにした。名字は韓国語読みでも響きがよさそうなものを選んで、下の名前は子供たちが作った。自分の名前は自分が決められないのが一般的で、そう考えると、自分の名前を自分が決める特別な経験をした。「人種は韓国人で国籍は日本人」と思えば簡単ではないかと思った。

#### ◇ ニューカマーに役に立ちたい ◇

これからも日本に住み続けるだろう。「日本に15、6年住んで、ここにある程度根を下ろしたのにそれを全部掘り出して韓国に行くのは難しい。韓国にはたまに親戚や友だちに会いに行く程度でしょう」。とくに子供たちは離れられない。学校も友だちも仕事もすべてここにある。これからは韓国にいる親戚や友だちが私たちが気軽に訪ねられるようにここにその基盤を作りたい。

子供たちも成長してから韓国を意識しているようだ。来日当初は学校で日本語を学んで、親が子供から日本語を学ぶ形で家庭でも日本語をたくさん使っていた。中高を経てほとんど日本語だったが、最近韓国語に変わりつつある。長男は小学校6年の時に来たので韓国語の基礎ができていたし、親とも韓国語で会話をするので難しい単語も理解できる。小学校3年で来日した次男は少し不安定だったが、最近韓国語を意識的に勉強しようとし

ている。昨年家族行事があって、みんなで韓国に行ったが、1週間で子供たち「韓国語が見違えるほど伸びた」と言っていた。「何もないように見える土に水をやると何かが出てくるように、彼らの中には韓国語の種が潜んでいて何か刺激を与えたら草木が成長すると同じように伸びた。彼らには小さい時に母語として身に付けた韓国語の種がある。日本に完全に適応した後に韓国を求めたといえようか、自分たちか韓国人として韓国語をもっとやりたい、または韓国にもっと関心を持つみたいな、韓国を失いたくない気持ちがあるようだ」。

日本に10数年住んでいるのでここに住んでいる韓国人と交流が多く、個人的なつながりもできた。そして10年前に、こちらである程度基盤を築いた韓国人が集まって、韓国人同士の交流を深め、日本社会で韓国人が何かできる事をやろうと「韓人会」を結成した。「韓人会」には設立当初からかわり、いまもボランティアとして活動している。

これからはニューカマーのために相談みたいなことをやりたい。日本に来る人は、日本の入試や就職、時には韓国の徴兵問題など、実に複雑な問題を抱えている。それなりの情報もあって、調べれば分かることだが、細かいことは知らないし、それもくるくる変わる。日本に長く住んで、子育てが終わって就職もした人は個人的にさまざまな経験をしてきたが、その経験が蓄積され、新しく来るニューカマーに伝わるシステムがない。「韓人会」が一部担うことができると思うが、まだできていない。入試や就職に韓国語がプラスになるのも知らない人は知らないし、韓国語を最大限活用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のような、簡単そうで難しい問題もある。

職案通りや新大久保の韓国人社会はこの地域の発展に貢献したと思う。ここで生活する以上、日本人が文化的に嫌がることは改善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行政が解決できない問題もある。自らやらないと結局は「自分の顔に唾を吐くよう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汚かったまちも「韓人会」の努力もあって、以前よりきれいになった。最近韓国レストランやお店に人が溢れ、狭い路地に長い行列ができたりして通行人に邪魔になることもある。理想的には横浜の中華街みたいになれば良いけど、現在は混在している。ともに分け合って暮らすことは良いことでしょう。韓国を通して日本人も楽しく幸せになり、韓国人は韓国で味わ

えない何かができれば、互いの人生が豊かになる。日本人がここに住んでいる韓国人を通して韓国のことに接しもっと楽しく良い生活になればと願う。「韓流」も結局は日本人が韓国のことを楽しんでいることではないか。初期に地元の日本人が嫌がったり嫉妬したりしたが、この地域の財産価値が上がり、ともに繁栄しているので、以前より好意的になっている。

<인터뷰 54>

**D씨 (50대・남성) 「이 곳에 뿌리를 내리고」**

2011년 8월10일, 부산 출신  
무직, 일본체류16년째  
인터뷰: 선원석

◇ 은행 주재원에서 독립 ◇

D씨는 부산출신의 3남1녀의 막내로 태어나, 대학 졸업후 1984년 한국의 은행에 취직했다. 부모님은 한국전쟁 때 북에서 피난해 오셨다. 형제 중 형 하나가 재미교포와 결혼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

일본에는 1996년, 입사해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던 은행의 주재원으로 왔다. 일본 근무 3년을 마치고 귀환 발령이 났을 때 귀국 안 하고 사표를 내고 일본에 남았다. 그 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 한국에 있는 가족은 일본에 남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내심 돌아오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라며 응원해 줬다.

◇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본에 정착 ◇

일본에 근무하던 1997년, 한국이 금융위기에 빠져, 본사도 인원삭감을 하는 등 한국의 상황이 돌변했다. 그 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생 취업률 제로” 라는 잡지 기사를 우연히 보고, 아이들 장래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인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할 10년 후에 한국 상황이 좋아질 지 걱정됐다. 아마도 그 때는 유학경험이 필요할 것 같았고,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에 해야할 것 같았다. 아이들 둘을 대학 보내고 유학도 시키기에는 셀러리맨 월급으로는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으니, 가족과 함께 일본에 남으면, 아이들은 유학하는 것과 같은 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려면 현재의 직

장을 포기해야 했다. 그래서 자신이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일본에 남기로 결심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귀국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자신이 남지 않으면 당시에는 초중학생인 아이들의 비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은 처음 일본에 와서 일본 학교를 보냈다. 한국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처음에는 3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에 대해 확실히 경험을 시키고 싶었다. 처음에는 일본어도 안 돼서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어도 익히고, 친구도 사겨서 재미있게 지냈다. 특히 6학년인 장남은 한국의 경쟁적인 학교생활을 알고 있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공부도 편하게 하고, 중학생 때는 부활동에 열중하면서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보냈다.

◇ 독립에 실패하고 회사원으로 취직 ◇

근무했던 은행을 퇴직하고 금융 관계의 경험을 살려서 독립했다. 일본에서 1990년대 후반에 외환업무가 자유화되어,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쪽 사업으로 창업했다. 그런데 생각 같이 안 되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나서 재일교포가 경영하는 김치 만드는 회사에 취직해서 식품 재료를 수입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6년간 일했다. 올해 2월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지금은 식품수입의 노하우를 살려서 한국 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두 아들은 일본의 학교생활을 즐겼다. 한국에 가면 학원에 시달리고 힘든 경쟁을 해야했기 때문에 일본에 남아서 부활동에 빠져 활발하게 잘 성장했다. 장남은 관현악부에서 트럼펫을 시작해, 중 고 대학 대학원까지 계속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차남은 야구를 해서 지방의 야구명문고에 유학했다. 장남은 법과대학원을 나와 작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사법연수원생이다. 차남은 삼수를 해서 대학에 입학해 내년엔 졸업할 예정이고 취직도 정해졌다.

◇ 뉴커머에서 ‘일본인’으로 ◇

작년에 일본으로 국적을 바꿨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인으로 생활하는데 비자 관계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국적변경에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던 게 제일 크다. 그리고 국적을 변경하면서 이름도 바꿨다. “이름을 바꿀 때는 며칠간 잠도 못자고 고민했다” 한국 성

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일본식으로 읽으면 원래 발음이 아니니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성을 유지한다고 해도 벌써 “변질” 된 것이다. “아버지의 피를 대대로 남기는 것이 뭔가 좋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은 바꾸기로 했다. 성은 한국식으로 읽어도 소리가 좋은 것으로 고르고, 이름은 아이들이 만들었다. 자기 이름은 자기가 안 짓는 것이 일반적인 걸 생각하면, 내 이름을 내가 정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사람은 한국인이고 국적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 뉴커머를 위해 뭔가 도움이 됐으면 ◇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살 것 같다. “일본에 15, 6년 살고, 이 곳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으니 이 걸 전부 뽑아서 한국에 가기는 어렵다. 한국에는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정도일 듯 싶다”. 특히 아이들은 떠나기가 어렵다. 학교도 친구도 일도 전부 여기 있다.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 곳에 기반을 만들고 싶다.

아이들도 성장해서 오히려 한국을 의식하는 듯 하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서 일본어를 배우는 형태로 집에서도 일본어를 많이 썼다. 중 고를 거치면서 거의 일본어를 썼는데 최근 한국어로 바뀌고 있다.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으니까 한국어 기초가 돼 있어서 부모하고 한국어로 대화할 때는 어려운 단어도 이해한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온 차남은 조금 불완전한데, 최근에 한국어를 의식적으로 공부하려고 한다. 작년에 가족행사가 있어서 가족이 같이 한국에 갔는데 일주일만에 아이들 “한국어가 몰라볼 정도로 늘었다”고 들 했다. “아무 것도 안 보이는 땅에 물을 주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 속에는 한국어의 씨가 잠복해 있다가 뭔가 자극을 주면 그게 싹을 내고 성장하는 것과도 같다.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 모국어로서 몸에 익힌 한국어의 씨앗이 있다”. 일본에 완전히 적응한 다음에 한국을 찾겠다고나 할까. 자기들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더 하고 싶다. 혹은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 한국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일본에 10수년 살면서 여기 사는 한국사람들

과 교류가 많아지고 개인적인 친분도 많아졌다. 그래서 10년전에 여기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한국사람들이 모여서 상호교류를 돈독히 하고 일본사회에서 한국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는 뜻에서 ‘한인회’를 결성했다. 한인회는 설립 초기부터 관여를 했고,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뉴커머를 위해 상담 같은 것을 하고 싶다. 일본에 온 사람들은 일본의 입시나 취직,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병역문제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 정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알 수 있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고, 그 자체도 자주 변한다. 일본에 오래 살면서 애들도 다 키우고 취직도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경험을 해 왔으나, 그 경험을 축적하고 새롭게 온 뉴커머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없다. 한인회가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다. 입시나 취직에 한국어가 도움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와 같은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다.

쇼쿠안 도오리나 신오오쿠보의 한국인 사회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생활하는 이상, 일본인이 문화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은 개선해야 한다. 행정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된다. 더러웠던 거리도 한인회의 노력도 있고 해서 전보다 깨끗해졌다. 최근에는 한국 식당이나 가게에 손님이 많아, 좁은 골목에 긴 행렬이 생겨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요코하마의 주카가이 같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혼재되어 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한국을 통해서 일본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해지고,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맛 볼 수 없는 뭔가가 가능하다면 서로의 인생이 풍부해진다. 일본인은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을 통해 한국을 접해서 더 즐겁고, 생활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 ‘한류’도 결국은 일본사람이 한국을 즐기는 것 아닌가. 초기에 지역의 일본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했지만,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번영하고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호의적이다.

### H씨 (20대 중반·여성)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본에서의 취업」

2011년 8월 17일, 경기도 수원 출신  
회사원, 일본체재 6년  
인터뷰: 이해미

H씨는 1986년, 경기도 수원 출신이다. 현재 24살인 H씨는 19살 때 홀로 일본에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했다. 일본계 통신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H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어머니의 권유로 오게 된 일본 유학 ◇

H씨는 1남 2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의 대가족과 함께 살아 온 H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장래에는 미술 관련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대에 가기 위해 계속 준비를 해 왔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H씨의 어머니께서는 자립심이 없고 겁이 많았던 H씨에게 재수보다는 외국으로의 유학을 권유하셨다. 하지만, 미대에서 꼭 당시의 꿈을 이루고 싶었던 H씨는 한국에서 재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재능도 없는 것 뻔히 아는데, 고생 그만하고 여기보다 넓은 세상에 나가서 혼자서 살아 봐라」라는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2005년, H씨는 나가노현에 살고 있던 친척 집에서 신세지면서 2년간 어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했다. 외가쪽의 친척인 오바상은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일본에 왔고, 자녀가 없어서 H씨를 딸처럼 귀엽게 아껴주셨다. 하지만, 익숙치 않은 다른 나라에서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들과 시작된 새로운 생활은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 친척 오바상께서 일본분과 결혼해서 살고 계셨고, 일본에 20년 가까이 살아 오신 분이래... 일본의 문화와 생활이 익숙치 않았던 저에게는 너무 힘든 생활이었어요.」라며 그 당시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시 미대를 준비해 볼까 하는 꿈을 가져 보기도 했지만, 「미대에 가겠다고 하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없

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 꿈은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 ◇ 대학 생활과 취업, 그리고 신입사원이 되기까지 ◇

H씨는 일본의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국제학부에서 개발도상국에 관한 공부를 했다. 그리고 4학년 때 다른 일본인 친구들과 같이 취업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11년 1월에 내정을 받아 4월부터 근무 중이다.

대학생이 되고 부터는 독립해서 혼자 생활을 해왔다. 어머니가 독립심이 없고 겁이 많아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처음 하는 독립 생활은 많이 무서웠다. 「말이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자주 벽보고 이야기하곤 했어요.」라며, 많이 외로웠지만 오랜 시간 혼자서 지내오니,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한다.

대학 졸업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생각도 있었지만, 일본어 공부도 부족한 것 같았고, 아직은 한국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본으로의 취업」이라며, 이 곳에서 조금 더 경력을 쌓고 싶었다고 한다. 「대학교를 막상 졸업하려니, 부족한 실력도 느껴졌고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라며 일본에서의 취업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학생으로만 있던 자신이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한 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 모두 함께 지내길 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H씨를 믿고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셨다고 한다.

대학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취업 활동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같이 취업을 준비하던 한국 친구들과 중에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도 많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취업 활동을 한 결과, 2011년 1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내정을 받게 되었고 열심히 사회 생활을 해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3월 11일 지진 이후, 잠시 한국에 돌아갔던 H씨의 부모님은 딸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 반대하셨다. H씨도 한국에서 보도되고 있던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조금 불안을 느꼈지만, 힘들게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해서 내정을 받은 만큼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부모님께 전했고, 부모님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 왔던 H씨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다고 한다.

2011년 4월부터, H씨가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계 통신회사이다. 핸드폰과 와이파와 같은 데이터 통신 기기를 렌탈하는 회사이며, 직원은 200명 정도 이다. H씨 이외에도 한국인, 재일교포, 중국인, 조선족, 프랑스인 등 각국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라고 한다. 일본 통신 렌탈 업계에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서 H씨는 국제업무팀에서 한국과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간의 영업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회사에서의 모든 업무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회사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매일 선배들에게 혼나면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회사에의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일에 익숙하지도 않고 남들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때문에 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출근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일본어의 부족함도 절실히 느꼈고, 한국과 영업을 하면서 한국어도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 거든요.」 라면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던 신입사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인지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이 회사의 일을 배우면서 자신이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확실하게 일을 배우고 사회를 배워 나가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통신 업계이다 보니 정보가 빨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 친구들보다 일본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는 H씨는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가면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제 친구들도 모두 사회생활을 하니깐 만날 사람도 없고요. 가족들과도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오히려 불편해져요. 지하철이나 버스도 잘 모르겠고, 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라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낯설고 어색하다고

했다. 일본은 자신이 힘들게 만들어 온 생활 터전인 만큼 더 애착이 가고 한국 보다 집같이 느껴 안심하게 된다고 한다.

#### ◇ 일본에서의 생활 ◇

일본에서의 생활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인보다 조금 더 차분한 일본인들과 지내는 게 더 편안하다.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삶이 힘들지만,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떠나 한국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반면에, 일본이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많이 좋아졌다 라고는 들어 왔지만, 아직은 이곳에서 외국인은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보증인을 구하는 어려움과 여러 행정 절차의 어려움 등은 때론 버겁게 느껴졌다.

#### ◇ 신주쿠·신오오쿠보 ◇

H씨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주 신오오쿠보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인인 직장 동료들이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며 자주 안내를 부탁해 가끔 식사를 하러 가고는 있지만,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가장 한국같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지저분한 거리와 정돈되지 않은 느낌때문에 가끔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예전에 비해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한국 음식 점들이 늘어남으로써 주위의 일본인 친구들에게 함께 신오오쿠보에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되어 새삼, 신오오쿠보가 일본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점차 조금씩 친근감을 느끼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오오쿠보의 분위기가 한류 붐의 일환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다며 작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신오오쿠보를 보고, 신오오쿠보에 찾아가는 일본인들에게는 그 곳이 한국의 전부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오오쿠보는 한류와 음식점에만 치우쳐서 분위기가 너무 상업적으로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일본인들이 신오오쿠보에 가되면, 한국 문화를 알 수 있고 한국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인에게, 신오오쿠보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장소로만 존재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점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조언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가능한 장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 ◇ 앞으로의 계획 ◇

회사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확실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일본에서 사회 경험을 쌓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일본에서 쌓은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니, 일본어보다는 영어의 중요성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경험도 해 보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해 보고 싶다. 미국이나 다른 영어권 국가에 가게 된다면, 영어 공부와 함께 인재 개발에 관한 공부를 다시 해 보고 싶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 실현성이 가장 낮은 꿈이라고 생각한다.

#### ◇ 인터뷰를 통해서 ◇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H씨 이외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싶다고 한다. 사회생활에 익숙치 않고 회사생활에도 모든게 서툰 신입 사원으로 지내고 있지만, 다른 한국인들이 어떻게 일본에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살아 왔는지 또 어떤 꿈을 안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

#### <인터뷰어 55>

#### Hさん(20代中盤・女性)「韓国に帰るための日本での就職」

2011年8月17日、京畿道水原出身、会社員  
滞在歴6年  
インタビューア: 李 惠美

Hさんは1986年生まれ、京畿道水原出身であ

る。現在24歳のHさんは、19歳のとき、一人で日本に留学に来て大学卒業後就職した。日本の通信会社に新入社員として堂々と社会生活を始めたHさんを紹介したい。

#### ◇ お母さんの薦めで日本に留学 ◇

Hさんは、1男2女の長女として生まれた。小さいときからお爺さん、お婆さん、お父さん、お母さん、兄弟の大家族といっしょに暮らしてきたHさんは、子供のときから絵を描くのが好きで、将来には美術関連の仕事をするのが夢であった。高校までは美術大学に行くために勉強してきたが、大学入試に失敗して、お母さんの薦めで日本への留学を決心することになったそうだ。Hさんのお母さんは、自立心が足りず臆病だったHさんに、浪人するより外国への留学を薦めた。美術大学で夢を実現したかったHさんは韓国で浪人したいと粘ったが、お母さんの「才能がないのは認めて、より広い世界で一人で新しい可能性を試して」という説得に、結局留学を決めることになった。

2005年、Hさんは長野県に住む親戚の所にお世話になって2年間日本語学校に通った。母方の親戚であるお婆さんは、日本人と結婚していたが、子供がなく、Hさんを娘のように可愛がってくれた。しかし、慣れない異国で、親戚とはいえ親しくない人と暮らすことはかなりつらい経験だった。「そのお婆さんは、日本人と結婚して20年近く日本で暮らしている人だから...。日本の文化と生活に不慣れだった私には毎日がつらい日々でした」と、当時のことを語ってくれた。

大学入試を準備しているとき、また美術大学にトライしてみたい気持ちも残っていたが、「美術大学に行くなら、学費と生活費を支援できない」という親の反対で結局その夢は諦めることになった。今はその決断に導いてくれた親に感謝しているという。

#### ◇ 大学生生活と就職、新入社員になるまで ◇

Hさんは日本のある私立大学に入った。大学では国際学部で開発途上国について勉強した。4年生のとき、他の日本人の同期といっしょに就職準備にとりかかり、今の会社に合格して働いている。今の会社は2011年1月に内定をもらって、4月から働き始めた。

大学生になってからは一人暮らしをしてきた。

お母さんが、独立心がなく、臆病だから心配していたように、初めての一人暮らしは寂しかった。「口数が少ない方だけど、家で壁に向かって独り言をしたりした」と当時を振り返るが、今は一人暮らしが長くなって慣れてきたという。

卒業を前に、韓国に帰って就職することも考えたが、日本語の勉強も足りないと感じ、まだ韓国に帰ることは時期尚早だと思った。「韓国に帰るための日本での就職かな」と言い、日本でもう少し経験を積んでみたいという。「大学を卒業する直前になって、自分の実力の足りなさを自覚して、日本で大学を出たということだけでは韓国で就職活動に成功する自信がなかった」と、日本で就職することを決めた理由を説明してくれた。また、今までずっと学生だった自分にどんな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も、自分を試してみたいともいった。お父さんは韓国に戻って家族みんなと暮らすことを希望したが、お母さんは最後までHさんを信じて支援してくれたそうだ。

4年生から始めた就職活動は思ったほど簡単ではなかった。いっしょに就職を準備していた韓国人の同期のなかには、日本での就職を諦めて韓国に帰った人も多かった。最後まで諦めないでベストを尽くして就職活動を続けた結果、2011年1月、今働いている会社から内定をもらうことができたので、一所懸命社会生活をしてみたいという。

3月11日の震災後韓国に里帰りしていたHさんの親は、愛娘が地震と放射能の心配が残る日本に戻ることに反対した。Hさんも韓国で報道されていたニュースや新聞を見て、日本に戻ることに対して少し不安を感じていたが、つらい就職活動でもらった内定を簡単に諦めたくなかった。その意思を親に伝えて、親も、これまで苦労して頑張ってきたHさんを理解して応援してくれたそうだ。

2011年4月からHさんが新入社員として働いている会社は日本の通信会社である。携帯とWiFi等のデータ通信機器をレンタルする会社で、社員は200名程度である。Hさん以外にも、韓国人、在日韓国人、中国人、朝鮮族、フランス人等、外国人が多く働いているそうだ。この会社でHさんは、国際業務チームで韓国との営業を担当している。韓国企業との取引では韓国語を使うが、会社ではすべて日本語で話す。

まだ業務に不慣れで毎日先輩たちに怒られながら仕事を学んでいる。幸い会社の雰囲気はそれほど

ど固くないため明るい環境のなかで仕事ができているが、まだ熟練度が低く業務処理が人より遅いため、周りに迷惑をかけているというストレスを感じるという。「働き始めの頃はよく泣きました。日本語が足りないことを切実に感じたし、韓国と営業をしていて、母国語の韓国語もまともに使えていないことを感じたからです」と、社会生活したての新入社員としての苦労を語った。

Hさんは、今の会社の仕事が自分の適性に合っているかについてはまだ確信は持っていないが、この会社で仕事を通して自分が成長していることを感じているという。そのため、今後3年程度は今の会社で社会人としての基礎をはっきり学んで社会も勉強していきたいという。しかし、変化の激しい通信業界のため、早い情報収集能力が必要だが、まだわからないことが多すぎて心配のようだ。

韓国人の友達より日本人の友達が多いというHさんは、今は韓国に行くとは不便を感じる人が多いそうだ。「もう友達も社会人になっているからなかなか会えないし、家族とも離れていた時間が長いせいか、いっしょにいてもすぐ気まづくなります。地下鉄やバスの路線も疎くなって、道もよくわからなくなりました」と、韓国の生活がむしろ不便で不慣れに感じることもあるという。日本は自分が苦労して作ってきた生活の場だからこそなのか、愛着が持てて、韓国の実家より日本の方が自分の家に思われて安心感があるという。

## ◇ 日本での生活 ◇

日本での生活は心理的に安心感を覚える。長いこと一人暮らしをしていて感じる寂しさは仕方ないが、韓国人より落ち着いている日本人といえると楽に感じる人が多い。韓国ではプライバシーを保つことが難しいけど、日本ではプライバシーを確保できると思うから、それを考えると日本を離れて韓国に戻ることが少し怖くなったりするという。

反面、日本には外国人も多く待遇もよくなったと聞いているが、まだここは外国に違いないし自分は外国人だと思わされることも多いという。新しいアパートを探すとき保証人を見つける苦労と様々な行政手続きがその一例だそうだ。

## ◇ 新宿・新大久保 ◇

Hさんは、社会人になってから職場の同僚とよ

く新大久保に行くようになったという。日本人の同僚が韓国料理が食べたいと、よく案内を頼まれるので、たまにいっしょに行っているが、正直あまり行きたくないという。日本で最も韓国的なところと言われるが、汚い街と整頓されていないイメージが強く、目に余るときがあるそうだ。

以前に比べて日本人の往来が増えて、韓国料理屋が多くなって周りの日本人に、いっしょに行きたいまたは紹介してほしいと誘われると、新大久保が日本人にも気軽に行ける場所になったなど思い、少しずつ親近感がわいてきているようだ。しかし、新大久保の雰囲気、韓流ブームだけに偏っているようで残念と思うことがあるという。「新大久保を訪れる日本人には、新大久保は韓国の代わりかも知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しかし、新大久保は韓流とレストランだけで商業的すぎています。それよりは、新大久保に行けば、韓国の文化と歴史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です」。

また Hさんは、新大久保が、日本で暮らす韓国人になくってはならない場所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料理を食べ、酒を飲むだけの空間ではなく、韓国人同士のライフを共有できる空間になってほしいという。外国で外国人として暮らす悩みを共有して、お互い助言しあえるコミュニティとして発展してほしいそうだ。

#### ◇ これからの計画 ◇

社会人になって日が浅いためまだ未来の計画と言えるものは持っていないが、これから3年か5年程度日本で経験を身につけてから韓国に戻りたいと考えているという。家族といっしょに暮らしたいし、日本で培った社会経験をもとに韓国で再チャレンジしてみたいという。

一方、韓国でも日本でもない英語圏の国で再度英語の勉強にトライしてみたいという希望もある。社会人になってみたら、日本語よりは英語の方が重要度が高いことがわかったし、もっと広いところで新しい経験を積んで、いろんなところを旅してみたいという。アメリカか他の英語圏の国に行くことができれば、英語といっしょに人材開発について勉強してみたいが、親が反対すること間違いないなからあまり期待していないそうだ。

#### ◇ インタビューを終えて ◇

今回の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Hさん以外に日

本に住んでいる韓国人たちの暮らしについて知りたくなったという。まだ社会生活に慣れていない新入社員ではあるが、他の人たちが、どん背景で日本に来て、どんな過程を経て暮らしているのか、またどんな夢を抱いているのか知りたくなったという。

#### <インタビュー 56>

#### KIMさん(40代・女性)「キャリアアップと子連れ留学」

2011年8月20日、ヨングワン出身  
韓国でフルタイム勤務、日本滞在歴2年1ヶ月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幸世

#### ◇ 今回の日本来日までの略歴 ◇

KIMさんは大学卒業後、銀行に就職。2年後に転職をし、以来、二番目の職場でフルタイム勤務をしている。高校までは出身地に、大学生になってからはソウルに住んでいる。国外には、仕事や家族旅行などで日本を含めこれまで6カ国以上の国を訪れたことがある。20代後半で結婚をしたが、結婚後も仕事は辞めずにフルタイムの仕事と子育てを両立させてきた。

KIMさんの職場には留学制度があり、それを利用して2003年に子どもを連れて2年間、日本に子連れ留学をした。自らは日本の大学院博士前期課程で学び、子どもは新宿区の公立小学校に入った。KIMさんは自分自身のキャリアアップと子どもの外国生活を支える親という二足のわらじをはき、忙しい留学生生活を過ごした。現在は、仕事のため再来日し、短期間、単独で日本に滞在をしている。

#### ◇ 日本へ留学を決めた理由 ◇

KIMさんは、高校時代に第一外国語は英語、第二外国語は日本語の勉強をした。そのときは基礎がわかると思うまでに到達した実感はある。しかし、経営学を専攻とした大学では、第一外国語は英語、第二外国語はフランス語を取ることにした。

高校で勉強をした日本語だったが、20年後、職場の海外派遣の制度を使っての留学を考えたときに留学先として日本を選ぶ大きなきっかけとなった。実際に日本留学を決め、来日前の一年間は日本語の勉強をしておし、日本語能力試験1級に合格をした。20年ぶりの日本語学習は、子育てと仕

事に加えての勉強だったので大変だった。

日本を留学先に選んだのは、自分にとって強みになる留学先は何だろうと考えた結果だったという。一つには、職場の同僚が 100 人いたら 99 人位が英語圏への留学を希望するのを見て、英語はたいていの場合、「ほとんどの人が少しはできるから、その点、やっぱり日本語を選んだのはよかった」という。

高校の時に進学をどうしようか考えたときには、自分ではぼんやりと教師になりたいと思ったものの、父親がこの学校がいいと進めてくれたときにそれもいいかなと思ってあまり深く考えずに進学をした。その点、20 年後の日本への留学は、留学先として日本を選んだのも、専攻を政治学にしたのも、自分が勉強をしてみたいという点で選択した。「韓国人は、たいてい国際政治に対して関心があります。それなので普通の人でも国際政治には結構詳しいんですよ。新聞にも国際面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私の仕事も国際関係を読みこなす必要があるし、その分野を勉強したいと思って」選んだという。

#### ◇ 自分の留学生活 ◇

実際に日本に来てまず驚いたことは、自分が勉強をしようと思った政治学関係の話題に、日本人の普通の人たちはあまり関心がないことだった。

大学院が始まると、一年目の授業は「ずっと黙っていた」。指導教官に韓国人の教授を紹介してもらったので韓国語で指導を受けられる機会もあった。しかし、2 年目にその韓国人の先生が研究調査のために国外に行ってしまったので、日本人の指導教官に変更になった。実際に指導教官が変更になった 2 年目の方が充実していたと今では考える。来日前の勉強の頃から、読むことに関しては問題がなく、論文もちゃんと書きたいという意志を持っていたので、やはり、日本人の先生から指導をしてもらえてよかったという。KIM さんは、「専門的なことを日本語で勉強するのは面白かったんです。なんか、論文とかそのような本を読むのがすごく面白かったんですよ。」

実際、論文を書くことはそれほど苦ではなかったものの、論文のテーマを決め、どんな論文を書くかを決めるまでが辛かったという。修士課程の間、KIM さんは、ほぼ毎日国立図書館に通い、論文だけはいいものを書きたいと必死で勉強をした。その結果、修士論文に関しては、先生からいい評

価をもらえ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博士後期までは進みたいとは考えていない。それは、仕事に戻ることが前提なので、博士号を取るのはむずかしいと考えている。修士号を取ったことには、「十分満足まで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ある程度は、よかったと思って、帰国後、仕事もやっぱり日本に関わる仕事だったので、仕事に役に立ったと実感できました。」

#### ◇ 子どもの留学生活 ◇

子どもは新宿区の公立小学校に入学した。学校は一学年にクラスといった少人数で、静かで落ち着いた雰囲気が入っていた。その学校にはフランス、インドのほかいろいろな国の子どもがいたが、韓国人は少なかった。子どもは入学時に全く日本語が話せなかったので、教頭先生と面接をし、新宿区からの派遣で韓国母語話者の先生が初めの 40 時間くらい子どもについてくれた。これは親として本当にありがたかった。

学校とのやり取りは、担任の先生が連絡帳でこまごまと、今日何のご飯をちゃんと食べたとか、授業では何をしたとか、詳しく書いてくれた。KIM さんは連絡帳で子どもの様子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てありがたかった反面、毎日、連絡帳の返事を書か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は苦痛になったという。来日初期には、KIM さんは読むことはできても、どうやって日本人の先生に挨拶をするのか、どう返事をするのか、まだ日本語で十分自分の気持ちを書くことがむずかしいと悩んだ。

日本の小学校の先生は「韓国の先生より、本当に、子どもに対して関心があるというか、気を使うというか、そんな感じを持ちました。」1 年後、子どもは、自分よりも会話が上手になり、子どもが身につけた発音を聞き、自分の子どもが友だちと日本語でけんかをするのを見て、「先進国は違うなあ」という強い印象が残った。日本語が話せない子どもたちが学校になじむために国家が予算を出すとはすごいことだと感じた。

また、児童館の存在にも感謝しているという。「子どもが韓国では、小学生だとしてもたいてい学院(塾)とか習い事にいきます。もちろん日本もそうなんですけど、あんまり子ども同士で遊んだりする時間もないし、いろいろできないんです。でも、日本には児童館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児童館でたいてい、子どもたちがちゃんと集まって、それから(児童館職員の先生が)いろいろ教えてく

ださったりして。児童館では、一輪車とか、子どもが初めて挑戦した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よ。」水泳や自転車も日本で初めてできるようになり、子どもとは今でも小学校時代の2年間を日本で過ごしたことは楽しかったと話している。

### ◇ 二度目の日本滞在 ◇

自分は日本の大学院の修士号を取得し、子どもは日本の小学校で2年間を過ごしたわけだが、帰国後、職場に復帰してからは、残業が続く元の日常生活に戻った。

6年後、職務に関わる調査のために、2011年の7月に二度目の日本滞りが決まった。決まった後に、2011年3月11日の東北大地震が起きた。地震の当日は、テレビで津波が襲う様子をみてとても衝撃的だった。日本に住んだことのある自分だけではなく、この自然災害を前には、これまで歴史認識の問題のことなどで日本にあまり好意的ではなかった周りの人たちさえ今回の被災を見て「日本は大変だ」と心の底から心配をしていた。

地震の前に来日が決まっていたので、職場の直接の上司は「行かない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ずっとキャンセルを勧めてくれたが、KIMさんは、来日予定の7月には落ち着くだろうと考えていたので来日の話を進めていった。

冷静に考えると、KIMさんは、昔から地震があったからこそ、日本が世界に対して今のような貢献ができる国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持ちがある。日本が地震を怖れていたら今の日本はなかったはずなので、これからまた復興をしたら、それを見て韓国も他の国も変わると思う。なので、地震は怖いけれど、日本に対して地震は一つの踏み石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

前回は、子どもたちと日本の生活を楽しむことを考えて、日本人が多く住んでいる地域に住んだが、今回の滞在は、今後の災害の可能性の対策として、韓国人の人が多く、韓国語での情報も多い大久保にアパートを借りた。「やっぱり、韓国人が多いから言葉も通じるし、本当に衝撃的なことがおきたら安心じゃないですか。大久保を選んだのはその理由が大きいですね。」KIMさんが考えた災害への対処法の一つは、母語の韓国語が通じて、韓国人の多い大久保に住むということであった。

<인터뷰 57>

### CH씨 (20대 중반·여성) 「어느 곳보다 나에게 잘 맞는 일본 생활」

2011년 8월 22일, 서울 출신 대학원생, 일본체재 2년 반 인터뷰: 이혜미

CH씨는 1987년생으로 서울출신이다. 2009년 4월부터 일본의 국립대학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동경의 한 한국어 교실에서 매주 1-2회 정도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H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일본으로의 유학 ◇

CH씨가 일본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인 아라시의 팬이 되면서 부터이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부터 우연히 아라시를 알게 되었고, 굉장한 팬이 되었다고 한다. 아라시의 팬이 되고 부터는 자연스럽게 일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일본어 공부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법학과에 입학했던 CH씨는 입학 후에 법학과와 일본어학과의 복수 전공을 선택했다. 아라시의 팬이 되었던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작해 보니 재미있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 보고 싶었다. 대학 1년 여름방학부터, 일본 여행을 자주 해왔던 CH씨는 일본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일본의 생활과 잘 맞는다고 느꼈다고 한다. 「일본의 친절함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차분하다는 느낌때문에 일본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어 이외에 중국어 공부도 해오던 CH씨는, 운 좋게 대학 1학년 때는 중국으로 6개월 동안 교환학생도 다녀 온 경험이 있다고 한다. 6개월 동안의 중국에서의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입에 잘 맞지 않는 음식이었어요.」라며, 한국과 일본의 요리에 비해 중국의 요리는 향이 강하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했다. 반면, 일본 음식 중에 아직 낫또나 우메보시같은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많은 일본 음식은 대체로 다 좋아하는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 유학을 꿈꿔오던 CH씨는 중국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부터는 일본으로의 유학을 더욱 확고하게 결정했다. 일본어만큼 중국어 공부는 재미있지도 않았고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학생 후에도 중

국어 실력은 많이 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보다는 일본이 자신에게는 더 맞는 나라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님께서도 당시 외동딸이었던 CH씨의 유학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꿈을 크게 가지고 살아라」라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 또한 CH씨의 유학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대학3학년을 마친 뒤, 조기 졸업을 하게 된 CH씨는 출신 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연구생으로 왔다. 연구생 때는 대학원 입시 준비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지만, 다행히 입학 후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은 석사 과정 2학년생으로 석사 논문을 쓰면서 같은 대학원의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박사과정에 합격해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다면 앞으로 최소한 3-5년 정도는 일본에 더 남아 있어야 하겠죠。」라며, 박사과정을 마친 후에도 가능 하다면 일본에 남아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현재, CH씨의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으며, 처음에는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부모님도 지금은 CH씨의 남자친구를 좋아하신다. CH씨의 남자친구는 동경에 있는 한 기업에 내정을 받아 2012년 4월부터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자친구 역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CH씨의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부모님 모두, 두 사람의 계획을 믿고 지지해 주고 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몇 년 하고 중국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설득을 해왔죠. 지난 봄방학 동안 서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중국에 돌아오는 것보다 둘이 결혼해서 함께 일본에서 사는 게 어떠냐고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라며, 행복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 ◇ 일본에서의 생활 ◇

일본의 차분하고 조용한 생활은 편리함이 더 많고, 본인에게 잘 맞다고 생각한다. 한국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너무 빠르고 험한 운전 때문에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데 비해

일본 버스 기사들은 안전 운전을 하는 편이라며, 정류장 앞에서 버스가 정지를 해야만 승객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본 버스의 습관은 한국과는 많은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한국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해서 정지하기 전에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문 앞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한국의 습관은 너무 위험한 것같다면, 「한국에서, 일본처럼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면 운전수가 화를 내요。」 생활 일부분에서 느껴지는 한일간의 차이를 얘기했다.

반면에, 한국보다 느린 일본의 행정 처리가 불편하다. 모든 일을 꼼꼼히 처리하는 일본인들의 습관은 본받을 만하지만, 가끔은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조금 답답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상냥한 것같지만 조금 차가운 듯한 면을 얘기하며, 「한국인들은 쉽게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고, 가까워져도 가끔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라고, 유학생으로서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 신주쿠·신오오쿠보 ◇

아르바이트로 2명의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CH씨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신주쿠·신오오쿠보에 간다. 한국어 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의 희망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먹기 위해 가는 것이다.

2005년 처음 일본에 여행을 왔을 때도, 신오오쿠보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머물렀다. 그 당시, 신오오쿠보는 단지 조용한 일본 주택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의 조용한 주택가에 한국어 간판이 많구나」라며, 일본의 다른 곳들 보다 한국어 간판이 많이 보였지만, 요즘처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느끼는 신오오쿠보는 상업적인 요소만 존재하고 문화적인 요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같다. 예전에 느끼던 조용한 마을의 이미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같다고 한다.

학생으로서 신오오쿠보 한국 식당 음식의 가격은 많이 부담스러운 편이다. 함께 신오오쿠보에 가는 일본인들이 떡볶이와 삼겹살을 좋아해 자주 먹으러 가고 있지만, 항상 「아,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의 질이 비슷한 가격의 다른 일본 식당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돌아온다.

한류 덕분에 본인도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한류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신오오쿠보의 거리 문화 자체가 한류 스타 위주로만 바뀌어 가는 것은 일본인에게도 상업적인 이미지로만 비치는 것같아 걱정이 된다. 신오오쿠보는 단지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요코하마의 차이나 타운은 일본에서 중국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로,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라고 알고 있다. 것처럼 신오오쿠보도 일본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지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한류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인사동과 같이,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소품을 파는 가게, 그리고 거리의 작은 한국 전통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신오오쿠보도 일본에서 좋은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인터뷰 58>

#### J씨 (30대 후반·남성) 「일본에서 시작한 사회생활, 이제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2011년 8월 24일, 전라도 광주 출신 회사원, 일본체재 14년  
인터뷰: 이해미

J씨는 1973년생으로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J씨는 부인 그리고 두 아이들과 함께 치바현에 거주중이며, 일본에서는 14년째 생활 중이다. 현재 스웨덴계의 전자통신설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인 J씨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일본에서의 어학연수 ◇

J씨는 91학번으로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학의 전자공학과에 재학중이었다. 제대 후, 대학 3학년 말에 한국의 대기업인 H전자에 내정을 받았던 J씨는 그대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보다는 잠시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당시 주위의 모든 친구들이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를 선택했던 반면, J씨는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았던 일본으로의 어학연수를 선택했다. 3개월의 짧은 어학연수였지만, 처음으로

해보게 된 외국 생활이었다. 「어학연수를 가는 거니까 일본어도 잘 못해서... 일본에 가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 왔어요.」라며, 여러 가지 걱정때문에 쌀과 반찬 등 최소한 한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료품까지 챙겨왔다고 얘기했다.

당시 어학원의 기숙사에 살고 있었던 J씨는 일본의 오래된 목조건물인 기숙사 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지내면서 느끼게 된 일본에서의 생활은, 언젠가 다시 와서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 ◇ 일본에서 시작된 사회생활 ◇

어학연수 후, 한국에서 대학 4년을 보내면서, J씨는 다시 돌아가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일본으로의 취업을 준비했다. 일본으로의 취직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다. 전공을 살려, 일본의 중소기업에 취직이 결정되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중소 설비 업체로서 직원은 10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J씨는 한국에서 대기업의 취직을 포기하고 일본에서의 사회생활을 선택했다.

J씨는 99년도에 일본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J씨는 2년 동안 근무한 뒤, 다른 일본계의 전자 회사에 전직했다. 「당시 입사 동기 중에 한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몇 개월 함께 일을 하다가 다른 외국계 회사로 옮겼어요. 그 사람을 보고 조금 자극을 받기도 했지만, 조금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2번째 회사에서도 1년 정도 일한 뒤, 다시 전직을 하게 된 J씨는 한국계 대기업의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국의 모바일 통신사업자 계열이었던 3번째의 회사는 국제전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국제로밍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였다. 그 곳에서 5년간 일한 뒤, 다시 전직을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스웨덴계의 회사로 전자통신 설비회사이다. 일본 자회사의 직원은 2000명 정도이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은 5만-6만 정도 된다.

J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데이터 통신의 전반적인 설비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J씨는 이 회사에서 비상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11일 대지진 직후



에는 몇주 동안 집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비상 업무를 해야만 했다.

#### ◇ 가족과 자녀교육 ◇

현재, 부인 그리고 두 아이들과 함께 치바현에 거주중인 J씨는 2년 전에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아 일본에 재류중이다. 부인과 2000년, J씨가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인터넷을 통해 만났고, 부인도 일본으로 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2002년 결혼을 했고, 현재는 6살의 아들과 5살의 딸이 있다. 아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이 제일 걱정이다. 아이들에게도 한국어가 모국어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한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해도, 읽고 쓰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부모의 노력 만으로는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 집에서 가족들간의 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물어봐도 일본어로 대답을 하거나, 모든 대화를 일본어로 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주말마다 신주쿠에서 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이나 한글 교실들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라면서,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교육하는 부모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큰 아이와, 내후년에 입학해야 하는 작은 아이 모두 동경한국학교에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주위에서 동경한국학교에 대한 좋지 않는 평도 많이 듣고 있지만,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과 높은 교육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인 학교에 비해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경한국학교에 보낼 것을 결정했다. 지금은 치바현에서 3년 전에 구입한 맨션에 살고 있는 J씨는 「아이들을 동경한국학교에 보내려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신주쿠의 동경한국학교 근처는 피하고 싶어요.」 라면서,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곳은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재원 가정이 모여 살고 있는 동경한국학교 주변은 가급적 피해서 이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중고등학교는 동경 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보내거나 영어권 국가로 유

학을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 ◇ 신주쿠·신오오쿠보 ◇

신오오쿠보에는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정도 가고 있다. 항상 친구들과의 술모임으로 신오오쿠보에 가지만, 신오오쿠보는 언제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이다. 눈앞에 보이는 한국 간판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이 찾아주는 곳이기엔 언제나 친근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97년도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어가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미용실에 가기 위해 신오오쿠보를 찾았다. 그때도 신오오쿠보에는 한국 식당들, 조그마한 한국인 병원, 한국인 미용실, 그리고 한국 식품점들...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적은 수 였지만,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것들은 갖추고 있는 장소였다.

2002년 부터, 한국계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인들과의 모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신오오쿠보를 찾기 시작했다. 2002년과 지금의 신오오쿠보는 많은 변화는 없지만, 지금의 신오오쿠보는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졌다. 갑작스럽게 생긴 큰 변화는 없지만, 매번 새롭게 조금씩 변해가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신오오쿠보에 대해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놀자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요코하마의 차이나 타운은, 먹는 것 이외에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곳인데 반해, 신오오쿠는 코리아 타운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다. 신오오쿠보를 오고가는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차이나 타운 하면 요코하마, 코리아타운 하면 고기집, 막걸리, 먹는 것, 먹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게 아닌가 싫어요.」 라며, 장사를 위해 팔아야만 하는 문화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문화를 조금 더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려 주었다.

지금은 먹고 즐기는 것이 신오오쿠보 문화의 주류가 되어 있지만, 신오오쿠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일본정부에서 신오오쿠보를 코리아 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시설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 ◇ 일본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 ◇

14년 전, 일본에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일본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받는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 예전에는 한국인이라고 먼저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물론 아직도 행정적으로 조금의 불편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본이라는 사회는 한국과는 달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적고, 일본인과 비교적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생활에 큰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본에 생활하면서 다른 일본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물론 외국인의 한표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겠지만, 일본이란 나라와 개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크고 퇴직을 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의 국가로 가기를 희망한다. 일본에 남아 있고 싶거나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동남아시아쪽의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국가에서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인터뷰 59>

**P씨 (40대·남성) 「일본의 기업정신에 반해서 일본에 오게되고, 현재는 한일 관광교류업을 하며, 좀더 깊은 문화 교류를 기획하는 사업가로」**

2010년8월25일, 전라남도 출신  
여행사경영, 일본체재16년째  
인터뷰 담당 : 이호현

◇일본에 오게된 계기와 회사설립까지의 과정◇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입사한 회사에서 일본으로 해외연수오는 분들을 인솔하는 일을 맡았고, 그때 함께 일본의 여러회사를 견학하면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결심한 후, 1994년 일본 유학 길에 오른다. 견학중에 동행해 준 현지통역원이 대부분 유학중인 대학원생들로, 그때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 와서 석사과정을 밟는 중에 여러가지 통역 아르바이트를 소개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런 계기로 자연스럽게 학교 공부중에 가이드 길에 들어서

게 되고 현재 여행사를 경영하는 일에 까지 연결이 된것이다.

일본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거치는 과정이 대부분 똑 같겠지만, 저도 처음에 일본어 학교마치고, 연구생으로 입학했고, 그 후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2년동안은 비자 문제 때문에 여행사에 근무 하면서 회사에서 비자를 받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장에서의 통역 아르바이트만 했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여행업에 관련된 실무를 배우게 되고,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2008년 현재의 여행사를 설립하게 된다.

2008년 처음 세울때만 해도 회사운영이 괜찮았는데, 금융위기로 그해 10월부터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엔화의 급등으로 여행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때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인바운드만 취급해서 회사재정이 바닥까지 갔는데, 사람이 죽어라는 법은 없는지, 금년초부터 한국의 여행사에서 제의를 받고, 방향을 바꾸어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여행인 아웃바운드를 시작하게 되어 조금씩 일어서고 있다.

◇ 신오오쿠보의 매력 때문에 회사의 거점을 둔다 ◇

제가 굳이 조그만 사무실에 비싼 집값을 내면서 신오오쿠보역 앞에 사무실을 둔것은 많은 생각 끝에 결정 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해야 해요. 신오오쿠보는 호텔맨들이 영업 하다가 지나치면서 교통이 좋아서 내릴수가 있어요. 또 한국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꼭 한끼 이상 한식을 먹게 되는데, 그게 쇼쿠안 도오리하고 오오쿠보도오리 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의 킨텍에서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또한 호텔맨을 포함해서 그 동안 저에게 도움을 줬던 여러 방문기관의 일본사람들을 제가 초대 하기가 좋아요. 신오오쿠보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한국식당에서 밥 한번 대접 하면서 접대 하기도 좋아요. 예전에는 한국식당 가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류붐으로 오히려 더 좋아해요. 김치도 막걸리도 잘 먹고 좋아들 해요.

일본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던지, 신주쿠에 대한 인식은 누가 말 할것도 없이, 이쪽 동네에 한류 물건 파는 가게만 봐도 눈으로 바로 확인돼요. 신오오쿠보라는 곳은 외국인이 모여 살던 동네지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관광이

나 쇼핑을 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평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 일본분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한국과 연관된 일을 하기에는 신오오쿠보가 출발점으로 제격 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어려울때는 이 한국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도와 줄 수도 있어요.

이곳은 한국인 사회의 커뮤니티가 형성 된 거죠. 따라서 처음의 모든 사업은 불안감이 적은 이곳에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 ◇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마음은, 신오오쿠보의 교육적 환경을 재고려 ◇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학업을 마치고는 처음엔 하찌오우지에 삶의 터전을 잡고 두 아이를 낳았어요. 그후 신주쿠로 옮겨 일하면서, 신주쿠의 구립초등학교와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요.

아이들 학교문제도 한국학교와 일본학교를 두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일본학교를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해요. 그게 지나친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학교는 들어가면서부터 애들끼리 경쟁이 심하잖아요. 한국식 교육을 그대로 하고, 부모들의 지나친 관심과 방과 후 과외랑 학원도 많이 다녀야 하는 실력위주 경쟁위주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일본학교의 교육방식은 먼저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는 공중도덕과 질서를 강조하고, 항상 선생님들과 PTA 또는 개인상담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게 좋아요. 물론 학교를 자주 가야하는게 힘들지만, 애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누구랑 어떻게 노는지, 애들 키우는데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아요.

하지만, 신오오쿠보라는 지역환경이 유흥가이다보니 어른들의 술취한모습, 여성들의 화려한모습, 욕하고 싸움하는등 안좋은것들이 애들눈에 많이 보여지다 보니 호기심을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등, 안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거 같아요. 특히 부모들이 다 일하느라 바빠서 귀가후에도 혼자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러한 이유들로 더이상 이런환경에 두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맹자엄마가 3번 이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다치구의 주택가에 있는 학교로 옮겼는데 밝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생수도 많아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 공부

도 열심히 따라하고 좋아요.

#### ◇ 일본과 한국의 다른점을 고려한 장래의 계획 ◇

관광으로 잠시 일본에 오신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있고 무서운 민족인지 몰라요. 잠시 관광오셔서 일본사람들이 줄서 있는것, 친절한것, 깔끔한거 이런것만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산 현장이나, 관리직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계같이 일해요. 회사에 불만도 있겠지만 표출도 안하고 오로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서운 민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자주 파업을 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곳을 많이 보면서 한국사람들에게 이런 현장들과 종사자들의 모습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3박4일의 짧은 관광여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들, 그리고 자신들의 일에 희생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관광때 잠시보는 일본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1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은 저하고 대동소이 할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15년이상 살아서 거의 일본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한일간의 여행,관광, 연수지만, 앞으로 좀더 밀접한 관계로, 즉 걸만 훑터보는 관광이 아니라 한번을 와도 열번 20번 온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알고 갈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제 계획이에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국 가서 불고기등 먹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람들이 어떤사람들이고 한국생활상이 어디까지가 깊이 있는 맛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3개를 묶는 문화컨텐츠 관광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문화를 서로 공유하며 체험할수있는 문화교류라던가, 학생들의 문화교육교류 등, 그런 컨텐츠 상품이 어떨까 고려중이에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나라의 또래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놀이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걸 보고, 서로간에 교류를 통한 문화교육을 통해서 좀더 가까운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싶은것이 현 단계의 꿈이에요. 애들은 말이 안통해도 서로 그림이나 손짓발짓으로 잘 놀아요.

즉 말이 안통한다는 것은 처음뿐이지 서로간

에 알고싶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래의 사업계획에 대한 꿈을 들려주었다.

<インタビュー 59>

### **Pさん(40代・男性)「日本の企業精神に惚れて来日し、日韓の観光交流を、より深い文化交流として企画する事業家に」**

2010年8月25日、全羅南道出身  
旅行社経営、滞日16年目  
インタビュー担当：李 埈鉉

#### **◇来日のきっかけと会社設立までの道のり◇**

韓国で大学卒業後に入社した会社では、日本に海外研修に来る方たちを引率するのが担当だった。その時、たくさんの日本の会社と一緒に見学しながら、「日本で勉強したい」と決心し、1994年日本に留学する事になる。見学中に同行した現地の通訳員のほとんどが留学中の大学院生で、その時の縁がきっかけとなって、来日してからも修士課程在籍中に色々と通訳のバイトを紹介してもらったりして助けられた。このような流れで自然とガイドの道に入ることとなり、現在の旅行社を経営する仕事にまでつながったという。

「日本に留学するほとんどの学生たちがたどる過程は大半似ている」というが、初めは日本語学校に通って、次は研究生として入学し、その後、修士課程を修了した。博士課程を準備する2年間、ビザの更新の問題もあり、旅行会社に勤務しながら、会社で就労ビザをもらう。その時までは現場での通訳アルバイトはしていたものの、その他の業務に関しては会社に勤務して始めて学ぶようになる。たくさんの知人からの助けもあって、2008年現在の旅行社を設立した。

2008年、会社を始めた頃には運営も順調だったが、金融危機が起きて10月からは下り坂に入ってしまう。円高等の影響で旅行業は大きな打撃を受けた。その時までは、韓国から日本に来るインバウンドだけを扱ったが、会社の財政が底をつきかけた時、韓国の旅行社から、日本から韓国へと旅行するアウトバウンドを扱う仕事の誘いがあった、方向を変えた。これを始めてから、少しずつ持ち直している。

#### **◇会社の拠点を置く町として新大久保の魅力◇**

敢えて、高い家賃を払いながら新大久保駅前に

小スペースの事務所を開いたわけは、たくさんの方のことを考えた末に出した結論である。その理由として、まず多くの方々が来られるように交通が便利で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面で、新大久保は交通が便利で、ホテルマンたちが営業回りの途中にちょっと立ち寄ることができる。また、日本に来る韓国からの方たちは、必ず一回以上韓国料理を食べる。その場所の大半は職安通りと大久保通りである。そのため、韓国からのお客さんとのコンタクトを取るための動きに好都合の場所が新大久保である。

さらに、ホテルマンを含め、今まで色々と助けてくれた様々な日本の方を招待するにも良い場所である。「新大久保に寄ってください。私がおいしい韓国食堂でごちそうしますよ」とも言える。

以前は、韓国食堂に行こうと誘うとあまり良い反応ではなかったが、今は韓流ブームのおかげで、むしろ喜ばれるそうだ。「キムチもマッコリも好きで、みんな喜ぶますよ」との話からも十分に想像できる。

日本の方たちの韓国に対する認識や新宿に対する認識は、この町で韓流グッズを売る店を見るだけで、すぐに確認できる。従来、新大久保というところは、外国人が集まって住んでいた町であって、こんなにたくさんの日本人が観光やショッピングのために来る場所ではなかった。しかし、今は平日も週末も日本人たちで溢れている。

このようなこともあって、「韓国と関連した仕事をするためには、新大久保が出発点として一番適している」と話していた。

なぜならば、多くの韓国人が集まって住んでいるし、お互いに情報を交換している。「困った時にはここにいる韓国人に助けを乞うこともできるし、自分が助けることもできる」という。ここは韓国人社会のコミュニティが形成されてい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初めてやる事業のほとんどは、不安感の少ないここで始めようとする人が多いようだ。

#### **◇二人の子どもを育てる親心から、新大久保の教育的な環境を再考慮◇**

彼の場合、学業を終えて、最初は八王子に生活の基盤を置き、二人の子どもをもうける。その後、新宿に移り、働きながら、新宿の区立小学校と保育園に子どもを入れる。家庭の事情もあり、家事と子守りを手伝ってくれる韓国人を雇って協力してもらいながら子育てをしている。

子どもが学校に就学する頃、東京韓国学校と日本の小学校という二つの選択肢で悩んだが、今は「日本の小学校に入れたが、それが良い判断だったと思う時が多い」という。それは、「私の行き過ぎた思い込みかも知れないが、韓国学校は入学してから子ども同士の競争が激しい。現在の韓国式教育をそのまま行われていて、親たちの行き過ぎた関心と放課後にたくさんのレッスンや塾にも通わなければならない実力優先の競争中心の教育をしている」というのが大きな理由だという。

一方、日本の学校の教育方法は、「まず、人として生きていくための公衆道徳と秩序を強調していて、いつも先生たちとPTA、そして、個人相談を通して子どもたちとたくさん関係を維持しようとするところが好きだ」という。勿論、学校に頻繁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大変だが、子どもたちの学校生活について話し合い、誰とどのように遊んでいるのか、子どもを育てることにおいて多くの情報とアドバイスをもらえるという。

しかし、新大久保という地域環境が歓楽街であるため、大人たちの酒に酔った姿、女性たちの派手な姿、悪口や喧嘩をする姿等、あまり良くない光景が子どもたちの目にたくさん入る。「好奇心を超えて、それらを真似したりする」という子どもによく影響を与えている一面も話してくれた。特に、「親が働くのに忙しくて、放課後にもカギ子だったり、子どもたちだけで家で遊んだりする友だちが多い」という。

これらの理由もあって、これ以上こんな環境においたらいけないという決心をする。「孟子のお母さんが3回も引っ越しをしたとも言うでしょう。今は、足立区の住宅街に引っ越して、転校した学校で明るく友だちと仲良くしている」という。そこは、生徒数も多くて、お互い競争心も湧くように勉強も頑張っているし、とても良いと語ってくれた。

#### ◇ 日本と韓国の相違点を踏まえた将来の計 ◇

観光で日本に来た方たちは良く分からないだろうが、日本人がどれほど実力があって、凄い民族であるか、分からない。短時間の観光では、日本人がきちんと列に並んでいること、親切であること、きれいであること、こんなことだけを見て帰る。しかし、実際に生産の現場や管理職の現場で働く姿をみると、本当に機械のように働くという。「会社に不満もあるでしょうが、表に出さず、

ひたすら良い製品を作るというその目標だけで働く姿を見ながら、怖い民族であることを感じた」という。韓国は頻繁にストライキを起こす。「私はこんなところをたくさん見学しながら、韓国の人たちにこれらの現場と従業員たちの姿をたくさん見せてやりたい。三泊四日の短い観光旅行ではなく、彼らの実際の生活、そして、自分を犠牲にしながら仕事に没頭している熱心な姿を見せてやりたい。観光の際に垣間見る日本はうわべだけ見ることだから」と語った。多分、ここで10年以上生活している方は、彼の意見にだいたい同意するだろうと確信していた。

「私は日本で15年以上生活していて、ほぼ日本化され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今、やっている仕事の日韓の旅行、観光、研修だが、これからより密接な関係で、即ち、うわべだけをみる観光ではなく、一回しか来なくても、10回、20回来た人たちより多くのことを知って帰れるようなプログラムを作ることだ」と彼の事業計画についても語ってくれた。

勿論、日本人が韓国に行っても同じ状況である。「ただ韓国に行き、ブルゴギを食べる等のグルメ旅行になるのではなく、韓国の人とはどんな人たちで、韓国の生活がどんなに深みのあるものであるかを知らせてやりたい。そして、中国、韓国、日本、3カ国を結ぶ文化コンテンツ観光商品を作りたい」という。似ていながらも少しずつ異なる文化をお互い共有しながら体験できる文化交流とか、学生たちの文化教育交流など、そのようなコンテンツ商品を考慮中であるようだ。

「我が子を育てながら、他の国の子どもたちはどのように勉強し、どんな遊びをするのかを気にしている子どもたちの様子を見て、お互いに交流を通した文化教育をすることで、より近い日韓の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せたい」と思うと語ってくれた。

子ども仲は言葉が通じなくても互いに絵や身振り手振りで良く遊ぶ。つまり、ことばが通じないということは最初のことだけであって、互いに知りたいという心が一番大事であると未来の事業計画に対する夢を語ってくれた。

<インタビュー 60>

**LJHさん(20代・男性)「自己責任で歩む人生」**

2011年9月2日、水原出身  
日本語学校在学、日本在住1年5ヶ月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幸世

### ◇ 略歴 ◇

LJHさんは1985年生まれ。家族は、両親と弟の4人家族である。2010年に来日し、現在は、新宿区にある日本語学校の日本語上級クラスで勉強をしている。来年の3月に日本語学校を卒業するが、その後については今年いっぱいよく考える予定だ。進学か、それとも英語を習得するために英語圏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に行くか、思案中である。

### ◇ 日本に興味を持つ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 ◇

LJHさんが日本に興味を持つ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二つある。一つは小学校1年生のときに見た「ドラゴンクエスト」という番組で、もう一つは高校1年生のときに韓国語で読んだ「八百万（やおろず）の神」についての物語だった。

ドラゴンクエストのアニメを見て、「ああ、俺は大人になったら日本語をきちんと勉強して韓国語で他の人にも紹介したいな」と子ども心に思ったそうだ。本ならば何でも好きなタイプのLJHさんは、漫画も小説も大好きで、「一番好きな日本の漫画は何ですか」という問いに、ドラゴンボールやスラムダンク、でも、一つと言われても選べないほどたくさん好きな漫画がある。「日本の漫画は世界一と言われるじゃないですか」。今は、ワンピース、ナルトなど、日本に住んでいるので週刊少年ジャンプで読んでいます。来日前には、翻訳された村上春樹の最新作を出版直後に読んだ。

高校では、LJHさんは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学んだ。

### ◇ 兵役後の決断 ◇

高校から大学に進学をしたが、正直なところは大学には入りたくなかった。むしろ、「ワーキングホリデーとか、旅行をしながらお金を稼いで得難い経験をたくさん重ねたいなと思った」という。高校2年生のころから「このままじゃやばい」と思い、一生懸命勉強をし、学歴社会の韓国にあっては、大学は一応入らないとダメだと考えた。いつのまにか、幼馴染の友だちに誘われたまま、同じ大学に入学し、同じ科目を専攻した。

在学中に兵役に行き、2年間の軍隊生活を送る。

軍隊から戻ってから、大学を休学し、そのまま大学には戻らずにアルバイトを始めた。父親は、「お前の好きにしていってほしい」といってくれたが、母親は「大学はきちんと卒業した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と説得しようとした。しかし、LJHさんは自分の意志で大学には戻らずに別の方向に進むことにした。LJHさんは子どものころから、自分で決めて自分で責任を取るということを意識的に行ってきたということなので、この決断も自分で決めたという。

このときには、甘い考えかもしれないと前置きをしながらも、「いろんな国にいて、英語とその国のことばをきちんと学んで、外国語が二つ、三つできればどこでも就職ができる」と考えていた。

アルバイトは、レストラン、カラオケ屋、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牛乳配達、新聞配達など、5ヶ月ぐらいついりいろいろな職を体験した。アルバイトを始めて1年が経った頃、「あ、資金はこのくらいならもう大丈夫だろうか」と思ったので留学の相談に乗ってくれる留学院に足を運ぶ。そのときは、「英語よりも日本語にもっと惹かれている状態」だったので、留学院で紹介された先生から、まず5ヶ月間の日本語を教えてもらう。

### ◇ 日本での生活 ◇

来日してから、日本語学校に入学をするわけだが、このとき、初めから上級レベルに入れられそうだったので、自分から先生に頼み、レベルを下げてもらう。それは、「初めて外国に来て、なんかちょっと怖いじゃないですか、本当に。僕の言葉が相手に通じるか。それが心配で下のレベルから進めて段階的に語学の腕を上げたいと思った」。特にイントネーションや発音が自分では弱いと考えていたこともあり、それを克服したいと考えた。

来日直後は、留学院で紹介をしてもらった寮に5ヶ月位住んでいた。その後、知り合いの韓国人の先輩に誘われて一緒に住もうということになり、アパートでルームシェアをした。3月11日の地震が起きたときに、この先輩は急に帰国してしまったので、今は別の韓国人の知り合いとルームシェアをしている。住まいは、8畳くらい。家にはあまりいないし、ただ体を休めるだけなので、狭いとはそれほど感じないという。

LJHさんは、自転車で学校に通い、午前中は日本語学校の授業に出て、学校が終わってから週に何度かはスポーツジムに通い、アルバイトに行く。

アルバイトは週に5日、お弁当屋さんで働く。アルバイトのない日は、忙しくできない日の分まで、学校の自習室で勉強をする。

### ◇ 日本と韓国の違い ◇

日本に来て驚いたことがいくつかある。一つは、人気のある食堂の前に「食べるために、先が見えないほど人が並んでいること」。30分以上もかかるのに、どうしてで待っているのかその理由がわからず驚いた。それから、日本人は行儀がよいと聞いていたが、実際に日本に来てみると若者は敬語を使わないし、社会のルールとして「捨てないでください」と書いてあるのに、その前でポイ捨てをしたりして、ちょっとがっかりした。また、韓国には弁当屋がほとんどないので、なんで弁当を買って食べるのかも不思議だった。ただし、弁当を食ったり、1人で食事をしたりすることには今では自分も慣れた。

日本の文化とかを深く感じ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大久保みたいに韓国人がたくさんいるところは好きではない。韓国の食べ物はルームメイトの先輩のお母さんが送ってくれるので先輩からもらったりする。

### ◇ 将来について ◇

将来は、できれば翻訳に関わる仕事がしたいと考えている。来日前から翻訳を専門的に勉強したいと思っていたが、現在は、進学をしようか、それとも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他の外国に行くか迷っている。もう、自分の年齢が20代後半になったので、ワーキングホリデーができる30歳までに最後のチャンスとして、オーストラリアに行くかどうかである。そこで働きながら、学校に行き、英語をきちんと勉強して、それからまた日本に戻ってくる可能性も考えている。

もし、翻訳を学ぶために専門学校に進んだときは、漫画やドラマなどが翻訳できたらという夢のようなことも考える。気軽に読める本とか小説が好きなのでライトノベルと呼ばれるジャンルを翻訳してみたいと思う。軍隊に入る前に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自分の小説を書き始め、出版社から連絡もらった経験もある。しかし、そのときは自信が持てなかった。小説家の中でも「この作家はすばらしい」と思われるくらいのレベルじゃないとプロとはいえないと思ったからだ。

LJHさんの話の中には、「自分でお金を稼げば、

自分でやれる」ことと、自分は個人主義であるということばが繰り返してでくる。自分で決めて、自分で責任を取る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が伝わってきた。

### <インタビュー 61>

#### チョさん(20代・男性)「尊敬する父親が来日を助言」

2011年9月2日、大邱出身  
日本語学校在学、日本在住1年2ヶ月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幸世

### ◇ 略歴 ◇

チョさんは1988年生まれ。家族は、両親と妹、そして祖母と叔母の6人で大邱に住んでいた。兵役の終わった約一年後の2010年来日。現在は、新宿区にある日本語学校で大学進学を目指して勉強をしている。兵役後、自分で決めた人生設計があり、初めの2年目までは順調に進んでいる。将来は、エンジニアになり、機械工学の知識を活かして人の役にたつような技術を形にしたい。

### ◇ 兵役前まで ◇

チョさんは大邱での高校時代、2年生のときに理系コースを選んだことから、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勉強することになった。学校では、英語が必修で、あとは2年生に取る第二外国語の科目は、文系は中国語、理系は日本語と、担当の先生の関係できまっていたらしい。そのときは、ごく基本的な「ひらがなとか挨拶」しか習わなかった。

それ以上に、チョさんの高校時代は、勉強よりも友達と遊ぶことに忙しかった。高校の授業は、「午後6時10分まであって、…7時10分までご飯を食べたり、休んだりして、7時10分から夜10時まで自習の時間がありますけれど、それが強制的な自習の時間で。そのとき自習をしなくて、友達と遊びに行ったり…」、友達とサッカーに明け暮れる、クラスのリーダーだったらしい。父親からは「勉強は自分次第だから、友達といい関係を持つことは勉強よりも大事」だといわれていた。

勉強のほうは、クラスの間あたりで「試験日の一週間前」に勉強をしていたという。しかし、大学のセンター試験には失敗。初め、一年間予備校に通い、希望の大学に入るための浪人をしようと考えていたが、自分の希望を家族に伝えたところ

ろ断られた。祖母から、後で、経済的余裕がないということを知り、合格をした工業大学に進学することになった。入学金を銀行から借りることがわかったときに「ああ、ちゃんと勉強しないとイケないな」と実感し、半年後に学年でトップの成績を取り、大学から奨学金をもらえることになった。

#### ◇ 兵役に就いて考えた人生設計 ◇

進学したときは大学で、電気・電子工学を専攻していたが、学年でトップの成績を取った半年後、大学を休学し、兵役に行くことにした。その理由は大学入学後の18歳は、韓国の数え歳では20歳になり、軍隊に行くことを早く終わらせたほうが将来の人生設計にはいいと自分で判断をした。軍隊で2年間過ごした後、チョさんはいい成績を取り、奨学金をもらえることになっていた大学には、しかし、戻らなかった。

軍隊に入ってから、自分の将来について真剣に考えなくてはと思った。そこで、たまにある休みのたびに父親に兵役後の人生について相談に乗ってもらい、兵役が7ヶ月残ったあたりで父親から「お前が機械とか電子工学の勉強をするなら日本でしたほう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助言された。チョさんの父は貿易関係の会社で働いていたときに、日本に出張で頻繁に行き、そのため5年くらい勉強をして日本語が話せ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父親は日本に対していい印象を持っていて、チョさんが小さい頃から日本で見たか聞いたか、いろいろな話を聞かせてくれていたという。「世界で一番いい人は日本人かもしれない」と何回も父親が言っていたことをチョさんは覚えている。

こうした日本への留学までを決めるまでの兵役の2年間と日本に来日するまでの3年間の自分の人生は「本当にドラマチック」だと感じる。

#### ◇ 日本での生活 ◇

在学をした大学の先生からは「なぜこんなにいい成績を取ったのに辞めたのか」と惜しまれた時に、自分は勉強をしたらちゃんと成績を出すことができる、そうした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だと自覚ができた。それなので、日本への留学でも新しい勉強に対して意欲的になったという。兵役のときに考えた23歳(数え年)から10年間の人生設計を実現させようという意欲も強かった。「外国のいいもの、いいことを習って自分の人生にプラスに

す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た。

日本留学に関しては、もともと高校時代から理系の勉強をしてきたこともあり、理系と決めていた。軍隊生活後、まず、錆びついた理系科目の勉強をしておいた。日本語に関しては、日本留学前に3ヶ月ぐらい会話を中心に勉強をした。来日後、日本語学校では初級に入り、一年後には上級クラスに進んだ。さらにその頃には日本の民間奨学金も受給できるようになった。

来日直後、初めは新大久保駅近くの韓国料理店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た。一年ほどしてから、アルバイト先に行くたびに、「ここは日本じゃないなあ」と思うようになり、新宿とか新大久保から離れた場所で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に決めた。現在はインターネットで探した、「99.9%」は日本人のお客さんが来る渋谷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

チョさんの一日は、アルバイトで疲れているので朝はぎりぎりまで寝て、午前中は学校で勉強をする。朝は学校に向かうときに歩きながらパンを食べたり、昼は友達と食べたり、家に帰って食べたりして、夜はアルバイト先のまかないを食べる。時々、自分で韓国料理を作ったりするので、新大久保に韓国のはるさめなどを買いに行く。チョさんは来日1ヶ月前に、お母さんから料理を習った。たまには、日本人の友達を連れて新大久保に韓国料理を食べに行く。日本人の友達とは、ボーリングにいたり、お酒を飲んだり、カラオケにいたりすることもある。

#### ◇ 日本と韓国の文化差 ◇

日本に来て驚いたことは、まず日本人のやさしさだった。来日してから3日後に区役所に行く途中、スーツを着て会社員風の人に道を尋ねたところ、「じゃあ、連れて行ってあげます」と本当に連れて行ってくれた。それから、韓国ではところかまわず、電車の中でも周りの目を気にせず電話をしたりするが、日本では電車の中で電話をしないこととか、そういうマナーを守る文化が違っていると感じた。それでも父親から来ていた日本の文化は覚えていたので、それほど驚くことはなかったという。

しかし、ときどき窮屈に感じることもある。韓国と日本は近い国だけれども、日本人は「約束が一番守る人」だと感じる。アルバイトの面接のときに、急用が入ってしまったので一度、時間通りに行くことができずに遅れてしまったことがある。



ずっと謝って、理由を説明したが、相手は全く聞く耳を持たずにがっかりしたことがある。自分の過ちだとはわかっているけれども、どうして話を聞いてくれなかったのか、今でもわからない。

それから困っていることは、物価が高いこと。

日本の文化と出会ったのは、子どものころに見た「スラムダンク」だと思う。しかし、当時はそれが日本のものだとは理解していなかった。ファミコンで「キャプテン翼」をしたときに、父親から「シュート」とか「パス」などのことばを教えてもらったことは覚えている。漫画は ONE PIECE や H2、スポーツ漫画が今でも好きだ。

#### ◇ 将来について ◇

2012 年の 4 月に進学をするつもりで、現在入学試験に向けて準備をしている。来日前から機械工学部を専攻することにしていたので大学の選択では迷わなかったが、一つ一つの大学に向けて希望理由書を書くことは大変な作業だという現実に直面をしている。

将来は、エンジニアになって、卒業後は日本で就職をしたい。できれば大企業がいい。大学では、機械工学の基礎をしっかりと身につけるつもりなので、会社ではそれを活かした研究をして、技術者として人の役にたつようなモノを作りたい。例えば、最近興味を持ったのは、不自由な人のための「足」に変わる機械。人間のように自然に歩けるような技術を開発できたらいいと思う。

軍隊にいるときに悩みぬいて留学を決めたときに、人生の 10 年計画を立てた。初めの 2 年は日本語学校、次の 4 年は日本の大学、そして残りの 4 年は就職をし、お金を貯めて、10 年後には自分の家を持ち、自分の家を持ったら結婚をしたい。その頃にはちょうど 30 歳を越えているだろう。

自分の両親を見ていて、結婚をして家族を持つのは最高の幸せだと思う。自分の父親は仕事で苦労をしたこともあったが、母親は父親を見捨てることなく、家族のために一生懸命に働いてくれた。「まあ、子どもは親の背中をみて育つというじゃないですか」。

#### <インタビュー 62>

#### G さん (30 代・男性)「日本で始めたキャリア」

2011 年 9 月 4 日、釜山出身

会社員、日本暦 8 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 日本の IT 会社に就職して来日 ◇

2003 年 2 月に釜山にある大学を卒業した G さんはその年の 11 月に、内定をもらっていた日本の会社で働くために来日した。大学の時に留学したかったが、いろいろ事情があって実現できなかったが、海外で働けばお金を稼ぎながら語学も学べるし、外国生活も体験できると思い来日を決心した。両親の反対もなく応援してくれた。両親と他の兄弟は海外生活の経験はなく、現在釜山に住んでいる。

#### ◇ 大学で日本就職を準備 ◇

日本就職を考えた頃、韓国は IT ブームだったし、自分も IT の仕事をしようと思っていた。大学 4 年生のときに大学が開いた政府支援の外国就労のための研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8 ヶ月間の勉強を終え、日本の会社に面接をうけ内定をもらった。当時日本では外国人 IT 技術者を必要としていたし、日本語も習得しやすかったのも、日本に決めた。アメリカ就職も考えたが、募集もあまりなく語学も問題だった。仕事の経験を積んでいるいまでも、アメリカは言語面で難しそうに思う。日本語の勉強は大学 4 年から始めたが習得しやすかった。意思疎通しながら仕事ができる程度まではやりやすいと思った。それで自信を得て日本就職を準備するようになった。

日本就職は「面白そう」と思った。当時は 8 年もいるとは思わなかったのも、「経験して帰ってくればいいと思ったので負担もなかった」。給料は韓国より日本のほうが、当時は高かった。今はあまり差がない。まだ日本のほうが若干高いが、家賃など出費が多いので差がなくなっている。同じ時期に韓国で仕事を始めた同期をみると、あまり差がなく、逆に彼らの生活の方がより安定した面もある。とくに住宅面で違いを感じる。彼らは長期的な計画で家を準備する人もいるが、「自分はいつまで日本にいるかなどの計画が立たないので...」、現在はどっちが効率的か検討している段階である。

#### ◇ 日本生活 ◇

2 年半前に両親の紹介で結婚した。妻は大学の時に日本語を勉強したこともあって日本生活に満足している。周りをみると家族が日本生活にうま

く適応できなくて帰る例もあるので、妻に感謝している。今年子供が生まれた。子供は韓国で出産してしばらくしてから日本に帰ってきた。ほかの韓国人を見ても 80% くらいは韓国で出産するようだ。とくに第二子、第三子になると子供の面倒をみってくれる人もいないのでそうなるのだろう。

日本社会は個人主義的な部分が多い。共同体のなかで、業務分担がよくできていて、自分の仕事さえまじめにやっていたら問題がない。代わりに「人間的に親しくなる部分はない」。日本の会社に勤めながら、何回か移動したが、連絡する以前の職場同僚はあまりいない。韓国なら違ったと思う。仕事中に疲れて、「コーヒーを飲みに行こうか」と誘っても、勤務時間だから行かないという反応が多い。仕事しながら一番難しいのは文書作成だ。言語が完ぺきではないのでニュアンスの差などで間違うこともあるが、それ以外は仕事がしやすい。

韓国教会に通っているのでもそこで付き合う韓国人が多い。冗談混じりで、「外国に行くと、日本人はパチンコ屋を立て、韓国人は教会を立てる」と言われるほど、教会を中心に韓国社会を作っている。「教会は、外国生活で韓国人に多く会えるし、互いに助け合うなど役割が大きい。それは妻や子供にもそれなりに付き合いがあるので役割が大きいと思う」。日本人はあまりやらないが、教会の人の家に招待され食事をする機会も多い。韓国なら幼なじみの友だちや親戚がいるけど、ここでの付き合いは会社の人と教会の人に限定される。

#### ◇ 新大久保について ◇

独身の時に新宿に住んでいたのでも韓国食を食べる新大久保によく行った。人も多く賑やかな町だが、「道が狭すぎる」。8 年前に比べると、店も増え、韓流もヨン様からガールズ・グループまで多様化した。だけど、新大久保というと狭くて混雑しているというイメージしかない。コリアタウンと言われるが、レストランが多いことを除けば特別にコリアタウンというイメージは浮かばない。日本の店も混ざっているし、「政策的に特性化して新宿コリアタウンという看板をかけてそうならば良いと思う」。

#### ◇ しばらくは日本に ◇

日本生活が長くなって、こちらの生活や文化に慣れたせいも最近韓国に行っても「日本のやり方を当然のように感じることもある」。たとえば、日

本だったらコーヒー・ショップで持ち帰りを頼むと、コップに蓋をしてそれをテープで固定して袋にシロップとティッシュも入れてくれるのに、韓国では店で飲むのと同じようにお盆にコーヒーだけのせて「持って行ってください」という。また交通機関を利用する時も韓国が不便に感じることもある。「日本は経済的に苦しくなければ外国人も住みやすい」。

しばらくは日本にいると思う。だが、子供が大きくなって学校に行く年齢になると考えるかもしれない。少なくとも子供が小学校に入るまでにはいると思う。目標があるとすれば、韓国に帰る頃には自分の事業をするなり基盤を整えてある程度安定的な生活ができるようにしてから帰りたい。

#### <インタビュー 63>

#### H さん(30 代・男性)「震災で不安はあるが、日本生活に満足」

2011 年 9 月 4 日、釜山出身

会社員、日本暦 10 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 仕事関係で派遣され来日、やがて派遣先の日本の会社に転職 ◇

1972 年生まれの 39 歳の H さんは、出身地の釜山でコンピューター関連の大学院を卒業し、政府系の研究所に就職した。1 年間働いたあと、仕事関係で日本の大手 IT 会社に派遣され、同僚 4 人と一緒に 2001 年に来日した。学生の時に、当時アメリカに住んでいた姉のお世話になりながら語学研修で 2 回、合わせて 1 年半くらいアメリカに行ったことはあるが、仕事で海外は初めてだ。一緒に来た同僚の一部は数ヶ月で帰国して自分を含む二人が残ってサポート業務をしていたが、最終的に派遣先の日本の会社に転職することになった。当時日本の生活に満足していたし、韓国より日本の方が自分の仕事ができると思って、また「新しい文化に接してみよう」と思いもあって、日本の会社に移ることにした。

#### ◇ 韓国系会社に転職 ◇

はじめは日本語が全然できなかった。韓国からきた人たちのために会社で通訳をつけてくれたが、その会社に移ってから通訳はいなくなった。はじめは日本語ができなかったために仕事関係で同僚

と一緒にどこか行くと、同僚の通訳に依存せざるを得ずその人に指示されるようで、また自分が言いたいことが伝達できない不満もあって、仕事のために独学で日本語を勉強した。

日本人と韓国人は仕事のスタイルが違う。日本人は事前に長い時間綿密にプランを立ててからスタートするが、韓国人はやりながら修正するタイプ。しかし、仕事というのは普通プラン通りに行かない。必ず途中で修正が入る。すると、最初のプラン作りに費やした時間とエネルギーがもったいなくなる。韓国スタイルはその最初の作業を短くするタイプといえる。実際やってみると韓国人の方が仕事が速い。

当時は韓国がIT分野で技術的に先行していて、また人件費も安かったので、IT業界に韓国人技術者が多かった。韓国人と一緒に仕事をしたほうが自分に合うこともあって、チームリーダーになってから韓国人を何人か採用した。仕事能力はそれぞれ違うので、メンバーにうまく配分して早い人は遅い人を手伝う。韓国人ならこうしたことができるが、日本人ならこうしたことがやりにくい文化がある。「韓国人は根性があるってスピードに乗れば仕事が早い。一番早い。」

社内で最も韓国人が多かったので韓国チームと呼ばれた。業績もとてもよかったが、リーダーだった自分だけ昇進しチームメンバーは昇進できなくて心が重かった。昇進は嬉しいが自分だけ昇進すると後輩の血を吸っているようで嫌だった。自分のチームの業績が良くても他のチームとのバランスを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会社側の説明で、納得がいかず上司と言い争うこともあった。こうしたこともあってその会社を辞めることになった。周りからは「あなたらしい」と言われた。普段から言いたいこと言ってきたし、周囲にも「と思います」と言うので分からないので「です」「ます」で言うように求めてきたので、性格はみんな知っていた。そうこうするうちに、知り合いから現在勤務している会社が人を探していると聞いて、前の会社の仕事が一区切りついたところで、移った。

#### ◇ 日本の生活 ◇

日本に来る前から知り合いだった妻と結婚して、妻は現在専業主婦である。現在、妻と小学校入学前の二人の子どもと一緒に都内に住んでいる。妻も大学の時に2年ほど外国生活を経験したことも

あって、外国生活に抵抗はないようだ。妻は、来日していから日本語学校に1年位通って、子どもが成長して幼稚園に通い始めてからは知り合いも増えた。日本の生活は安定して満足している。日本に住んでいるので日本のルールにあわせるのが正しいと思うが、理にかなわないことは直さ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住民としての義務は遂行し、権利も主張する。」

人間関係は現在つとめている会社の同僚、以前の会社の同僚、同じマンションに住む同じ幼稚園の親御さんなどである。地域のおじさん同士でソフトボールをやったり、呼ばれて食事をしたりすることもある。

子どもは韓国語と日本語両方上手に喋る。家では韓国語を使う。韓国人が韓国語を喋らないのはダメだと思う。外国に住むと韓国語ができないのは親の責任もあると思う。母国に戻って単語のレベルがおちるのは仕方ないが、生活ができない程度なら問題がある。震災の後、ほかの家族が6ヶ月間韓国に行ってきたが、子供が日本語を全部忘れて韓国語ばかり喋っていたが、幼稚園に行くと1週間で日本語に戻った。

#### ◇ 震災の時に、家族だけ韓国に ◇

地震が起きた時、家族の安全を確認してから仕事を続けた。会社では非常事態には社員を全員帰国させるが、先に家族の帰国を勧められ、ほとんど社員が家族を地震が発生してから2、3日中に帰国させた。会社は数日間在宅勤務など柔軟な勤務態勢になった。震災後、日本の生活は「良くはない」と感じる。日本生活に満足しているが、地震は仕方ないとしても、放射能は「良くはない」と思う。日本生活が嫌になったというのはなく、「何か明確なことがあれば良いな」と思う。

#### ◇ しばらくは日本に ◇

3年前にセキュリティや子どもの通学路などを考慮してマンションを購入した。とくに日本に定住を意識してのことではない。ただ、今すぐ韓国に帰る計画をして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現在の仕事も面白いし、満足しているので、しばらくはここに住むと思う。

機会があれば、アメリカなど他の所にも行ってみたい気持ちはあるが、そのためにいま何か準備を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日本が終点ではない」と思うが、韓国に帰る、アメリカに行くなど別に

限定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引退後は韓国に行って畑でも耕しながら生活するのも良いだろう。だが、子どもの将来によって変わるかもしれない。子どもがずっと日本で生活するという決まりはないし、他の外国に行くこと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自分は仕事がなく面白くなかったら、家族がいる韓国で暮らすのが一番面白いかも、という漠然とした思いはあるが具体的に考えたことはない。日本で韓国人や在日に対して異質感を抱く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が、自分はそれほど感じない。最近、子どもの友達が私に「アンニョンハセヨ」と挨拶をするくらい、韓国人に対するイメージも変わっている。壁を感じ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が自分はあまり感じない。

#### ◇ 新大久保について ◇

新大久保は韓国料理を食べたいときに行く。以前通った教会もそこにあったので良く行くほうだと思う。10年前と比べるととても賑やかになった。ただ、人が多すぎで混雑し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韓国の市場みたいに文化と思えば悪いとは思わない。活気がある新大久保は韓国人として肯定的なことと思う。賑やかになったのは良いが、まちがリカバリーできてもっと綺麗になってほしい。そこで生活している人たちが協力して少し整頓できればもっと良いまちになるだろう。また韓国に対する高い関心に驚く時もある。仕事関係で韓国の若い芸能人と仕事をしたことあるが、関心が高くてびっくりする。だが、韓国語看板が多いから、韓国人が多いから、キムチを売っているから韓国ではなく、「これが韓国だ」といえる「韓国文化」があればと思う。

<インタビュー 64>

#### Kさん(30代・男性)「多様な日本社会を経験しながら」

2011年9月4日、釜山出身  
会社員、日本暦10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 海外経験をしたい思いで日本に、後に韓国系会社に就職 ◇

1978年生まれのKさんは大学の在学中に軍隊にいて、除隊後大学に復学しないでしばらく親戚の会社で働いた後、海外経験をしたくて日本に

いくことを決心した。1年間働いて金を貯めて、朝は日本語学院(塾)に通いながら準備した。日本とオーストラリアを候補に親と相談して日本に決めた。大学での専門が材料工学だったこともあって電子産業の強い日本に行きたかったし、親からも近い日本を進められた。はじめは1年計画で日本語学校に入ったが、最終的に1年半、卒業後帰国せず英語専門学校に2年間通った。それから現在勤めている韓国系電子製品販売会社に就職した。

日本で生活してみて日本に対する印象は良かった。韓国は「狭くて競争も激しくて窮屈」なので、日本でできることをやってみようと思った。言語もいろいろやったのでここでそれを発揮でき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た。日本語学校を卒業する頃、家族から「帰ってきて」と言われたが、ここでもっと学びたいという気持ちもあって意地を張った。専門学校卒業後、学生とは違う日本の職場や社会を経験したいと思って就職した。日本の会社に行きたかったが、韓国人の知り合いの勧めもあって、現在の会社に志願して入った。復学しなかった大学は、その後仕事をしながら通信で卒業した。

#### ◇ 多様な日本社会 ◇

日本にきて、人を見るのが好きで、渋谷に行って人を眺めたりした。それで、考え方や文化が韓国と少し違うと感じた。子どもの教育も、たくさん勉強する一部の私立を除けば、韓国のように「抑圧する」より自然に充実するようだ。だが、「人に迷惑かけない」と言いながら、子どもを押さえる面もある。韓国の子どもは子どもらしい面があるが、ここはそうでもない。電車でもおとなしく座っているし、そういうところからも教育の違いを感じる。

専門学校では日本人の友達ができ、また教会で出会った友達もいる。最初通った教会ではいろいろサポートしてもらった。先に来た人がいろいろ教えてくれるし、アルバイトも紹介してもらった。教会は新しい環境の中で不安な気持ちを信仰の力で克服しようと集まって、互いに慰める面もあると思う。

3年前に結婚したが、妻が近所つきあいで傷ついたことがある。引っ越しして近所に挨拶に行ったら受け付けないところもあった。また韓国料理を持って行ったら「必要ない」と冷たく断られることもあった。こちらから好意をもって歩み寄っ

たのに予想外の反応で傷ついた妻は心を閉じた。しかし、趣味で日本人の先生に楽器を習っているが、そちらとはうまくいっているようだ。お土産もあげたりもらったり、一度関係ができると仲良くしている。自分は仕事関係で日本人とつきあうことが多いが、地域でもあまり接点がない。これからはコミュニティで活動もしたいと思っている。

職場には日本人社員が半分だが、人によって少し違うだろうが、韓国人社員と問題なくやっている。性格が明るい人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うまく行かなくても問題なく適応する。人によっては、自分の仕事ではない場合、「それは私の仕事ではないのでできない」という人もいる。取引先はほとんど日本の会社だが、韓国スタイルを理解してあわせてくれる。

#### ◇ しばらくは日本に ◇

しばらくは日本で生活したい。これから子どもも産んで育てたい。周りをみると、子どもが小さい時は葛藤が少ないが、小学校に行く年齢になると悩んでいるようにみえる。日本の学校、韓国学校、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どれに行かせるか、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もあるし、悩んでいるようだ。

震災の時、韓国の家族がとても不安がって「すぐ帰ってきて」と言われた。会社からは連絡さえできれば勤務地は問わないと言われたので、家族を安心させるために3日間韓国に行ってきた。その後会社はしばらく在宅勤務になり非常態勢に入った。結果的に中国人の一人だけ退社して他の人は全員そのまま勤務している。

#### ◇ 新大久保について ◇

新大久保は日本語学校の時から、また独身の時は近くに住んでいたのも、食事をしによく行った。7-8年前と比べて韓流ブームで店も変わったし、人も若い層までくるので、「時代が変わった」と感じる。だが、韓流に対して肯定的にみる層があれば、最近の「デモ」のように「保守派」の反応もあるようだ。会社が赤坂にある関係で良く行く。赤坂には韓国系の会社が多く、韓国人が多い。サッカー日韓戦がある日は会社の日本人同僚と一緒に見たりする。お互いに認めあって雰囲気は良い。

新大久保は少し汚いかも知れない。韓国人は気楽にいけるが、日本人はどうか分からない。留学生みたいに少し滞在してすぐ帰る人が適当にやっ

ている店もあるようで、そういう部分は改善が必要だと思う。

#### <インタビュー 65>

#### Pさん(30代・男性)「したいことと現実の間を迷っている感じ」

2011年9月5日、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在学、日本在住1年5ヶ月  
インタビュアー：藤田ラウンド幸世

#### ◇ 略歴 ◇

Pさんは1978年生まれ。家族は、両親、兄、姉の5人家族。韓国の大学で写真を勉強し、卒業した。今回の日本滞在は2度目になる。現在は、日本語学校で、来年の進学に備えて勉強をしている。

#### ◇ 大学卒業後のワーキングホリデー ◇

Pさんは、韓国で大学を卒業している。留学を志して日本に来たときの年齢は30歳を過ぎていた。大学を卒業してから、日本への留学を決めるまでに、Pさんはワーキングホリデーを利用して、日本に1年間、そしてオーストラリアに8ヶ月間滞在している。

オーストラリアでは、農場、精肉工場で働いた。ワーキングホリデーの韓国人も多いので、働き口を見つける方法として、ウェブサイトがあることがわかり、農場の「人手が足りないという書き込み」があると電話で申し込んだ。農場で働く人は移動をする人が多いので、「この季節にはこれがいい」とか、旅行みたいに短期間で農場から農場に移動することもあった。工場で働いたときはオーストラリアの人材派遣会社のようなエージェントをサイトで見つけ、そこで働きたいと希望をしたら、会社からオリエンテーションがあって、形式的な試験もあった。オーストラリアには合計8ヶ月間いたが、働くときはことばを使わないので英語ができるようにはならなかった。

オーストラリアの前に、日本で1年間ワーキングホリデーとして滞在をした。そのときは新宿区のホテルの掃除のアルバイトやボランティア活動などをしていて、日本語に関しては、来日前に4ヶ月位、韓国の語学学校で日本語の勉強をしたが、日本滞在中には学校にはいかなかった。勉強という形よりも、むしろゲストハウスで日本人と一緒に

に住み、友だちとなった人たちと一緒に遊びに行ったりして、日本語を学んでいった。

### ◇ 日本への留学 ◇

Pさんは高校のときに第二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勉強したことがある。そのときはほとんど「ひらがな」を覚えるくらいで、それほどわかるようにはならなかったという。授業数は、高校1年から3年まで週に1時間くらいで少なかった。大学に入ってから、教養科目として日本語を一学期間だけ履修したことがある。

子どものころは日本のアニメだと理解しながら、「未来少年コナン」や「銀河鉄道999」を見ていた。しかし、日本のテレビ番組を自分の意思で見始めたのは、大学2・3年の頃からで、「サマーSnow」や「1リットルの涙」を見た。現在、日本に住んでいて、お気に入りのドラマは「深夜食堂」。

しかし、ワーキングホリデーや旅行をしながら日本に留学を決めた理由に関しては「一番近いから」ということであった。「30年近く、ほとんど韓国で生活してきたので、他の国で勉強すること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日本に来ました。勉強するときには、日本でも韓国でも関係ないから日本でやってみようと思ったんです。日本ではもちろんむずか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バイトをしながら少しは学費も払うこともできるから、それが一つの理由かな。」

Pさんは日本への留学は「自分が決めたことだから不満もないですね。でも今の状況に満足をしているわけでもなく、不満でもないところですよ」という。

今回の日本への留学については、両親には詳しくは話していない。「正直、私が今、日本に来て、何の勉強をするために日本にきたかは（両親は）詳しく知らない」という。もちろん、日本で勉強をすることは話しているがそれ以上の相談をしたことはない。

### ◇ 日本での日常生活 ◇

現在は二つの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一つのアルバイトは新宿にあるので、その帰りに新大久保に寄り、ラーメンとかキムチを買う。コチュジャン（韓国の辛い味噌）は、来日するときに大きいものを買って持ってきた。簡単な料理、例えば、「韓国人はほとんどテンジャンチゲ（味噌味のな

べ）ができる」。たまには、友だちに韓国料理を作ってもらったりする。

午前中の日本語学校の授業の後、お昼は家に帰って食べるが、以前は弁当を作って持っていった。日本語学校の友だちとも飲み会とか、お昼ご飯をときどき是一緒に行くが、みんなアルバイトで忙しいから普段は時間があまりない。アルバイトは5時からで、家に帰ってくると12時位になる。それからラーメンを食べて、寝るのは大体1時ごろになる。そうすると家で勉強をする時間は少ない。

Pさんが新大久保で食材を買うときは、韓国広場という韓国のスーパーにも行くが、ラーメンはドンキホーテの方が安いのでそちらに行く。電車賃は、定期券があるのでお金はかからない。友だちと飲みに行くときは、新宿の「金の蔵」とか、新大久保の焼肉屋さんに行ったりする。

Pさんは、去年は何度か恵比寿の写真美術館に行き、図書館で写真集とかをみたりしていたが、今年に入ってからはまだ行ってない。写真展には、興味のあるものだったので、夏に1回だけ足を運んだ。本当ならば、写真展のボランティアをしたいと思い連絡をとってもみたが、日程が合わずにいけなかった。来日してから、アルバイトとして写真が撮れないかも考えて調べたこともある。「今の飲食店よりは写真のほうが好きだからどんなバイトでも（写真関係ならば）いいんですけど…」と言う。

前回の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日本滞在をしたときに、知り合いが多くできた。「知り合いは結構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友達は少ないから。その関係が微妙。知り合いと友達は違うから」。それでも、自分が嫌なことがあったときに一緒に食事をしたり、飲みにいったりする日本の友だちはいる。韓国の友だちとはインターネット上のメッセージャーを使って月に1、2度、連絡を取りあっている。

### ◇ 現実とこれからの生活の狭間で ◇

Pさんは30歳を過ぎているのでその歳で両親にお金とかの話をするのは恥ずかしいことだと考えている。万が一、経済的に困ったときには、両親や結婚をして家族を持っている兄ではなく、独身の姉に相談をするだろうと思う。自分の歳ならば、本来自分が給料をもらって両親にあげるのではないかと「たまに、なんていうか、思い出すというか、そんなふうになるときがあるんですけど…」今からどうするのか、ちゃんとできるのか、

家のことや自分の将来のこと、70歳を越えた父親の健康問題のことなど、いろいろな思いが頭をよぎることがある。「今は、したいことと現実の間を迷っている感じかな。」

Pさんは韓国の大学で写真を学び、日本では今度、大学の映画科へ進学を考えている。「もちろんしたいことはこれだとわかっているんですけど、これをして後々どうなるか、見え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写真とか、映画とか撮ってみたいけれど、現実には儲かるのかみたいなどころがあるので迷っている状態といったらいいか。」

「進学ということだけを考えたら、現在の自分の目標は進学なんですけど、後々どうなるか長い目でみると、まったくみえない状態」だとも冷静に分析をする。

一番やりたいことは写真ではあるものの、映像とか映画の撮影をもっと勉強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る。それは写真も映画も表現をする手段なので、自分の表現の可能性を広げるためにも、映像の撮影を学びドキュメンタリー作品を制作してみたい。もともと社会的なテーマに関心があるので、フォトジャーナリズムにも興味がある。

日本人の親友からは「デイズジャパン」のウェブサイト好きなものがみつかるのではないかと、勧められた。その親友からは、いろいろな人と会って、いろいろなことを知るのはいいことじゃないかとも勧められている。

## <インタビュー 66>

### 金さん(20代・男性)「自分の可能性を試したい」

2011年9月5日 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在学、日本滞在歴1年6ヶ月  
インタビューアー：崔佳英

1989年3代目の長男として生まれた金さんは、周りからの期待も大きく、幼い頃から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明確に考えていた。小学生のときから、大学の名前、学部の名前だけで選ばれる韓国の選抜システムに疑問を持ち、留学を考え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中学のときから小説家として活動し、自分の力で貯めたお金で留学している。出版された本は140冊を超え、今後日本でも自分が満足いくものができれば挑戦してみたいと語る。来年からの大学進学では経営学を専攻して日本での就職

も考えている。日本の会社の経営方法のいい点を、韓国で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話していた。

## ◇ 留学に来るまでの7年 ◇

日本への留学を考え始めたのは、小学校6年生からである。韓国の学校教育、就職市場での選抜システムへの疑問から留学を考えるようになる。学生時代にみな同じく決められた教育を受け、夜の1時まで勉強をし、みな同じ生活をおくる。大学を出て、就職の際は自分がそれまで何を勉強したかよりは、大学の名前、学部の名前だけで選ばらる。韓国にいれば、「自分がみんなと同じになる感じ、自分の可能性が見つからないない感じ」と思うことで、中学、高校と進むにつれ留学の意思は強まる一方だった。中学校からは学校での日本語の授業もあり、自分で日本のドラマや映画を見て日本語の勉強し、高校に入学する前に日本語能力試験の3級(N3)をとった。高校から日本へ留学する事を希望したが、両親に反対され、当時は「お前がいい大学に入れば、ならいい大学に入れるってことはそれだけ勉強したいということだから、日本に行ってもいい」と約束をもらうが、ソウルにあるC大学に入った後、1年生が終わっても両親からは返事をもらえなかった。なので、両親には言わず、自分で学校に退学届けを出し、日本への留学の準備を始めた。留学の準備をしていた3-4ヶ月は父親に口もきいてもらえなかったという。

## ◇ 留学先としての日本 ◇

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への留学ではなく、日本を選んだ理由の1つは、欧米社会は韓国社会とは価値観があまりにも異なるためである。だが、日本は「韓国が今歩んでいる道を、日本は昔歩いたんですから、正直に言って、日本って韓国よりちょっと、なんというか、進んでいますから。経済も、いろいろで、だから、同じ、似たような文化の中で、韓国がもっと進んだ姿が日本だと思ったから」、日本を留学先として選んだ。今後大学で経営学を専攻として勉強し、韓国に戻りそれをいかしたいと語る。

## ◇ 基礎からやり直しの日本語勉強 ◇

独学で日本語能力試験3級を取得したあと、高校生のときは日本語の塾に通い2級にも合格した。東京の日本語学校に来る前にすでに2級までの資

格を持っていたが、レベルテストの結果はクラス1だった。最初は結果を理解できずクラス替えのためのジャンプテストも考えたが、2級を取るための勉強では見逃していた基礎的なものに気づき、基本的なものから勉強しなおした。レベル1から始まった日本語学校は現在では1年半になる。大学受験が終わったあとも来年の3月まで通うつもりだ。日本語学校に2年間通うと卒業証書が発給され、これは韓国では就職の際などに自分のキャリアの一つとなるためである。

#### ◇ 他の留学生と自分 ◇

同じ年齢のほかの留学生と自分が違う部分は、やりたいことをはっきり考えていることだと思う。これから大学に入るための志望理由書に「なぜ日本に来たのか、なぜ他の国ではなく日本に留学したのか」を作成する部分があるが、自分より年上の人や年下の人よりも楽に書いた。正直周りの人は、「なぜ日本に来たのか」の質問に答えられず、普通は「日本に行こう」という気持ちだけで始めると思う。「きっかけはあまりな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留学をするにはきっかけがあると思えますけど、留学を日本にしようとするときにはきっかけ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留学しようと思ったら日本が見えたって感じですか」。

#### ◇ 日本での生活 ◇

日本での生活は大体の部分には満足している。韓国と日本の教育方法や文化に違いがあること、また、日本の友達と会って、居酒屋などに行ったりしていることはとても満足している。日本人の友達と話しているうちに韓国では気付かなかったことを感じられるからだ。しかし、日本に来る前に思っていたより日本人と友達になる機会はなかなかなく、韓国人同士だと街に出掛けることもないので日本文化に接する場面も少ない。さらに、生活そのものは「学校に来て、料理を作って、自分で食べる、寝る」と韓国にいた頃と同じという感じがしてしまう。

#### ◇ 将来の目標 ◇

今の目標は、まず11月にある日本留学試験を受け、大学に進学することである。日本の大学でも、韓国で通っていた経営学部と同じく経営学を専攻として勉強しようと考えているが、その理由は自分のロールモデルであるおじの影響が大きい。

おじは韓国で有名な企業の経営者で、家族が病気などの大事なときに何でもできる感じがする。男として、愛している人に何かをしてあげるとしたら、正直いって、心だけじゃなくて本当に何かをしてあげる。本当にそうしたいから、それができる人になりたかった。幼いごろからおじを見ながら自分もおじのようになりたいと思った。おじからは「会社に来い」と誘われているが、自分でその会社に入る力を持ちたい。韓国でC大学に入ったのも、日本に来るのを許してもらったためでもあったが、C大学を卒業したら、七光りではなくおじの会社に入る資格が自分にもあると言えると思えるからでもあった。今後日本で大学を卒業し、就職もして、本当に自分の力だけの可能性を試してみたい。日本の経営方法のよい点を学び、韓国の会社でいかしてみたい。

#### <インタビュー 67>

#### NTさん(20代・男性)「夢はバラエティ番組のプロデューサー」

2011年9月7日、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在籍、日本在住9カ月  
インタビュアー：武田里子

#### ◇ 略歴 ◇

NTさんは、1986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自営業の両親と大学生の妹、そして祖母(75歳)の5人家族。NTさんが高校を卒業した後、両親の仕事の都合でソウルから車で1時間ほどのチャンピオンに移った。NTさんにはバラエティ番組のプロデューサーになりたいという夢があり、放送系の大学を受験した。問題は、放送系は有名校とその他の大学との格差が大きく、NTさんが合格したのは後者の方だったことだ。このため、もともと就職に役立つ経営学部に進学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た両親との折り合いがつかず、大学進学は断念することになった。

NTさんは、まず、2年間の兵役を終わらせることにした。その間に気持ちが変わるかも知れないと思ったが、夢を追いかける気持ちは、より強くなった。しかし、韓国で放送系の大学に進学したいと言っても、両親の了解が得られそうになかった。そこで、じっくりと夢の実現に向けて動き出す。まず、サービスエリアで店舗経営をしている両親の仕事を手伝うことにした。それと並行し



て日本語学校に通い、放送アカデミーで資料を集めた。留学先は、アメリカやフランスも選択肢として考えたが、最終的に日本に決めた。理由は韓国のバラエティ番組は、日本のバラエティ番組がベースになっているからだ。放送分野の勉強ができる日本の大学では、N大学芸術学部が一番有名だということも分かった。1990年に、韓国の放送局 SBS が開設される時のプロデューサーや技術、編集、エンジニアなどのスタッフのうち、約7割がN大学芸術学部の卒業生だったという情報も掴んだ。両親の説得材料になると思った。

大学進学を断念してから7年目の2011年1月、NTさんは、ついに、夢を実現する第一歩として日本留学を果たした。現在は、新宿にある日本語学校で日本語をブラッシュアップしながら、12月のN大学受験に向けて準備の真っ最中だ。実はN大学の受験は、昨年が続いて2回目になる。昨年は、韓国から来日して直接受験したが、面接で緊張してしまい、上手く受け答えができずに不合格になってしまった。今年こそは合格したい。

#### ◇ なぜバラエティか ◇

NTさんの父親は電機屋を営んでいた。そのため、NTさんはもの心ついた頃からテレビをみて育った。日本文化が開放されたのはNTさんが小学校高学年の頃だった。ドラえもんやドラゴンボール、クレヨンしんちゃんなどを読んだ。当時、子どもたちにもっとも人気のあったのがクレヨンしんちゃんだった。小学生にとっては少しエロチックな内容が含まれていて、両親に隠れて読むスリルもあった。テレビで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高校に入るころだった。

NTさんは日本のマンガには親しんでいたが、高校生になるまで、日本自体に興味があったわけではない。NTさんが日本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ネットで偶然見た日本のバラエティ番組がきっかけだった。番組はダウンタウンの「ガキの使いやあらへんで!!」だったと思う。エピソードがとても面白くて、それから「スマスマ」など日本のバラエティ番組をよく見るようになった。最初は韓国のバラエティに似ていると思ったが、間もなく、それは反対で韓国のバラエティが日本の真似をしていることに気がついた。日本人が「冬ソナ」にはまったのは、日本の一昔前の純情ものに似ているところに中高年の女性が共感したからだと言ったことがある。それなら、逆に日本のバ

ラエティ番組を学んで、韓国向けにアレンジ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日本への留学のアイデアが浮かんだ。

韓国のテレビドラマは、「冬ソナ」の後、同じような路線が続き、少し視聴者に飽きが出てきた。すると今度は、「イタズラなkiss」とか、「花より団子」などコメディタッチのドラマが増えた。こうした傾向に対して、現実とドラマのギャップが大きすぎることや、倫理的にみて問題があると批判する人たちもいる。例えば、シングルマザーの現実を無視したコミカルな描き方など。NTさんは、売ればいいと刺激的なものに走ってしまう傾向は問題だと考えている。一方で、自分がプロデューサーになったとき、同じことを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も感じる。

#### ◇ 日本のこと、家族のこと ◇

NTさんの高校では、フランス語、ドイツ語、日本語から第二外国語を選ぶことができた。選択の割合は、8割が日本語、ドイツ語とフランス語が各1割だった。NTさんはドイツ語を選んだ。理由はテストが一番やさしいと言われていたからだ。日本語を選ぶ生徒が多いのは、他の言語に比べると、韓国語と日本語は文法が似ていて、単語も似たものがあるので、学びやすいと感じるからだ。もちろん、日本文化の影響もある。

友だちはみんな日本のアニメが大好きだった。「モーニング娘」が好きな人もいた。「サザンが好き」、という少し大人の感じがした。韓国の若い世代で「スマスマ」を知らない人はいない。ジャンル系ドラマはとても人気がある。韓国で流行ったものが日本で流行ったり、日本で人気があるアニメやドラマは韓国でも流行るので、日本で勉強すると可能性が広がる。

とはいえ、お金のかかる留学を勧める親は少ない。NTさんは、両親が留学を認めてくれた理由を次のように話してくれた。最初に親とは喧嘩してしまったが、じっくり準備して、その喧嘩に勝ったからだという。それに加えて、父が日本を高く評価していたことが大きい。父は、「先進国で勉強したら何とかなるんじゃないか」、とってくれたようだ。母は昔からいつも、「お前がしたいことをした方がいい」、と言ってくれる人だったが、父は現実的で、趣味を仕事にすると幸せになれないと考える人だった。

でも、振り返ってみると、10年くらい前から父

親は少しずつ変わってきたように思う。たとえば、昔はテレビはニュースしか見なかったのに、最近、「少女時代」などアイドルが出る番組も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父だけでなく、「少女時代」には年配の男性ファンも多い。韓国でも親の世代がやっと文化を楽しめるようになってきたのだと思う。きっかけは、IMF 危機（1997年）だった。IMF 危機のあおりで、父の経営していた電気屋は倒産してしまった。生活をどうするのかという問題に直面したとき、まず、母が結婚前の准看護婦の経験を生かして、いとこの病院で働くことになった。父もいとこのサービスエリアの店で働き始めた。父はそこで仕事を覚えて、後に独立した。その開業資金には、母が生活を支えながら蓄えた貯金も含まれている。こうした厳しい経験があったので、父が現実的な選択をしるというのも理解できる。NT さんも子ども心に、IMF 危機の時の混乱は覚えている。当時、韓国では国民が国の財政を助けようと全国的な寄付活動が起こり、NT さんの家でも大事にしていた指輪などを寄付した。今思うと、もったいなかった気がする。

NT さんには、生きていけば 80 歳位になる日本語の話せる叔父がいた。でも、その叔父は、なぜか昔の話をしたがらなかった。この年代の人たちは、植民地時代に日本語で勉強をさせられたので日本語が話せる。でも、それがすぐに反日感情と結びつくかということ、そうでもない。たとえば、韓国で NT さんが日本語のプリントを見ていると、年配の人に日本語で「日本の方ですか？」と声をかけられることがあるという。そういう時のおじいさんたちの表情からは、懐かしいような、幸せそうな印象を受ける。韓国人は愛国心が強く、時として、他の国を差別したり、自分の国が一番だと考えがちになる。NT さんは愛国心を大切にしながら、他の国の人たちとも上手く付き合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考えている。

#### ◇ 日本人との距離感がつかめない ◇

NT さんには、日本で相談に乗ってもらえる韓国人の友だちが 4 人いる。3 人は早稲田大学で、1 人は日本語学校で学んでいる。1 月に来日してアパートを見つけるまでの 1 カ月間はそのうちの 1 人のアパートに泊ってもらった。初めて受験のために日本に来た時、東京駅で迷子になり、その時、通りかかった日本人からとても親切にされたので、日本人はなんて優しいんだろうと思った。でも、

暫く暮らしてみて、この印象は少し変わり始めている。優しいんだけど、どこかで何か線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そこを踏み越えると冷たくされてしまうような感じがする。最初は「日本語上手ですね」って誉めてくれるが、何を聞いていいかは、顔を見て判断しないといけなような、日本語がまだ上手じゃないからかもしれないが、線を引かれるような瞬間がある。

礼儀についても、まだ戸惑うことが多い。おじぎの仕方もいろいろあって覚えきれない。これは話してもいいけど、これは話してはダメという暗黙のルールみたいなものが、まだ、つかめない。たとえば、先生と別れるときは「お疲れさまでした」ではなく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言うことなど。韓国にもいろいろな決まりごとがあるが、日本の方がかなり厳しい気がする。

今の目標は、とにかく、大学に入ることだ。授業の後は、毎日、自習室で 5 時くらいまで勉強している。息抜きは、友だちとネットで話したり、ゲームをしたりするくらいだ。食事も、だいたい自分で作る。チゲとかカレーとか簡単なものが多いので、わざわざ食材の調達に大久保に行くことはほとんどない。アパートの近くにある西友で韓国のラーメンを買うくらいで、あとは、日本のもので間にあわせている。

NT さんからは、このプロジェクトの報告書を読んで、「みんな頑張っているんだなあ、ビックリするくらいしっかりしていて自分も頑張らなくちゃと思った」とコメントが寄せられた。

#### <インタビュー 67 >

#### NT さん (20代・ 남성) 「장래희망은 오락프로그램의 프로듀서」

2011年9月7日、서울출신  
일본어 학교 재학생、일본체제9개월제  
인터뷰 담당：타케다 사토코

#### ◇ 약력 ◇

NT さんは 1986 年に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과 대학생인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 (75세), 5인 가족. NT さんは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의 일관계로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양평으로 이사했다. NT さんは 오락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방송계 대학에 시험을 쳤다. 문제는, 방송계열 대

학은 유명한 학교와 그외 다른 대학과의 격차가 컸고, NT씨가 합격한 학교는 후자인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었다. 따라서, 원래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경영학부에 진학하기를 기대하신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은채, 대학진학을 단념하게 된다.

NT씨는, 우선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기로 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꿈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강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방송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해도,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차분하게 꿈의 실현을 향해서 움직였다. 우선은, 휴게소에서 점포를 경영하시는 부모님의 일을 돕기로 했다. 그것과 병행해서 일본어 학교에 다니며, 방송아카데미에서 자료를 모았다. 유학처는 미국이나 프랑스도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으로 정했다.

이유는 한국의 오락프로는, 일본의 오락프로가 토대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방송분야의 공부를 할수 있는 일본의 대학에서는, N대학 예술학부가 가장 유명하다는 것도 알았다. 1990년에 한국의 방송국 SBS가 개설될 때, 프로듀서와 기술, 편집,엔지니어 등의 스태프들의 약 7할이 N대학 예술학부의 졸업생이었다는 정보도 얻었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재료가 되리라 생각했다.

대학진학을 단념하고 나서 7년째 2011년 1월 NT씨는 드디어 꿈을 실현할 첫걸음으로서 일본유학을 하게된다. 현재는 신주쿠에 있는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갈고 닦으며 (brushup), 12월에 있을 N대학 수험을 위해 한창 준비중이다. N대학 수험은, 작년에 이어서 2번째이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직접 와서 시험을 쳤지만, 면접에서 긴장한 나머지, 질문에 잘 응답하지 못한채 불합격이 되고 말았다. 올해는 꼭 합격하고 싶다.

#### ◇ 왜 오락프로인가 ◇

NT씨의 부친은 전기상을 경영했다. 따라서, NT씨는 어릴때부터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랐다. 일본문화가 개방된 것은 NT씨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다. 도라에몽, 드레곤 볼, 크레용 신짱 등을 읽었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이 크레용 신짱이었다. 초등학생에게는 조금 에로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모님 몰래 숨어서 읽는 스킬감도 있었다. 텔레

비전에서 볼수 있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즈음이었다.

NT씨는 일본 만화에는 친숙했지만,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일본 자체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NT씨가 일본을 의식하게 된 것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일본의 오락프로가 계기였다. 프로그램은 다운타운의 「가끼노 쓰까이야 아라헨데!!」 이었던거 같다. 에피소드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때부터 「스마스마」 등 일본의 오락프로를 자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오락프로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후, 그것은 반대로, 한국의 오락프로가 일본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인이 「겨울 소나타」에 빠진 것은, 일본의 한세대 전의 순정물에 닮아있어서 중년여성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의 오락프로를 배워서, 한국식으로 변형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본으로의 유학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겨울 소나타」뒤에도, 같은 노선이 계속되어져서, 시청자들이 조금 지겨운 감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난스런 키스」라던지, 「꽃보다 남자」등 코메디 터치의 드라마가 늘었다. 이런 경향에 대해, 현실과 드라마의 갭이 너무 큰 것과, 윤리적으로 볼때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싱글맘의 현실을 무시한 코믹한 묘사등. NT씨는 팔리면 된다는 자극적인 것에 치우쳐버리는 경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자신이 프로듀서가 되었을 때, 똑같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낀다.

#### ◇ 일본에 관한 것과 가족에 대한 것 ◇

NT씨는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에서 제 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선택의 8할 정도가 일본어,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각 1할 정도 였다. NT씨는 독일어를 선택했다. 이유는 테스트가 가장 쉽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다른 언어에 비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이 비슷하고, 단어도 비슷한 것이 있어서, 배우기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문화의 영향도 있다.

친구들은 전부 일본 만화를 아주 좋아했다. 「모닝구 무스메」를 좋아하는 이도 있었다. 「사장」이 좋다고 하면 조금 어른스러운 감이 있었

다.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 「스마스마」를 모르는 이는 없다. 자니즈 계의 드라마 또한 인기가 있다. 한국에서 유행한 것이 일본에서 유행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만화나 드라마는 한국에서도 유행하기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 가능성이 넓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드는 유학을 권하는 부모는 적다. NT씨는 부모님께서 유학을 인정해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싸우게 되어 버렸지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에 더해서, 아버지가 일본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 컸다. 아버지는 「선진국에서 공부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주셨다고 한다. 어머니께서는 옛날부터 항상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지만, 아버지는 현실적이고, 취미를 직업으로 하면 행복해질수 없다고 생각하던 분이셨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10년정도 전부터 아버지는 조금씩 변해온 것 같다고 한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텔레비전은 뉴스 밖에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소녀시대」등 아이돌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보게 되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소녀시대」에는 연배의 팬들도 많다. 한국에서도 부모님 세대가 드디어 문화를 즐길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계기는, IMF위기 (1997년) 였다. IMF위기의 부채질로,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던 전기상은 도산했다.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에 직면했을때, 우선 어머니께서 결혼전의 중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사촌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아버지도 사촌의 휴게소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일을 익혔고, 뒤에 독립했다. 그 개업 자금에는 어머니께서 저축해두신 저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힘든 경험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신것도 이해가 된다.

NT씨도 어린 마음에, IMF위기 때의 혼란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재정을 돕기위해 전국적인 기부활동이 일었고, NT씨 집에서 소중히 여겼던 반지등을 기부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웠다는 생각도 든다.

NT씨는, 살아있었다면 80세 정도 되시는 일본어를 말할 줄 아시는 숙부님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숙부님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그 연배의 분들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어로 공부를 했기에 일본어를 말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반일 감정과 결부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예를들면, 한국에서 NT씨가 일본어 프린터를 보고 있으면, 연배의 분들이 일본어로 「일본 분 이신가요?」라고 말을 걸어 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럴적의 할아버지들의 표정에는 그리운 듯한, 행복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한국인은 애국심이 강해서, 때로는 다른 나라를 차별하기도 하고, 자신의 나라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NT씨는 애국심을 소중히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잘 사귄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일본인과의 거리감이 잡히지 않는다 ◇

NT씨는, 일본에서 상담 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4명 있다. 3명은 와세다 대학에서, 1명은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1월에 일본에 와서 아파트를 구하기 까지의 한달간 그 중 한 사람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처음 수험을 위해 일본에 왔을때, 동경역에서 길을 잃고, 그때, 지나가던 일본인으로 부터 아주 친절히 도움을 받았기에, 일본인은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살아보고는, 그 때의 인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친절하지만, 어딘가 무언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것을 넘어서면 냉정하게 대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처음에는 「일본어 잘 하시네요」라고 칭찬해 주지만, 무엇을 물어야 좋을지는 얼굴을 보고 판단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일본어가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긋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예의에 대해서도, 아직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인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전부 외울수도 없다. 이것은 얘기해도 되지만, 이것은 이야기 하면 안된다는 암묵의 룰 같은 것이, 아직은 잡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선생님과 헤어질 때에는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등.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정해진 것이 있지만, 일본이 더욱 엄격한 것 같다.

이번의 목표는, 아뭏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업 후에는, 매일 자습실에서 5시 까지 공부한다. 휴식으로는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이야기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정도다. 식사도

대체적으로 스스로 만든다. 찌게나 카레 같은 간단한 것이 많아서, 일부러 식재료를 구하러 오오쿠보에 가는 것은 거의 없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이유에서 한국라면을 사는 정도로, 나머지는 일본의 것으로 임시변통하고 있다.

NT씨로부터는, 이번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읽고, 「모두들 분발하고 있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제대로 하고 있어서, 자신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코멘트를 받았다.

<インタビュー 68>

### PJさん(20代・女性)「司書として就職、でも本当にやりたいことは別にあった」

2011年9月9日、ソウル出身  
 日本語学校在籍、日本在住11カ月  
 インタビュアー：武田里子

#### ◇ 略歴 ◇

PJさんは、1987年にソウルで生まれた。家族は、会社員の父と専業主婦の母、そして大学生の妹の4人家族。父は釜山の出身で、母も釜山近郊の出身なので、親族の多くは釜山に住んでいる。物静かな印象のPJさんは、毎日学校が終わると、まっすぐ家に帰る真面目な高校生だった。大学は希望していた大学に入ることができず、司書の資格を取るための専門学校(日本の短期大学に相当)に進学した。小学校の頃から本を読むことは好きだったものの、司書の勉強をすることにな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とはいえ、そこは真面目な性格なので、しっかり勉強して司書の資格をとり、卒業と同時に市立の図書館に採用された。就職が難しい中で採用されたのだから、これで満足すべきだったかもしれない。ところがPJさんはこの図書館を数カ月で退職してしまった。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ことは、日本語の勉強だという気持ちを抑えられなくなったのだ。その後、PJさんは日本留学に向けて動き始めた。これは、PJさんが初めて、自分の意思で自分の人生の軌道修正をする試みだった。

2010年10月に来日し、現在は、新宿にある日本語学校で専門学校への入学準備をしている。最初の3カ月間は留学生の寮に入り、その後、アパートで一人暮らしを始めた。何もかもが初めての経験だった。

#### ◇ 日本語との出会い ◇

PJさんが日本について知るようになったのは、読書を通じてだった。小学生の頃からよく本を読む子どもだった。好きな作家は、東野圭吾。その他にも村上春樹や吉本ばななの本などを読んだ。将来の夢の一つとして翻訳家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韓国の人たちにもっと日本の作品を読んでほしいという気持ちからだ。自分で韓国の人たちに紹介したい作品を見つけて、翻訳して、そして、多くの人たちが読めるようにできたらいいなあと思う。

日本語は、中学の時に特別活動で少し勉強したが、本格的に勉強したのは、高校に入ってからだ。PJさんが通った高校では、第二外国語で日本語かフランス語、中国語を選択できた。生徒に一番人気があったのは日本語だった。PJさんも日本語を選択した。しかし、先生が韓国人だったため、授業は教科書を使った文法が中心で、会話の練習はほとんどなかった。高校を卒業した後も日本語の勉強は一人で続けていたが、読書が中心だったので、日本語は読めるけれども話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ジレンマをずっと感じていた。

PJさんが高校生になった頃、日本のドラマをテレビで見られるようになり、日本語はより身近なものになった。PJさん自身は、日本の芸能人で特に好きなタレントや歌手がいるわけではないが、高校生の頃みた中では、題名は思い出せないが、窪塚洋介が出演していた倫理的な内容のドラマが印象に残っている。

#### ◇ 日本留学まで ◇

PJさんは、働き始めて、初めて、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ことは、大好きな日本語の勉強をもっとしたいのだ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語学は勉強しないとどんどん力が落ちていく。それに加えて、長い間、日本語の勉強をしてきたのに、会話ができないことがずっと気になっていた。上手に話せるようになりたい。そのためには日本に留学して、日本で生活しながら勉強すれば会話力もつくはずだ、という思いが日に日に強くなっていった。

日本への留学は、誰にも相談せずに自分一人で決めた。しかし、留学資金のことなどを考えると、両親に許可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恐る恐る母に相談すると、母からは「留学して、韓国に戻ってきて何するの?」と言われてしまった。PJ

さんの家では、子どものことに関しては、父親よりも子どもと一緒にいる時間が長い母親が決定権をもっている。最近では、どこの家でも父親の力はあまり強くないので、PJさんの家が特別だという訳ではない。ところがこの留学については、思いがけず、あっさりと「自分でやりたいことをやったらいい」、と父が言ってくれて、母からも了解を得ることができた。ありがたかった。どこの家の親も、最初はダメだと言っても、最後は負けるというか、子どもの気持ちを尊重してくれることが多いように感じる。

PJさんは両親から留学の許可をもらうとすぐに、留学院で情報を集めるなど、留学の準備を始めた。PJさんは、昨年10月に来日するまで一度も来日経験がなかった。親戚の中に日本留学をした人もいない。父方のいとこが一人、日本に行っていたことがあるという話だったが、その人とは付き合いがないので、身近に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る人がいなかった。でも、今は、日本に留学するのに必要な学校の情報や宿舎の手配まで、すべて韓国で済ませることができる。PJさんは最初の3カ月間、留学生宿舎に入ったが、そこでは初めて来日する学生のために、羽田空港まで出迎えてくれるサービスもある。

#### ◇ 日本での生活 ◇

PJさんは、留学費用を両親からすべて負担してもらっているのだから、アルバイトをせずに、勉強に専念できる。ありがたいと思う。その分、しっかり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毎朝7時過ぎにアパートを出て、9時からの授業に出席し、授業の後夕方まで自習室で勉強して帰宅する毎日を送っている。

日本に来てから、ホテル関係の仕事にも関心をもつようになった。そろそろ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が、通訳・翻訳の専門学校とホテル関係の専門学校のどちらに進むかまだ迷っている。ホテル関係であれば日本語能力試験は2級でよいが、通訳・翻訳の場合は1級が必要だ。7月に1級の試験を受けたが、読解の点数が足りなくて合格できなかった。12月に再チャレンジする。

PJさんは、まだ、日本には相談できる人がいないので、迷ったり、困ったりしたときは、韓国の両親や妹に相談する。留学して、親の存在の大切さを改めて感じている。週1回の割合で電話かインターネットで連絡をする。そのたびに、両親は、

「不便なことはないか、大変なことはないか」、と心配してくれる。7月には、両親と妹が会いに来てくれた。初めて来日した家族のツアーコンダクターとして東京の観光スポットを案内し、ディズニーランドにも連れて行った。両親は、アパートの部屋の狭さに驚いていたが、娘の東京での生活の様子が分かり、安心した様子で帰っていった。

PJさんが日本に来て、心臓が止まるかと思うほど驚いたのは、ゴキブリがでてきたことだ。アパートはそれほど古くはないのに、どうしてゴキブリが出てきたのか分からない。韓国ではゴキブリに出くわしたことがなく、しかも、夜中のことだったので、捕まえることもできず、その夜はなかなか眠れなかった。翌日、さっそく、スーパーで「ゴキブリホイホイ」を買ってきた。それが利いているのか、最近では出てこなくてホッとしている。

来日して間もないころ、韓国との違いを感じたのが、コンビニの店員さんの対応だった。とても親切で、しかもどこのコンビニに行っても同じように丁寧に対応してくれるのがすごいと思った。一方で、不思議なことは、テレビドラマを見ている時に一番盛り上がっている場面でCMが入ること。PJさんは東野圭吾が好きなので、サスペンスドラマをよく見る。場面が盛り上がり怖くなる瞬間にCMが入ってしまうので怖い気持ちが消えてしまう。ドラマの展開からいっても効果が半減してしまうのに、どうしてこういうCMの入れ方をするのか不思議に思う。

#### ◇ 将来 ◇

PJさんは、母親が専業主婦の家庭で育った。家に帰ればいつも母がいた。でも、自分たちの世代は、共働き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る。就職難も含めて、経済的に共働きをしなければ生活できない。まだ、具体的に考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いつか結婚するだろうと思う。母の世代は25歳位までに女性は結婚する人が多かったが、最近では、30歳ぐらいになると「そろそろ」、とプレッシャーがかけられるようになる。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やろうとすると、結婚する時期はどんどん遅くなる。それはしょうがない。将来共働きすることを前提にすると、男性にも、最低限、自分の身の回りのことは自分でして欲しい。これからは、男の人でも家事ができないと困る。それに加えて、性格的には優しい人がPJさんの理想の男性像だ。

まずは、進路を決めなくてはならない。受験する学校を絞り込むために、インターネットで情報を集めたり、日本語学校の先生に相談したり、オープンキャンパスにも参加している。来年4月に、ホテル関係か翻訳・通訳の専門学校に入り、できたら日本で何年か仕事をしてみたいと思っている。

進学先が決まって、落ち着いたら、日本各地を旅行してみたい。実は、PJさんは、まだ東京都内から出たことがないのだ。

## <インタビュー 69>

### Iさん(40代・男性)「デザインを学ぼうと来日」

2011年9月11日、釜山出身  
会社員、日本暦17年目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 日本語学校から大学に進学 ◇

1970年ソウル生まれ3人兄弟の長男のIさんは高校卒業後兵役の終え、大学進学を考えていたが留学に方向を変えた。大学ではデザインを勉強したかった。当時東京がデザイン界では世界的な中心地であこがれだった。高校の時から日本の歌を歌ったり、漫画も読んでいた。仕事関係で日本と関わりがあった親戚のおじさんに日本留学を勧められたこともあって日本に来るようになった。韓国で親しく往来していた親戚の中にはアメリカや日本などに留学する人も多く、いとこが何人も留学していたので自分も行きたいと思っていた。当時は外国生活があこがれだった。今もいとこの1人が日本に住んでいる。

そして1994年に日本語学校に入って留学生活が始まった。来日前に当時付き合っていた妻と結婚して一緒に来日した。日本語学校に通い、入試を準備して2年後に夫婦がともに大学に入学して広告デザインを専攻した。学費と生活費は奨学金、アルバイト、それぞれの親からの援助などでまかされた。

#### ◇ 卒業後日本で就職 ◇

2000年に大学を卒業して日本で就職した。当初は卒業したら帰国するつもりだったが、通貨金融危機で韓国の状況が急変し、父の事業もダメになった。父も帰国しないで日本での就職を勧めたので、方向を変えた。自分の専攻を生かして広告デ

ザイン業界に就職した。この業界は実技テストで決まるために外国人だから難しいみたいことは経験してない。

就職してから1年位は日本語で苦労した。広告業界で使われる言語は「感性」が求められる。学校で習う単語とは、大げさに言うと50%以上違う。日本語を勉強した時に日本語能力1級もとったし、私なりに日本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は「完ぺきだ」と思っていたが、広告業界では不十分だった。

会社に入ってみたら、みんな週に3日は家に帰らないのが普通になっているほど一生懸命に働いているのを見て驚いた。はじめは言葉の障壁もあったし、働き方も理解できなくて苦労したが今はそれが普通になった。先輩格になってみると1人前になるためには少なくとも1年は「仕事が生生活のような生活も必要ではないか」と思う。

妻も同じ時期に卒業したが子どもができて大学院に進学した。就職してから2年後、自分も大学院に入った。修士を卒業して、違う会社に就職した。デザイン業界は転職が多く2年くらいで動くのは普通。そのあと、独立を試みたが、「まだ時期ではない」と悟ってまた他の会社に就職した。大学院に行ったのも独立したのも、アートに関心があるからだ。自分の仕事をしながら個人的な欲求も満たせる条件が整ったと思ったが時期尚早だった。でもいつかアーティストをやりたいという思いはある。

この業界に入って分かったことだが、広告業界では韓国に対する関心があまりない。それが「冬のソナタ」以後、とくに最近若い人で韓流が好きな人が増えて流れが変わった。主婦は主婦で終わるが、子どもが好きなことを受け入れないと対処できない。若い人が好きになると消費の基本メカニズムが変わるからだ

#### ◇ 日本で働き引退したら韓国に帰る ◇

現役の時は日本で仕事をし、引退してから韓国に帰るつもりだ。今でも帰ることはできるが、子どもを韓国で教育するのが嫌で帰りたくない。周りを見てもそういう意見が多い。子供は二人とも日本で生まれて今まで日本で生活しているが、韓国語に問題はない。上の子は日本の小学校に通ったが高中は韓国学校に行かせ、可能であれば大学は韓国に送ってもいいと思っている。家では韓国語を使い韓国公文もやってきたし、休みになると年2、3回韓国に行ったりしたので韓国語は問題

ない。また教会に行けば同じ年代の友だちも多いので韓国語を使う機会も多い。小さい時は少し混乱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が今は言語を二つできることに自信をもっているようだ。それをみると小さい時に言語を教えるのが良いと思ったりもする。幼稚園に通っている下の子には英語も教えている。

3年前に在留資格を「永住」に変えた。永住権をとっても再入国許可のために3年に1回は入管に行かないと行かないし、空港で指紋を押すのも同じなのであまり変わらない。その時は家を買うためにローンを組もうと思って変えた。違いがあれば、業種に関係なく職業を選べる、自分の事業ができる、他人の保証人になれる、といった程度だろう。現在賃貸に住んでいる。家を買うかどうか悩んでいる。でも考えてみたら賃貸も持ち家も費用面ではあまり変わらない気がする。

人間関係は仕事関係では日本人が多く、プライベートでは教会と地域の韓国人が多い。子供は日本の学校に行ったので日本人の友だちが多いが、自分はプライベートで日本人とかかわる機会はほとんどない。

#### ◇ 新大久保について ◇

日本語学校に通っている時は韓国料理を食べに良く行った。大学に入学してから遠くなったのであまり行けなくなったが、仕事を始めてからはたまに同僚と行く機会がある。そのまちを10年以上みてきたが、10年前までは成功したと聞いたことがなかったが、この数年急成長したような気がする。個人的には韓国料理の選択肢も増えて良かったと思う。まだ値段が高くてもクレジットカードが使えない店が多いのは不満だが、以前に比べてきれいになったし良くなった。だが、いまは飽和状態になって、最近は中国人も増えている。もっと高級にしたいと思っている人もいると思うが、今の状態では不可能だ。そうなると移してやってみたいと思う人が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埼玉や千葉など広い所にもっときれいにしてコンサートとショッピングを合わせたモールみたいなものができる可能性もある。金になることがわかったので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も考えられる。新大久保がなくなることはないと思うが何か変化が起こる可能性はある。

<インタビュー 70>

## PGさん(20代・男性)「幼少期と比べて想い出深い場所、新宿区」

2011年9月12日 大田出身、大学4年生  
来日歴：2回、合わせて13日目  
インタビュー：呉世蓮

#### ◇ 略歴、家族 ◇

PGさんは現在、C大学の都市環境学科4年生で、土木工学について勉強をしている。彼の来日歴は2回である。3歳の時に父親の留学とともに両親と来日し、小学校4年まで日本に住んでいた。その後、日本の大学へ留学するために20歳の時に再び来日した。二回目に来日して5年目になるのだ。3歳で来日した当時は、引っ越しが多かったという。最初は筑波の茨城で6ヶ月間居住していた。そのあと、練馬区の北町、新宿区の若松河田、調布に住んでいたという。大学に進学とともに、二回目の来日の時は、品川に住んでいるおばさんの家でしばらく一緒に暮らしていた。その後、一人暮らしを始めるために、西武新宿線沿いのところと、北区、そして現在住んでいる練馬区に移ってきたという。

PGさんのお父さんは、現在、韓国の大学の教授だ。脳や人間工学などにより、人をどうやって楽にさせるかについて研究をしている。そしてお母さんと、PGさんと10歳年下の妹さんがいる。PGさんの家族は日本によく行き来するようだ。「僕の家族は日本の東京に来るのは、隣の町に行く感じです。父が学会のため東京に来る時、朝起きて、大した準備もせず、『行って来ます』という感じですが、ソウルや釜山に行く時の方が、いろいろ準備したりする感じです。(笑)」

#### ◇ 再来日のきっかけ ◇

いろいろな総合的な理由があったとPGさんはいう。「防災、水関係のこと、土木関係は日本が世界で一番優れて、あと、昔住んだこともありまして、日本で学ぼうと思いました。」そのなかで、一番大きな理由は、都市関係の整備などについて勉強をしたかったからだ。

#### ◇ 日本の印象への変化 ◇

一回目と、二回目の日本に来た理由は大きく異なる。最初は父親の留学のために来日したが、再来日はPGさん意志で来たのである。最初と、二回目の来日によって、日本の印象はそれほど大き



く変わらないが、「ただ、物心がつく前と、物心がついてから、韓国に帰ったのですが、みること、きくこと、感じるものが違うといえますか...」という。彼は日本の大学入試のために実家の大田から離れて、6ヶ月間ソウルで一人暮らしをしていた。その時、一番感じたのは、「散歩したりすると、空気とか、公害のせいで頭が痛くなったり、これがふつうかなーと思いきや、東京にきたら、人が暮らせるような空気。すごいと思ひまして。建物の線がくっきり見えるのが違うかな...」。

そしてもう一つ、日本と韓国における違いがあるという。「僕は日本の小学校に通い、当時歴史教育はなかったのですが、テレビの番組をみても90年代には韓国についてあまり出なかったです。そのなかで、いわゆる豊臣秀吉、伊藤博文について、僕が日本にいた時は、こんな感じなんだと思ひましたが、韓国に帰って歴史を習い、日本と韓国における歴史の認識が違いすぎることに驚きました」。物心ついてからの日本と韓国の違いに戸惑いを感じたようだ。

#### ◇ 新宿区との思い出 ◇

PGさんは初めて来日した頃を思い出しながら、当時の話をしてくれた。「僕が思う新宿区は、13年前とだいぶ変わったと思います。自分が住んでいたところがなくなったこと。もっと、残して頂きたいです」。彼は、新宿区の東京女子医大学付属病院近くの東京韓国国际学校に通って、この周辺に住んでいた。「今のフジテレビは お台場にありますが、1995年は、その辺にフジテレビ本社がありました。この前行ってみたら、町が変わって、昔住んだアパートがなくなり、合気道も習っていましたが、その道場もなくなっていました。流動人口が多いですが、住宅街も多くて面白い街です」という。前に住んでいた家がなくなり、また、家族のお気に入りのレストランもなくなったので、今は、思い出しか残っていないというPGさんの顔の表情が寂しく見えた。

また、「フジテレビの場所がマンションになったり、そこにフジテレビあったということは日本に住んでいるひと知らない人が多いですので、僕は知っているよという感じです(笑)」と、PGさんは、過ごした場所に対する懐かしさや自分の幼少期の思い出深い場所について語ってくれた。

#### ◇ 人間関係 ◇

PGさんは現在、学部4年生だが、毎日研究室で過ごしている。研究室の先生や先輩(大学院)の実験を手伝いながら、色々学んでいるという。「普段は、研究室にずっといます。実験の手伝いをやったり、僕は現在卒論を見送っていますが、手伝いによって、色々な実験の様子をみて、学んだり...。研究室の実験とか、論文のテーマに全部関わって、研究生やっている人とか、公務員講座とか研究室でやっておりまして、お手伝いです。問題作りや、いろいろな研究室のことに携わっています」。

PGさんの研究室には韓国人がなくて、日本人の友達と交流する時間が多いようだ。日本と韓国の友達の違いについて「みんな、男ですが(笑)、学部の性格から、男性しかいないです。お酒を飲むとみんな同じです。みんな女の子を求めています(笑)。あ、だいたい、お酒を飲むとつぶれないことですが。日本の友達つぶれるために飲む感じですが。そこまで飲まなきゃいいじゃん。空気読むと飲むしかないとか、言われるのですが、空気読むのと違うよと思います。(笑)」と言いながら、さらに、飲み会の時の日本人の友達と韓国人の友達の違いを語ってくれた。「日本と韓国の飲み会はやはり違って、韓国は一回、飲みだすと、止まらないくらいで。ちなみに僕は男子校出身ですので(笑)。ま、そんな感じですが、日本は夜11時になると、帰ろうとか。終電のことで。実家とひとり暮らしによって違いますが、そろそろ帰ろうという感じを出す人が多いです。韓国の地元はずっと飲むのですが、あと、飲み方がちょっと違う感じですかね。日本はビールだけですが、韓国はチャンポンです(笑)」という。

#### ◇ 将来について ◇

将来は日本で暮らすか、韓国で暮らすかについて悩んでいるものの、まず、博士学位をとってから、決めたいという。彼が所属している研究室は、河川水門研究室というところで、主に水循環に関する研究である。「雨が降り、川、海に流れていくなかで、この前の、3.11津波、ゲリラ豪雨、台風など、どうやって被害を少なくするか、に関する土木工学を学んでいきたいです」とこれから、深めていきたい学問について語ってくれた。

しかし、彼はまだ、韓国の兵役を終えていないため、来年か再来年頃には一度韓国に帰り、軍隊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韓国の軍隊に行

かなくちゃいけないですので、その軍に行くことで来年か再来年帰りますが、終わったら戻ってきます」。

#### ◇ 日本に望むこと ◇

PGさんは自分の専門に関わることから、日本社会に望むことについて語ってくれた。

「今回、台風の影響で亡くなった方が多いですが、研究室の先生も話しましたが、日本という国は全都府県に、いわゆる津波、地震、ゲリラ豪雨などが起こりやすい国です。そのなかの被害を最低限防ぐためには、町の長の方々に情報がすぐ伝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今回、なかなかすぐ伝わらず、これは国の法律と関係が深いと思う」という。法律と関係なく、実際の現場では法律上で解決出来ないことも多数あるという。情報というものは法律を超える部分であって、人の命を第一にするべきだと彼は思っている。これはどの国でも同じ課題だという。

#### <インタビュー 71>

#### Cさん(30代・男性)「ニュージーランドでの出会いから日本へ — 韓国料理屋の開店を目指して」

2011年9月14日、ソウル出身  
飲食店ホール長、日本在住8年  
インタビュー担当：堀内康史

Cさんは現在、新大久保駅近くの韓国料理店で、ホール責任者として働く30代の男性である。流暢な日本語を話し、インタビューも日本語で問題なくこなせるほどである。日本人女性と結婚し、来年小学校入学を迎える一児の父でもある。当初の予定とはズレが生じながらも、新たな夢を持ち日本での生活を続ける。

#### ◇ 韓国での生活と海外留学 ◇

Cさんは、ソウルで生まれ育ち、姉2人がいる3人兄弟の長男である。

高校卒業後、1年後に軍隊に入隊。除隊後、父が事故にあったためすぐに働く必要があり、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を起業したり、実姉とともにレストランで営業の仕事をするも、うまくいかなかった。将来のことを考えて、やはり会社勤めの方がいいのでは、と思いはじめ、海外へ行き大学へ

進学しようと計画を立てた。大学を卒業して韓国に戻り大企業とまではいかないまでもどこかの企業に勤めることを考えていた。

#### ◇ 来日の経緯：運命の出会いが進路を大きく変える ◇

Cさんは日本に来る前の2001年に、ニュージーランドで語学学校に通い当地で大学に進学する予定であった。ところが、そこで運命を大きく変える出会いが訪れた。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ニュージーランドに来ていた日本人女性と恋に落ち、彼女が日本へ帰るときに大きな決断をした。ニュージーランドでの学業はあきらめ、彼女とともに生きていく人生を選んだ。その後結婚し、2003年にCさんは日本へやってきた。

当初は、お互いの母国へ行って、相手の言葉を学ぶ予定でいた。最初に日本で暮らして、その次は韓国へ行って、と考えていた。

現在でもCさん自身は、いずれ韓国にもどって生活したいと思っているが、妻が韓国での生活に不安をもち、同意が得られないのが現状である。韓国への行き来は、年に2回ほどで、1回は家族全員で、1回はCさん1人でやっている状態である。

#### ◇ 現在の仕事：韓国料理店のホール長 ◇

現在、新大久保駅近くの韓国料理店で、ホール係の責任者をしている。2005年からこの店で働き始め、現在に至る。

来日当初は、日本の大学に入って勉強することを考えており、最初の1年半は日本語学校に通った。その際、パートタイムで韓国料理店で仕事もしていた。

しかし、子どもができたことをきっかけに、仕事を本格的にする必要ができたため、現在の職場に入った。

#### ◇ 働いていて思う日本文化について ◇

一緒に働いている日本人が4、5人いるが、そこで思うのは、韓国人は「速く速く」と言いながら、動きも速く仕事もよくできる。それに対し、日本人もちろん仕事はできるけれども、ゆっくりだけれどもちゃんと仕事をする、という感じ。

また、客については、日本人のお客は自分は王様だという感じが結構ある。礼儀もなく、丁寧語を使わず、嫌な気分になることがある。韓国人は

そこまではしない。そういう韓国人の客がいたら、韓国人の店員と喧嘩になる。もちろんすべての日本人がそういうわけではなく、たまにということだが。

#### ◇ 日本人との付き合いについて ◇

今は、妻の地元の足立区に住んでいる。ただ、ここでは地域の人との交流というのはほとんどない。日本人の友達もあまりいない。日本にいても友人の付き合いは韓国人との付き合いがほとんど。韓国人となら共通の話題で話もできるが、日本人とはそういう共通の話題があまりないので、友達を作るのは難しい。

#### ◇ 妻との結婚について ◇

日本人の女性と結婚するにあたり、両親からの反対はなく、真面目そうな人というように見てくれて、問題なかった。もし祖父母が生きていたら、反対ということもあったかもしれないが、このときすでに他界しており、家族のなかで反対する人はいなかった。

Cさん自身は日本へいくことについて、特に抵抗はなかった。日本は好きでも嫌いでもなかった。あくまでも妻が好きになったので日本へ来たということである。

#### ◇ 日常生活の中で感じる嫌な行為について ◇

日本において、明確な差別的な行為をされたことはあまりないが、自分が客の場合に、店員が丁寧語を使わないことがよくある。服屋や家電量販店で、店員は丁寧語・敬語をつかわずに、友達みたいな感じになってくる。少し言葉を聞いて、外国人だとわかると、そうなることが多い。私だけでなく、周りの韓国人もみな同じ経験をしている、という話をよく聞く。

#### ◇ 新大久保について ◇

ここは働く場所であると同時に、休みの日も新大久保に来て友人と会ったりしている。一緒に食事したりカラオケに行ったりなどしている。

新大久保にある韓国系のお店は、値段も高く、基本的に日本人向けになっている。サービスのありかたも韓国風のサービス（常連客に特別なサービスをするなど）はしない。今働いているお店も、お客の95%以上は日本人である。韓国人にとって、新大久保のほとんどのお店は高いので、その中で

安い店を探すか、あるいは日本の居酒屋の方が安いのでそちらに行く。

#### ◇ 震災について ◇

3月の震災の後、日本を離れようという話はあった。結局今も残っているのは、妻が自分の両親を残して私だけ韓国に行く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意見があったから。まあ、そうだねと思い、今まで頑張ってきた。でももう一回あったら、どうするかわからない。地震の経験があまりなかったので、こわかった。

地震があったときは自宅にいたが、11階だったせいか揺れは大きく、家の食器の半分くらいは落ちて割れてしまった。片づけるのも大変だった。韓国にいる親は毎日「こっちに来て」と言っていた。地震が止まっても、今度は放射能の問題があって、そういうニュースばかりやっていたので、韓国の親は心配していた。

震災については、パニックになるかと思ったけど、思ったよりみんな落ち着いて生活していることに驚いた。みんな一斉に大阪など関西のほうに逃げるのかと思ったら、ぜんぜん動かなかった。

#### ◇ 将来のこと：親の老後について ◇

ずっと日本にとどま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状況だが、自分は長男で、両親は70歳近くになっており、帰らなきゃいけないかなと思っている。

両親はストレートには言わないものの、戻ってきたらいいな、というような言い方をすることはある。孫にも会いたい様子もある。

日本に来るとき、妻とは年を取ったら韓国で住みましようという約束をしていたが、妻は肯定的な返事をしなくなっている。妻も家族が女二人しかいないという事情もあるのは分かるのだが。

#### ◇ 夢について：日本で果たしたいこと ◇

子どものころの夢は、学校の先生になること。その後、高校生のころの夢は、父が貿易会社に勤めていたこともあり、貿易会社をやることだった。

今の夢は、自分のお店を出したいということ。以前韓国でもレストランをやっていたし、日本での就職も年齢の問題があるので難しく、韓国料理屋を出すことを考えている。でも、日本の景気もよくない。日本の中で一番出店にいいところは、韓流も今すごいので、やはりここ新大久保しかない。ただ、空いている店舗がなく、そういう意味

でも出店するのが難しい。

お店をつくるなら、常連客が中心のお店にしたい。韓国ではよく来るお客さんには、普通以上のサービスを始めたりするが、日本ではそういう特別なサービスはない。これは日本にある韓国のお店でも、日本的になっている。将来出す店は、よく来るお客には特別チヂミを作って出すなど、韓国的なサービスをするお店にしたいと思っている。

<インタビュー 72>

### Jさん(40代・男性)「日韓の間にバウンダリー概念はない」

2011年9月16日、全羅南道出身  
会社経営、日本暦15年  
インタビュアー：ソン・ウォンソク

#### ◇ 放送関係の勉強をしようと日本留学 ◇

1970年韓国南部の全羅南道生まれのJさんは、大学で経営学を学んだあと広告業界で1年半ほど働いた後、放送関係の勉強をしたいという思いから日本に留学するようになった。両親や他の兄弟はみな韓国に住み海外経験もない中、大学を卒業して仕事もしていた自分が日本に行くとしても家族の反対もなく、「やりたいことを一度やってみたら」という反応だった。当時韓国で日本のトレンドイ・ドラマが流行っていて、兄の影響で小学校の時からそれが何かも知らず「ブルーライト横浜」みたいな日本の歌を口荒んだりしていた。1993年大阪にある日本語学校に入って1年間日本語を勉強した後、大阪にある私立大学に入学した。4年間映像に関する勉強をし、卒業した1998年韓国に帰国した。

#### ◇ 外資系の日本支社勤務を契機に再来日、そして独立起業 ◇

帰国後はテレビ・ドラマを制作する会社に就職し、約1年間ドラマ制作の仕事に従事した。そのあと、翻訳ソフトを開発する会社で日本語担当として仕事をした。帰国後、日本語翻訳師の資格をとっておいたのが役に立った。それから外資系の

食品関係の商社に転職した。ところが、仕事をしているうちに会社から日本支店に行かないかと提案されて、2001年に再度日本に来るようになった。それから8年間その食品商社で働いた。

そして、2009年に食品輸入業を中心とする商社を起業し、独立を機に関西から東京に移った。長年商社で働いた経験とノウハウは独立に役に立ったが、扱うアイテムが変わると相手する会社も担当者も変わるので前のネットワークはあまり役に立たず、新たに開拓した。最近韓国に関する関心が高く事業の助けになる。事業を始めた時は自分一人だったが、2年経った現在、二人を雇って「なんとか食べていける」程度になった。今年在留資格を「永住」に変更するつもりだ。あまり変わらないが、融資を受けるのは少し違うと思う。

ビジネスを通してみる日本は少なくとも「21世紀型」ではないように思える。一部では「日本が一番」という認識がある。世の中は変わりつつあるのに、こうした考えを持っている世界がある。食品分野もそうで、だから我々みたいな人が入る余地がある。完璧だと入る隙がないが、不完全な面があるから我々の役割がある。

#### ◇ 子供の教育 ◇

韓国学校に通う小学生と幼稚園児、二人ともに韓国語に問題はない。上の子が幼稚園の時に、家で韓国語ばかり使っていたので外で日本語ができるのか心配したほどだった。でも子どもは問題なく上手に使い分ける。たまに韓国に1ヶ月ほどいくと韓国語がうまくなって帰ってくる。子供の言葉の問題は家で使うと解決できる。せっかくの良いチャンスなのに家で韓国語を使わない人を見ると理解できない。別に「愛国」ではなく、どうして二つのうち一つを逃すのかよくわからない。

小学校入学の時に日本の学校と韓国学校のあいだで悩んだが、教育に関しては韓国も問題が多いが日本も一部名門私立と言われるいくつかを除けば良いと言えない。「韓国学校が良いからではなく、

日本で「マイナリーグ」で生きていくなら、日本の画一的な教育より、将来韓国に行くこともあるだろうし、もっと広い世界に行った方が良いと思って、韓国学校を選択した」。

このように考えたのは関西での幼稚園の経験が大きかった。偶然入った地元の幼稚園が、名門私立中高にいく子がいくところだった。そこは知らずに入ったが、関心のない人なら知らない有名な幼稚園だった。その時は分からなかったが東京に来て、そこが特別なところだったと分かった。この経験から日本に「上流社会」があるのを知った。

#### ◇ 日韓にバウンダリーなし ◇

韓国に「帰る」みたいな概念はもうなくなったと思う。「韓国と日本は一つのバウンダリーの中にあるので、ここを整理して韓国に行く、あるいは韓国にいかないで日本に住むみたいな概念が自分にはない」。ほかの家族は夏休みに1ヶ月以上韓国で過ごす。妻は関西に住んでいた時には韓国にいきたかったが、東京では韓国人の友達も増え以前ほどではないにしても、韓国に行きたがる。

#### ◇ 新大久保について ◇

食品業界にいたので新大久保の変遷は15年くらいみてきた。最近の発展はこの業界からみてとても良いことで、「あり得ない」出来事だ。毎日が「まつり」みたいだ。はじめは横浜中華街に比べて広いと思ったが、今はコンパクトに整理され、良くなっている。しかし「気を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頃は良いイメージが定着しているので、食べ物に不良が出たみたいなことでは崩れない。「文化そのものを壊さないと崩れない。でも一発食われるかもしれない。共存しないとたれる。まず税金ちゃんと納めて、地域社会に貢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やらないとたれる。そこは韓国人だけ生活する世界ではなく、中国人、フィリピン人、日本人などが一緒に住むまちなので、うまくできるかわからないが、共存できる体系を

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

#### <インタビュー 72 >

#### J씨(40代・남성) 「한일간에 바운더리 개념은 없다」

2011년 9월16일, 전라남도 출신  
회사경영, 일본체제15년  
인터뷰: 선원석

#### ◇ 방송공부를 하려고 일본유학 ◇

1970년생 전남출신의 J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광고업계에서 1년반 정도 일한 후에 방송을 공부하려고 일본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부모님과 다른 형제는 한국에 살고 있고 해외경험도 없다. 대학 졸업하고 일하다가 일본에 가려는 자신에 대해, 가족들의 반응도 “하고 싶은 걸 한번 해 보라”였다. 당시 한국에서 일본 트렌드 드라마가 유행했고 형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뭔지도 모르면서 ‘블루나이트 요코하마’를 중얼거리기도 했다. 1993년 오오사카에 있는 일본어학교에 입학해 1년간 일본어를 배운 후, 오오사카에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4년간 영상에 관한 공부를 마치고 1998년 귀국했다.

#### ◇ 외자계 일본지사 근무를 계기로 다시 일본에, 그리고 독립 ◇

귀국 후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에 취직해 약1년간 드라마 제작 일에 종사했다. 그리고 번역소프트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본어 담당으로 일했다. 이 일은 귀국 후에 일본어번역사 자격을 취득한 게 도움이 됐다. 그리고 나서 외자계 식품무역회사로 옮겼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하던 중 일본지점에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2001년에 다시 일본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해서 8년간 그 회사에서 일했다.

2009년에 식품수입업을 중심으로 한 상사를 창업해 간사이에서 도쿄로 옮겼다. 오랫동안 상사에서 일한 경험과 노우하우는 독립에 도움이 됐으나, 취급하는 아이템이 달라지면 상대하는 회사나 담당자도 달라져 이전의 네트워크는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새로 개척해야 했다. 최근에 한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사업에 도움이 된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혼자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두 사람을 고용해서 “겨우 먹고 살

정도”는 됐다. 올해 재류자격을 ‘영주’로 변경할 생각이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용자 받게 좀 다를 것 같다.

사업을 통해서 본 일본은 “21세기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에는 “일본이 최고”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남아 있다. 식품분야가 바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하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 ◇ 자녀교육 ◇

한국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둘 다 한국말에는 문제가 없다. 큰 애는 유치원 때 집에서 한국말 밖에 안해서 밖에서 일본어를 하는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문제없이 둘을 잘 나눠 쓴다. 가끔 한국에 한 달 정도 갔다 오면 한국말이 늘어 온다. 아이들 언어 문제는 집에서 쓰면 문제가 해결된다. 좋은 기회인데 집에서 한국말을 안 쓰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애국”과 관계없이 왜 둘 중 하나 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일본학교와 한국학교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교육에 관해서는 한국도 문제가 많지만 일본도 일부 명문사립이라 불리는 몇 개를 빼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학교가 좋아서가 아니고, 일본에서 마이너에서 살려면, 일본의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장래 한국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계로 가게 낫다 싶어 한국학교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은 칸사이에서 다녔던 유치원의 경험이 컸다. 칸사이에서 우연히 들어 간 동네 유치원이 명문중고등학교에 가려는 아이들이 다는 유명한 곳이었다. 그곳은 모르고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유명한 유치원이었다. 그 때는 몰랐는데 그 곳이 특별한 곳이라는 걸 도쿄에 와서 알았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일본에 ‘상류사회’가 있다는 걸 알았다.

#### ◇ 한일간에는 바운더리가 없다 ◇

이제는 한국에 “돌아간다”와 같은 개념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곳을 정리하고 한국에 간다, 아니면 한국에 안 가고 일본에 산다와 같은 개념이 없다. 가족들은 여름방

학이 되면 한 달 이상 한국에서 지낸다. 아내는 코베에서는 한국에 가고 싶어했는데 도쿄에서는 한국 친구들이 늘어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한국에는 가고 싶어한다.

#### ◇ 신오쿠보에 대해 ◇

식품업계에 있기 때문에 신오쿠보의 변화는 15년 정도 봐 왔다. 이 업계에서 보자면 최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일이 ‘마츠리’ 같다. 처음에는 요코하마의 슈카가이에 비해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콤팩트하게 정리돼서 좋아졌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요즘 좋은 이미지가 정착되서 음식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는지 하는 걸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문화 그 자체가 상처를 입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방 먹을 수도 있다. 공존하지 않으면 맞는다. 먼저 세금 잘 내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 맞는다. 거기는 한국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도 같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インタビュー 73>

#### AKさん(40代・女性)「日本での第二の人生。そして、これから」

2011年9月20日、ソウル出身  
主婦、日本在住約16年  
インタビュアー：渡辺幸倫

今回のインタビューの依頼をAKさんは『こんな人もいる』というのを知ってほしい」という思いで受けてくれた。現在二人の娘と日本人の夫と四人暮らし。休みの日には家族みんなで新大久保まで散歩がてら出かけることもあるらしい。複雑と言えば複雑、大変と言えば大変、幸せと言えば幸せ、一言では言い表せないような半生をAKさんは語ってくれた。

#### ◇ 一度目の結婚 ◇

AKさんはソウルのカンナムの郊外で育った。兄、姉、姉、自分、妹、弟、弟の7人の兄弟姉妹だ。「普通よりちょっと多いかな」と笑う。子どもも多く、「まず息子」という雰囲気もある中、「時代が変わってきて、やっぱり女性もちゃんと学校

に行かせるべきだって事になったので」夜学だが高校まで進学した。昼は縫製工場でいろいろな技術を学んだ。

卒業後妹の知り合いと 22 才で結婚した。はじめ 2, 3 回会ったところから、かなり積極的なアプローチがあった。「あの人がずっとうちに来るんですよ。色んな物買ってきて…。それでうちの両親とかは『良い人じゃないの?』って。これが愛なのかも分からなかったけど。急いで結婚したのが人生の中で今も一番後悔することです。その代わり可愛い娘が二人出来ました」。

結婚相手は美容室を始め手広くいろいろな商売をやっていた。「自分で 100%はできないけども、詳しくはなりませんでしたね。結構色んな事やりました。楽しかったですよ。そう言うのは人と人との出会いですから。でも、子どもの面倒も自分で見ていたので結構大変でした」と振り返る。

#### ◇ 来日したころ ◇

色々頑張っていたものの、あるとき仕事が行き詰まってしまい、全て辞めることになった。その時声をかけてくれたのが、先に日本人と結婚して千葉に住んでいた姉だった。一度様子を見に行ったら「思ったより日本良いなって思って」。姉の人脈もあり仕事もすぐに見つかりそうだったこともあり、来日を決意することになる。

「子供はあの人『ちゃんと面倒見るよ』ってことで、約束した上で。でもちょっと心配だったから人を雇ったんですよ。幼稚園の先生だった姪を。姪に頼んで、1年か2年、うちの子供に集中して見てくれないかって言って。それで来たんですね」。プロで親戚。何とも心強い味方だ。

初めは言葉が分からなかったのも、あまり日本語の必要のない仕事から始めた。そのうち状況が見えるようになる。「あの頃はそんなに韓国の店とかなかったんですね、東京でも。田舎の方はもっと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うちが作る本場の味とこっちは違うじゃないですか。うまくやれば儲かるかなと思って、知り合いの紹介でちょっとここから遠いところに行って、店を出したんです」。地方にある商業施設の中に韓国料理店を出した。全て自分でやるよりも店子として入ることで様々な問題を迂回することが出来る賢い選択だった。かなりの仕送りも出来た。ただ一年ほどたったころ頃 1997 年にいわゆる IMF 金融危機が起こる。韓国では国難にどのように対処する

かで大混乱していた。

#### ◇ 二度目の結婚 ◇

はじめは噂できいただけだった。だが、「夏休みに子供を呼んでちょっと話したら、初めは言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ういう状態ですよって言ったのを聞いて。こういう店をやってる場合じゃないんだと思って、一回全部閉めて帰って…。全ての問題を整理し、「死ぬ気で子供を私が引き取った」という。日本で親しくしていた友人に、離婚したことを話すと、突然プロポーズされた。急な展開だったが 99 年には婚姻届を出し再来日。「私はバツがついて、子供も 2 人連れてて。自由に出来たのに急に 3 人も出来て」と振り返る。

それ以来ずっと新宿に住んでいる。新宿近辺でまた店をやっていた時期もある。「でも今考えたら無知だから何も知らない。『無知が勇気だ』って言う言葉ありますよね。本当に今考えたら可愛いですね。言葉も知らないで。何でそこまでやったんだろうって思うんですけど、あの時は『日本も同じ人間に住んでるから同じじゃない、やればできるんじゃないか』って言う。まあうちの主人がいたから、うちの主人に聞けば何でも教えてくれるし。今のご主人に対する思いは強い。そのご主人に対する思いは日本にまで広がっていく。「日本の国は私にとっては何ていうのかな... 3 人を助けてくれたこともあったし」。「半分は韓国で苦労したから、半分はここで多分この人と出会えて... そういう人生じゃないかなって思うんです。それまでの人生全部が苦労ばかりしていたので...」とまとめてくれた。

#### ◇ 二人の娘 ◇

再婚したときに二人の娘は 6 年生と 3 年生になっていた。ずっと新宿に住んでいる理由は東京韓国学校の存在が大きい。現在大学生の二人は今も家から都内の大学に通っている。父娘の関係は至って良い。特に下の娘とは良好だ。「うちの主人は、来た時にはあの子をいつも抱っこしてあげたり。だから本当にあの子とうちの主人とは私より仲良いです。上の子は 6 年生だったからやっぱりちょっと照れるというか」。来日した頃の年齢はいろいろなところに影響を与えているようだ。ただ、3 歳年上のご主人には感謝の言葉が絶えない。「本当に良いお父さんですよ。だから子供が大きくなったら私が旦那のためにつて。」とやや申し訳なさそ

うに、しかし嬉しそうに話してくれた。

さて、二人の娘は高校までは韓国学校に通ったが、短期間だが日本の学校に通わせていた時期もある。小さいときの方がいろいろな意味で壁が低いのではという考えだった。「日本語もしっかりと受け入れやすかったかなと」。言葉は当然重要なものの一つだ。しかし、人付き合いの距離感が原因で韓国学校へ戻った。「韓国人は知り合いになって、2、3回会って年も同じくらいだったらオープンにするんですよ。それで相談に乗ってあげ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子供が学校に通う間、心をオープンにする、そういう友達がない。オープンにしてくれない。自分たち日本人同士でもあまりオープンにしないから。あまり嫌な顔も嬉しい顔もしない。はっきりしないのが本当にもうストレスになって、それで戻ってきたんです」。このような文化の違いは年齢にかかわらず良く聞く話だが異国での子供の成長を案ずる母親としては大きな問題だったことだろう。

#### ◇ 韓流ブーム ◇

韓流ブームにも話は及んだ。ブームの前後でこんなことがあったという。「言葉が、昔はちょっとしゃべったら分かりますよね？いくら日本に長くなっても、アクセントで韓国人だな、日本人だなんて言う。で、昔だったら声かけてあれだったら無視したりとかしたんですけど、最近をよく声かけられるんです」と嬉しそうに話す。日本の社会もずいぶんと変わったようだ。

こんな変化にも気がついた。「昔は韓国の女性が日本人の男性と結婚するケースが多か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カップルが。でも今バイト先にも日本人の女性と韓国の男性のカップルが結婚するケースが凄く増えたんですよ。昔ならありえない話なんですけど」。統計上の比率はいまだに大きな開きがあるが、この傾向も徐々に変わっていくのだろうか。AKさんによれば、韓国人はリードしたがるので、日本の女性から見ると男らしくて頼りがいがあるのではという。これは韓国人の女性にも言えることで、最近の「優しくなった男の子」には韓国人の女性が合うのかも笑いながら話してくれた。もちろんそれぞれのカップルの事情は異なるだろうが、AKさんの目にはそんな傾向がみえるようだ。

#### ◇ 東日本大震災とその後 ◇

もちろん震災もAKさんの人生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うちの家族の計画は100パーセント変わった」という。もともと娘たちは日本の大学を出て、日本の会社に就職するつもりだったが、地震と原発の事故で考えをかえた。すぐにも東京を離れることを検討したが、娘たちの大学卒業までは東京にいたいという強い希望で思いとどまった。ただ、下の娘が卒業する二年後には東京を離れることを決心したそうだ。就職も日本ではなく、韓国か第三国を検討している。ただ、AKさんはご主人の実家である地方都市に移住をしようと思っているそうだ。韓国へ行くことも考えたが、「日本人が向こうに行くと住むのは、韓国の社会に深く入るのは色々問題があると思うし、そういう面ではちょっと問題ありますね。国と国が問題あるときは、被害者はうちがなるなら...」ということを取りやめた。「こういう事件がなければ日本にずっといれば良いんですけど。それがすっごい残念ですね」。実に残念なことである。

AKさんは特に今回の原発事故に対する対応に不信感を持っている。特に流通している放射性物質の含まれる食品には敏感だ。他国では許されないような基準のものが流通していることを「日本人は知らないのか、知ってもどうしようもないから知らない振りしているのか。外国の人はみんな知っているのに」と憤る。「本当に私最近日本人が嫌になっちゃったと言ってるんですよ。うちはそういうのを食べないですよ。キムチも韓国で作ってもらって送って。野菜は夫の実家や知り合いからお米とかも全部送ってもらうんですよ。韓国から兄弟たちに。「こういう状態だから」と話したら何も文句もなく送ってくれます」。このように気をつけながら2年間頑張り、そして移住するのが計画だ。

AKさんはその地方のことがとても気に入っている。最近移住を前提の下見もした。「親戚がいるので。うちの主人のお母さんの妹がいるから、そこで何とかやれば2人楽しくや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そこには今回ちゃんと行って来たんですけど、すっごい良いところだったんです。こんな天国があるのかと。温泉があって海があって、市内はすっごくきれいで」。後2年という東京生活の強い心の支えとなりそうだ。

ただ、みんなが残っている中、長く住み気に入っていた東京を離れることになったことに対してとても複雑な思いがある。「今の状態を日本人はど



う対応するか。もっと冷静になって将来を見て対応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残っている普通の人が何か可哀想。胸が痛むので、頑張っって欲しいと思います」。最後に付け加えてくれた。

<인터뷰 73>

AK씨 (40대·여성) 「일본에서 제2의 인생, 그리고 이제부터」

2011년9월20일, 서울 출신 주부, 일본체재 16년차 인터뷰 담당자 : 와타나베 유키노리

이번에 인터뷰를 의뢰한 AK씨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인터뷰에 응해 주셨다. 현재 2명의 딸과 일본인 남편, 4인 가족이다. 휴일에는 가족 모두가 신오오쿠보까지 산책을 겸해서 외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했던 것 같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반에 대해 AK씨는 이야기 해 주었다.

◇ 첫번째 결혼 ◇

AK씨는 서울 강남의 교외에서 자랐다. 오빠, 언니, 언니, 자신, 여동생, 남동생, 남동생으로 이루어진 7남매. 「보통의 다른 집 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며 웃는다. 아이가 많고, 「우선은 아들」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시대가 변하고, 역시 여자도 제대로 학교를 보내야만 한다는 흐름속에서」 야학이지만 고등학교까지 진학하였다. 낮에는 봉제공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다.

졸업 후, 언니의 소개로 22살에 결혼을 했다. 처음 두 세번 만나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받았다. 「그 사람이 계속 저희 집을 찾아오고, 이것 저것 사와서는 .... 그러던 사이에 부모님으로 부터 『좋은 사람인 것 같지 않니?』라고.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서둘러 결혼한 것이 지나온 인생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대신 귀여운 딸 둘을 얻었습니다」.

결혼한 남편은 미용실을 비롯하여 발 넓게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스스로 100%는 할 수 없었지만, 상세하게는 알게 되었죠. 상당히 여러가지 것들을 했어요. 즐거웠구요.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였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스스로 했기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라고 회상한다.

◇ 일본에 처음 왔을 무렵 ◇

여러가지로 분발했지만, 어느날 일이 잘 안 풀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먼저 일본사람과 결혼해서 치바에 살고 있었던 언니였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러 갔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일본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의 인맥도 있고 해서 직장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일본에 오기로 결심을 했죠.

「아이들은 그사람이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다짐도 받고 했지만 조금은 걱정도 되고 해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유치원 선생을 하였던 조카에게 1년이나 2년정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나서 일본에 왔습니다. 전문가이며 친척이라 무엇보다 맘 든든한 내편인 것이다.

처음에는 말을 할 줄 몰랐기에, 별로 일본어가 필요없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주위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국가게가 많지 않았어요, 동경이라고 해도. 시골은 더 없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고장의 맛과 이곳 일본에서의 맛이란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잘만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서 지인의 소개로 동경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로 가서 가게를 오픈 했어요. 지방의 상업시설 안에 한국 요리집을 개업했다. 전부 스스로 하기 보다 테난트로 입점하였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회할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한국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인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온 나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졌다.

◇ 두번째 결혼 ◇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는데, 「여름방학에 아이들을 일본으로 불러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말해 주지는 않았지만.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는 내가 한가롭게 가게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일단 가게를 접고 귀국해서 ...」.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내가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이혼한 사실을 알리자, 갑작스럽게 프로포즈

를 받았다. 급한 전개된 일이지만, 99년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오게 되었다. 「나는 이혼녀에, 아이도 2명 있고. 자유롭게 살수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3명으로 늘었다」고 회상한다.

그때 부터 쪽 신쥬쿠에서 살고 있다. 신쥬쿠 부근에서 다시금 가게를 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이 용기다』 라는 말도 있죠. 정말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납니다. 일본말도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일본도 같은 인간이 사는 곳이라 한국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 일본인 신랑이 있으니깐 물어보면 무엇이든 가르쳐 줄 것이고』. 지금의 남편에 대한 신뢰는 강하다.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까지 퍼져갔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저희 모자 3명을 도와준 것도 있고 해서」.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고생만 했기에, 남은 반생은 이곳 일본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고 생각돼요. 지금 남편과 만나기까지의 인생전부가 고생뿐이어서 ...」라며 마무리를 하셨다.

#### ◇ 두 딸 ◇

재혼할 당시에 두딸은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이었다. 지금까지 쪽 신쥬쿠에 살고 있는 이유는 동경한국학교의 존재가 크다. 현재 대학생이 된 두 딸은 지금도 집에서 도내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부녀관계는 좋은 편이다. 특별히 둘째 딸과는 더욱더 좋은 편이다. 「남편은 애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터 특히 둘째 딸을 항상 안아주고 해서. 그래서인지 둘째와 제 남편은 저보다도 사이가 좋아요. 첫째 딸은 6학년이어서 역시나 조금 부끄러워 한다고나 할까...」. 일본에 올때의 연령은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것 같다. 단지, 3살 많은 남편에게는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는다. 「정말로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제가 남편을 위해서...」라고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기쁜 듯이 말해 주었다.

그러면, 두 딸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중간에 잠시 일본학교에 보낸 적도 있었지만 거의 한국학교에 다녔다. 아이들이 어릴 때가 여러가지 의미에서 장벽이 낮을 것으로 생각했다. 「일본어도 확실하게 쉽게 받아 들였다고나 할까」. 언어

는 당연히 중요한것 중의 하나다. 그러나, 사람과의 사귄에 있어서의 거리감이 원인으로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왔다. 「한국사람은 두 세번 만나고 나이도 비슷하면 서로가 마음을 열지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기도 합니다만, 아이가 일본학교에 다닐 때에 일본인끼리도 별로 마음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이 마음을 열고 지내는 친구도 없고 해서. 그다지 싫은 얼굴도 기쁜 얼굴도 안하죠. 확실히 하지않은 것이 정말로 더 스트레스가 되어서,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갔죠」.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타국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염려하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던 것 같다.

#### ◇ 한류 붐 ◇

한류 붐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한류 붐이 일어나기 전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말이, 옛날에는 조금만 이야기 하면 알죠? 아무리 일본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역양에서 한국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알지요. 옛날 같으면 이야기를 걸어서 그러했다면 무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말도 잘 걸어오고 그래요」라며 기쁘듯이 말한다. 일본 사회도 상당히 바뀐 듯 하다.

이러한 변화도 느낄수 있다. 「옛날에는 한국 여성이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커플이. 하지만, 지금의 알바하는 곳에서도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커플이 결혼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전 같으면 있을수 없는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통계상으로의 비율은 아직도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지만 이러한 경향도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인지. 일본 여성이 볼 때 한국남성이 남자답고 의지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의 「친절해진 남자」에는 한국 여성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다. 물론 제각기의 커플들의 사정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AK씨의 눈에는 이런 경향으로 보이는 듯 하다.

#### ◇ 동일본 대지진과 그 이후 ◇

물론 대지진도 AK씨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가족들의 계획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한다. 원래 딸들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예정이었는데, 지진

과 원전사고로 인해 생각을 바꿨다. 당장이라도 동경을 떠날 것을 검토했지만, 대학 졸업 때 까지는 동경에 살고 싶다는 딸들의 강경한 희망 때문에 그만두었다. 단, 둘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2년 후에는 동경을 벗어날 것을 결심한 듯 하다. 취직도 일본이 아닌 한국이나 제3국을 검토중에 있다. 단지, AK씨는 남편의 고향인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도 생각하였지만, 「일본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 사회에 깊숙히 들어가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인다.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해자는 저희들이 될 것 같아서...」한국으로 가는 것은 그만 두었다. 「이런 사고만 없었다면 일본에 오래오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쉽네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AK씨는 이번의 원전사고의 처리와 대응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특히 유통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식품에는 더욱더 민감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기준의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생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일본사람은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외국사람은 모두다 알고 있는데」하면서 분개하였다. 「정말로 제가 요즘에는 일본사람이 싫어졌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것은 먹지 않아요. 김치도 한국에서 만든 것을 보내 받고, 야채는 남편의 고향집 혹은 지인으로 부터 쌀까지도 모두 보내 받아요.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상황이어서」라고 말하였더니 아무런 불평 없이 보내줍니다. 이렇게 음식을 주의하면서 2년간 지내다가, 이주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계획이다.

AK씨는 남편의 고향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한다. 최근에 이주를 전제로 둘러보러 갔다. 「남편의 친척이 살고 있어서, 그 곳에서 어떻게든 둘이서 즐겁게 지낼수 있을거 같아요. 그 곳에는 이번에 직접 다녀와보니, 정말로 좋은 곳이었어요. 이런 천국이 있을까 하고. 온천도 있고 바다도 있으며 시가지는 정말로 깨끗해서.」 앞으로 2년 이라는 동경생활에 있어서 강한 마음의 지탱처가 될 것 같다.

단지, 지인들 모두가 동경에 남아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생활해 온 동경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복잡해 보인다. 「지금의 상황을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좀더 냉정을 되찾아서 장래를 보고 대응하지 않

으면 안되요. 남아 있는 일반 사람들이 웬지 불쌍해요. 가슴이 아프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라요.」라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었다.

#### <인터뷰 74>

#### Cさん(20代・男性)「学歴社会韓国と日本」

2011年9月29日、春川出身  
学部生、日本滞在暦3年4ヶ月  
インタビュー担当：崔佳英

(インタビュー使用言語：韓国語、日本語)

M大学に在学中のCさんは、商学部で金融を専攻として勉強している。日本への留学を準備するために働いていたときの経験から、金融を専門として勉強したいと思ったという。自ら留学を準備し、自分の経験より道を選び、自分の力で留学しているからこそ、今後の目標を明確に語っていた。

#### ◇ 日本留学への選択と留学の準備 ◇

留学を考え始めたのは子どものときからである。中学時代に親友がカナダに移民に行くようになり、その思いはより強くなった。兵役が終わってから来た日本旅行は、留学先として日本を考えるきっかけとなった。距離的に韓国と近いこと、おばが日本に暮らしているため家賃がかからないこと、なによりもアメリカとは違って日本では仕事(バイト)をして自分の力で勉強していけることが日本への留学を決める決め手となった。韓国に戻ってからは、日本への留学のために1年間アクセサリ販売の仕事をして留学資金を貯めた。Cさんは、留学の準備をしていたこの時期を人生の中で最も幸せな時期と語っていた。

2006年秋から東京の日本語学校への語学留学を始め、10ヶ月間日本語の勉強をした。当初は1年後日本の専門学校への進学を目指していたが、専門学校への進学に対する意思が変わり、日本での留学をあきらめ韓国に戻ることにした。「日本も韓国と同じ学歴社会なので」と。しかし、4年制大学への進学は、ひらがなからはじめ1年の日本語の勉強では到底無理だと思った。

#### ◇ 韓国での居場所、再びの日本への留学 ◇

韓国に戻り、家族に電話をかけたところ、もともと住んでいた家が引越しをしまっていた。父に

も連絡してみたが、引っ越した家を教えてもらえず、韓国での居場所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日本で離婚した母のきょうだいであるおばのところで暮らし、母と連絡を取っていたことが知られたのがその理由だった。居場所がなくなり生活に困っていたとき、留学前に働いていた仕事場の社長の配慮によって、以前働いていたアクセサリーのお店で働けるようになる。

しかし、働くことに対し飽きを感じるようになっていたとき、成功するためにはやはり学歴が必要だと思い再び留学を考え始めた。2008年9月からその年の11月にある日本の大学進学のためのEJU試験に受けるため仕事を休み勉強を始めた。部屋で1人で2ヶ月半試験の準備をし受けたEJUで第一希望の大学に受かった。その当時はなんの情報もなかったため、自分の点数がどれ位なのかも知らないくらいだった。

#### ◇ 日本での生活 ◇

現在は母方のおばと二人で暮らしている。週2回の新聞社でのバイト、金曜日と土曜日は新大久保でバイトをし、自分の学費と生活費をすべて自分の力で稼いでいる。学校生活や日本での暮らしに対しては、「日本という国には不便な面はないが、日本人にはある」と話す。1番大きいのは日本人の韓国人の付き合い方の違いである。日本人は自分の感情をその場ではっきり言わないし、建前と本音が違うからわからない。さらに、みんな最初は人見知りをする。これは、ただ韓国との単純比較による特徴というよりは、アメリカやカナダでの生活の経験から立体的な位置づけとしての日本人の特徴だと思う。ニューカマーの韓国人にとって、この点により「生活をすればするほど自分と合わない」と思える人が多いと思う。だから、自分も日本と韓国では人との付き合い方が違う。韓国では、狭く深くだったものが、日本では広く浅くというようにしている。これは韓国での大学生活と日本での大学生活の差異としてもあらわれる。日本の大学で出会った韓国人ともそうだ。しかし、学校じゃなくて外でも遊ぶ唯一の日本人の友だちはサークルで知り合った男の子で、かれは全てが日本人っぽくない。まるで韓国人みたいな人だ。徐々に合っても昨日会った感じの友達だ。

#### ◇ 2種類の留学生 ◇

「うちの大学の留学生に限って話させていた

くと」と断ったうえで、留学生に対する考えを話してくれた。学部の留学生の中には、高校卒業の直後に留学してきた人と、高校卒業から留学までかなりのタイムラグがある留学生の2種類がいる。年齢でいうと、20代前半と20後半。なぜかその真ん中はあまりいない。20代前半の高校卒業後すぐに留学してきた人たちは、「バイトはやってないし、学費の心配はいらないし」金銭的な問題がなく、韓国からの仕送りで生活している子が多い。人とのつながりを考えず、何を考え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その反面、20代後半の留学生は、生活や学費のために働きながらも勉強に励んでいる。しかも、かれらは夢をもって、今後「こうなろう、こうなりたい」という目標があり、留学の目的も明確な場合が多い。私もかれらに会うと「がんばらなきゃ」と励まされる。この二つの留学生には、人との付き合い方や考え方、生活スタイルなどにも違いが出ているようだ。

#### ◇ 将来について ◇

今後の就職は、日本に限らず韓国やアメリカなども視野に入れている。英語の勉強をし、アメリカの会社で働くのが1番ではあるが、専攻をいかして金融、海外営業、マーケティングの分野で働けるならば、就職先がどこの国なのかは重要ではない。

韓国で居場所がなくなったのでむしろ、自分はどこの国でも大丈夫だと思える。どの国かにとらわれず、自分を活かす仕事がしたい。

#### <インタビュー 75 >

#### 李承宰 (20代・男性) 「日本人の国民性と韓国人の国民性」

2011年10月1日、大邱出身  
博士課程在学中、日本滞在歴8年  
インタビューア：崔佳英

1982年生まれの李さんは、学部の時代から日本に留学し、現在博士課程3年生で政治学を専攻とし、安全保障をテーマに研究している。今は、「若手研究者育成奨学金」をもらい、日韓関係について研究を進めている。週2回は韓国語の講師と学校でのTAや修士課程の人との勉強会での指導もあり、学期が始まると料理をする時間もあまりないくらいだと話す。東京に来て3年間は学校の

で一人暮らしだったが、今年からは、博士課程から留学にきた妹と一緒に暮らすこととなったという。

#### ◇ 学部からの日本留学、大学院への進学 ◇

日本への留学を決めたのは、高校3年生の冬のことである。それまでは韓国の大学である「陸軍士官学校」に通いたいと思っていたが、当時の現状や将来のことを考え「新しい道の開拓」のため、日本留学を選択した。両親から勧められたのも留学を決めた要因の一つであった。留学先を日本にしたのは、当時は留学に関する情報も少なく、「我々の世代はほとんど日本で、我々の世代の下の世代がほとんどアメリカで」という時代の流れであった。日本語の語学学校には通わず、高校を卒業した年の秋から、九州にある大学に入学した。当時は、日本語ができなかったため、英語で授業が受けられる九州の大学を選択した。学部卒業後は東京にある大学院に進学した。「学部までは九州だったから、今度は東京に行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いた。「日本で安全保障やってるのは、やっば内の先生が専門的に特化して教えているのは初めてだから」と、安全保障を専門として勉強するため今の大学院に進んだ。

#### ◇ 現在の研究と将来の計画 ◇

安全保障を研究する目的は、自分の国が、脅威にならないように声を上げ、相手国が脅威になった場合にどのように対応すればよいかということ提案することだと思ふ。卒業後には、研究者として声をあげるか、実際の政治現場で「プレイヤー」としての役割を担う二つの道があると思ふが、まずは、大学で安全保障を教える仕事に就き、最終的には政治家として「プレイヤー」になりたい。日本で研究職での経験を積み韓国の大学へ行く計画だ。アメリカの学位やアメリカの留学経験が大学での就職において圧倒的に優位な韓国で、日本の博士号では就職が難しいためである。しかし、それでも、日本で進学を決めたのは、既存の欧米の理論をアジアに適用し検証するというアプローチではなく、日本でアジアを勉強し、アジアだけに適用できるものを研究したいと思ったからだ。今、博士論文では日韓関係について研究している。日本と韓国が喧嘩したり、協力したりする現象について、「何で喧嘩をして、何で協力するのか、なぜこれを繰り返しているのか」をテーマにして執

筆している。

#### ◇ 日本での外国人としての暮らしと韓国の外交力 ◇

日本に初めて来て、今年で10年目となる。兵役のために韓国に帰っていた2年間を除いたら、日本滞在は8年間である。この10年間で日本社会の韓国人への意識には大分変化があったと思ふ。

2001年に九州に住んでいた頃は、温泉や電車の中で韓国語で話をするのもためらう位だった。韓国語で話をするのと周りのみんなが変な目で見ると、韓国人同士でいても韓国語で話さなかった。「コリアンっていう時点で少し上からの視線」というのがあった。温泉の中では韓国語で話すと、「朝鮮人、出て行け」という感じだったので、韓国語で話せなかった。しかしこれが、軍隊が終わって復学し、まちなに出掛けてみたら、「前と違う」という感じであった。これは、日本人自体が外国人に対する意識を変えたっていうのもあるが、原因としては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メディアの発達で情報が入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あると思ふ。しかし、なによりも、こういった変化には韓国の外交力が上がっていることが一番の要因であると思ふ。今の政権になってから、韓国人が海外で住むのが住みやすくなったと思ふ。2001年の外交力と現在の外交力にはやっぱり違いがあると思ふ。外交政策に、「最大の得点を狙うか、最小の失点を狙うか」このどちらをとるのかという問題があるが、基本的には最小の失点を狙う方がいいと思ふ。でも、批判している人たちは、最大の得点っていうのを狙ってい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李明博大統領を批判している人もいるが、その人たちに「2001年の日本に住んでみて」と言いたくなる程に、実感として日本での暮らしには差がある。

#### ◇ 日本社会と韓国社会について ◇

日本の生活の中で満足しているところは、落ち着いて行動ができることだ。韓国みたいにバタバタしていない。「急がない、怒らない」ので余裕を持って何かができる。不便な面は、まず、ITの環境が悪いところが挙げられる。もう一つは、書類の手続きが長いところだ。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手続きが多すぎて、マニュアル通りに進めるのも良いが、処理のスピードが遅すぎると思ふ。

これから日本社会も韓国社会も改革が必要だと思ふ。日本の「ルールを守りましょう」という意

識は良いところだと思うが、やりすぎなところがあると思う。反面、韓国は「やらなさすぎ」と思う。日本はやりすぎているため、経済危機への対応も遅い。韓国は柔軟にある程度は対応できているが、常に準備しておく姿勢がまだできていない。2つの社会で、日本の「ルールを守る」意識、韓国の柔軟な姿勢をお互いに勉強すべきと思う。「日本人の国民性と、韓国人の国民性を半分ずつ足したら丁度いいですね」と語っていた。

<인터뷰 75>

이승재 (20대·남성) 「일본인의 국민성과 한국인의 국민성」

2011년10월1일, 대구 출신  
박사과정 재학중, 일본체제 8년째  
인터뷰 담당 : 최 가영

1982년생인 이씨는 학부 시절 일본에 유학와서, 현재 박사과정 3학년으로 정치학을 전공하고, 안전보장을 테마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젊은 연구자 육성 장학금」을 받으며,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 2회는 한국어 강사와 학교에서의 TA와 석사과정의 사람들과의 스터디에서의 지도도 있어서, 학기가 시작되면 요리를 할 시간 조차도 없다고 말한다. 동경에 와서 3년간은 학교 앞에서 혼자 살았지만, 올해 부터는 박사과정으로 유학 오게 된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 학부생 때부터 일본에 유학, 대학원으로 진학 ◇

일본으로의 유학을 결정한 것은, 고등학교3학년 때의 겨울 이었다. 그 때까지는 한국의 대학인 「육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생각 했었는데, 당시의 상황이나 장래를 생각해서 「새로운 길의 개척」을 위해, 일본 유학을 선택했다.

부모님의 권유 또한 유학을 결정짓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유학처로 일본을 택한 것은, 당시 유학에 관한 정보도 적고, 「우리들 세대는 거의 일본에서, 우리들 밑 세대는 거의 미국에서」라는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한다. 일본어 어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고교를 졸업한 그 해 가을 부터, 큐슈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일본어가 안되어서, 영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큐슈를 선택했다. 학부 졸업 후는 동경에 있는 대

학원에 진학했다.

「학부까지는 큐슈였기에, 이번에는 동경에 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안전보장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교수님이 전문적으로 특화 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라고, 안전보장을 전공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 현재의 연구와 장래의 계획 ◇

안전보장을 연구하는 목적은, 자신의 나라가 위협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상대국이 위협해왔을 때에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졸업 후에는, 연구자로서 명성을 떨칠지,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플레이어player」로서의 역할을 할지 두가지 진로가 있지만, 우선은 대학에서 안전보장을 가르치는 일에 임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치가로서 「player」가 되고 싶다고 한다. 일본에서 연구직으로 경험을 쌓아, 한국의 대학에 가는 것이 계획이다.

미국의 학위와 미국의 유학경험이 대학에서의 취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위인 한국에서, 일본의 박사학위로는 취직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일본에서 진학을 결정한 것은, 기존의 구미의 이론을 아시아에 적용하고 검증하는 어프로치가 아닌, 일본에서 아시아를 공부하고, 아시아에 적용할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지금, 박사논문에서는, 한일관계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다투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현상에 대해서, 「왜 다투고, 왜 협력할까, 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인가」를 테마로 해서 집필 중이다.

◇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삶과 한국의 외교력 ◇

처음 일본에 와서, 올해로 10년 째가 된다. 병역 의무 때문에 한국에 돌아갔던 2년간을 제외하면, 일본체제는 8년간이다. 이 10년동안, 일본사회의 한국인에 대한 의식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2001년 큐슈에 살고 있었던 때는, 온천이나 전철 안에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 조차도 주저할 정도 였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인 끼리도 한국어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코리아 이라는 시점에서 조금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이라는 것이 있었다. 온천에서도 한국어로 이야기 하면, 「조선인, 나가」라는 분위기 였기에, 한국어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던 것이 군복무가 끝나고, 복학을 해서 거리에 나갔더니, 「전과 다르다」라는 느낌이였다. 이것은, 일본인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의식을 바꾸었다는 것도 있지만, 원인으로서는 인터넷등의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가 들어 오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에는 한국의 외교력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정권으로 되면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살기가 좋아졌다고 본다.

2001년의 외교력과 현재의 외교력에는 역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 정책에는, 「최대의 이점을 노리던지, 최소의 손실을 노리던지」 어느쪽을 택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소의 손실을 노리는 편이 좋다. 하지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의 이점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2001년의 일본에서 살아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일본에서의 삶에는 실감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 ◇ 일본사회와 한국 사회에 대하여 ◇

일본의 생활중에 만족하는 부분은, 안정된 상태에서 행동 할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성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화내지 않는」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수 있다. 불편한 면은, 우선 IT 환경이 나쁜 것을 들수있다. 한가지 더는, 서류 수속이 길다는 점이다.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수속이 너무 많아서,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본사회도 한국사회도 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의 「규칙을 지키자」라는 의식은 좋은 점이지만, 지나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한국은 「너무 지키지 않는 점」이다. 일본은 지나치게 잘 지키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의 대응도 느리다. 한국은 유연하게 어느 정도는 대응 하지만, 항상 준비해 두는 자세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두 사회에서, 일본의 「규율 지키기」의식, 한국의 유연한 자세를 서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국민성과 한국인의 국민성을 반씩 더한다면, 가장 좋겠죠」라고 말한다.

#### <인터뷰 76>

#### チョンさん(20代・女性)「日本人と外国人が明確な日本社会」

2011年10月5日、慶尚南道出身、学部2年

日本滞在暦1年7ヶ月

インタビュー担当：崔佳英

#### ◇ 留学先としての日本 ◇

チョンさんは、大学でメディア関連の勉強をしている。マスメディアに興味を持ち始めたのは、高校生のとき始めて日本のコマーシャルを見たことがきっかけで、そのときはまだ漠然としてではあったがマスメディアに関する仕事に就きたいと思ったという。しかし、大学受験のときにマスメディア関連の学部に出願したが、合格には至らず滑り止めとして願書を出したシステム工学科に進むことになった。高校まで文系で大学から理系に転換し1年生のときには大変だったが、大学で始めて勉強の楽しさをわかるようになる。全く興味がなかった分野での勉強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勉強の楽しさを知ること、「じゃあ、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勉強をするとどうだろうと。だから留学を決めたんです」と語る。

韓国の学校ではなく留学を決めた理由は、より広い視野を持ちたいという想いからだった。留学を考え始めるようになった大学3年生のとき、日本での滞在の経験がある叔母に今の大学を進められホームページを調べたところ、ちょうど勉強したいコースを見つけ今の学科のカリキュラムに興味をもち、そこから留学先として日本に行くことを決めた。アメリカへの留学も考えていたが、当時、日本という国がものすごい魅力的に感じた。知らない国だから自分にとっては未知の世界で、チャレンジしてみたいと思った。

#### ◇ 家族の反対、日本での自立 ◇

しかし、日本への留学に対し、周りは猛反対だった。「アメリカじゃなくて、日本?!」という反応だった。両親も留学することは賛成だったが、専門を変えて新たに学部に入りなおすこと、アメリカではなく日本に行くことを理由に反対された。